검소한 여행 · 알찬 서비스
혜초여행사
해외여행 · 항공권 · 여권비자수속
안국동 로타리(조계사 앞) 종로구 수송동5번지 동일B/D 3층
전화 : 代 (02)733-3900

현대불교

회장:노대행/발행인 겸 편집인:김광삼/논설고문:고은/편집국장 최정희/인쇄인 김규석/등록번호 다-3379/㉾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대표전화 737-8881/편집국 722-4162 FAX:737-0698/광고국 737-0692/구독신청 737-8881 구독료 : 월 4천원 1년 4만원

불기 2542년(서기 1998년) 3월 4일 수요일 (주간) THE HYUNDAE BULKYO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제 164 호

人蔘의 약효!
원비·디®

경주남산 세계유산 추진

30여 불교·시민단체 4월 발기인 대회…10만명 서명운동도

문화재관리국 남산 정비예산 6억 책정

경주 남산을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하려는 불교·시민운동이 대대적으로 펼쳐진다.

경주지역 신라문화동인회, 한국불교사회연구원등 30여 불교·시민단체 대표들은 28일 경주남산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위한 3차 준비모임(준비의장 김은근. 영주공고교사)을 갖고 4월에 추진발기인대회를 개최키로 했다.

이들 단체대표들은 경주 남산의 세계문화유산 등재작업을 범시민운동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아래 빠른시일내 각계 각층이 참여하는 준비위원회를 결성하여 3월 한달간 범국민 발기인 인선과 유네스코 등재 신청서류 기안, 행사개최 준비작업에 돌입키로 했다.

이와함께 4월경 추진위가 발족되면 경주남산을 조명하는 학술세미나와 범시민 결의대회 등을 연이어 열 계획이다. 또 한국불교사회연구원은 여론확산을 위해 4월말부터 경주남산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요구하는 범시민 10만인 서명운동을 전개키로 했다.

경주 남산은 세계적인 노천 박물관으로 지난해 유네스코 한국위원회에서 세계문화유산 등록신청을 검토한바 있으나 문화재 훼손과 현황의 미확보 등 정비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아 보류됐었다. 그러나 문화재관리국이 올해부터 2차 문화권 정비작업의 일환으로 6억여원의 예산을 책정하고 경주남산 정비계획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문화재관리국 기념물과 백중권사무관은 "경주 남산은 문화재가 산재돼 있어 면밀한 검토를 위해 최근 경주시에 남산정비계획서 제출을 요청했다"며 "등산로 주변 문화재보존을 위해 교도소, 패타이어장, 묘소의 이전작업을 1차적으로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지정 세계문화유산은 현재 1백40건이며 우리나라는 석굴암, 팔만대장경판·판전, 수원성, 종묘등 5건이 등록됐다.

〈김원우 기자〉



'국민정부' 출범 김대중대통령이 25일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제15대 대통령 취임식을 갖고 공식 취임했다. 이로써 헌정사상 처음으로 여야간 민주적 정권교체로 탄생한 '국민의 정부'가 출범했다. 〈관련기사 20면〉

여의도 불교문화센터 4월 개원

정치·경제·언론·연예계 교류의 장
조계종 법당등 마련…자문단도 구성

여의도에 정치 경제 언론 연예계 불자들이 함께 법회를 보고 교류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된다.

조계종 총무원은 전법사업의 일환으로 여의도에 가칭 '여의도 불교문화센터'를 4월초에 개원할 계획이다. 불교문화센터는 각정당의 불자회와 국회정각회, 국회 보좌관 불자회, 전경련 산하 불자경제인, 방송3사와 주요일간지 및 불교계신문사에 종사하는 불자, 연예인불자회 등 불자단체들이 단체별 법회를 볼 수 있는 공간으로 제공된다. 또 월1회씩 연합법회를 개최해 불자간의 유대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총무원 사서차장 정빈스님은 "사회를 이끌어 가는 지도층 인사들을 위한 포교방안으로 여의도가 갖는 지역적 특성에 착안, 문화센터를 설립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총무원은 여의도 신송빌딩 12층에 150평 규모의 공간을 확보. 총무원은 문화센터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법사단과 고문단, 정 재계 기획자문단, 방송언론 기획자문단, 사업 기획자문단을 구성할 방침이다.

조계종 총무원이 불교문화센터 운영을 통해 정재계와 언론 연예계 불자들의 불심을 고양시키기로 한것은 특수계층 포교의 새로운 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불자조직을 형성하기 어려웠던 경제계 인사들의 경우 각종 정보교환과 인적교류의 공간이 마련된다는데 큰 기대를 걸고있다. 정치와 경제 언론의 제1번지인 여의도에 직접 법당을 꾸며 각계 불자들의 발길을 모은다는 것은 총무원의 적극적 전법의지여서 앞으로의 운영에 상당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임연태 기자〉

17일 조계종 종회

종법제개정등 논의

조계종 제130회 임시중앙종회가 17일부터 5일간의 회기로 개회된다. 결산종회인 이번 종회에서는 중앙종무기관의 전년도 업무 결산과 종법 제개정안이 주요안건으로 상정될 전망이다.

종법제개정 특위는 종무원법, 중앙종회법, 교육법 등 17가지 제개정안을 마련 이번종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남북지도자 13일 북경서

'5월 LA합동법회' 논의

통일원은 2월 25일 조국평화통일불교협회(회장 법타스님)가 '남북불교지도자 합동기원법회' 개최를 위해 제출한 북한주민접촉 신청을 승인했다.

평불협은 13일 오후3시 북경 쉐라톤호텔에서 불교지도자를 만나 5월 LA합동법회 등에 대해 논의 할 예정이다.



PCS포교기금 소쩍새마을에 3백만원 첫 전달
현대불교신문사

현대불교신문 김광삼사장은 23일 PCS016 관매사업으로 얻어진 부다피아 포교기금 3백만원을 23일 소쩍새마을 원장 보각스님에게 1차로 전달했다. 부다피아 포교기금은 현대불교신문 PCS사업단이 관매한 PCS016의 통화료 중 5%로 조성된다.

불교문화 체험기행

온 대지가 새롭게 깨어나는 봄의 길목 3월. 3월의 독립운동가 용성 진종선사의 오도현장이며 신라불교의 초전지인 선산 모례원·도리사, 용성스님 유품전이 열리는 천안 독립기념관, 서울 대각사를 찾아 스님의 대각교 운동과 독립정신을 기립니다. 3·1 독립운동 당시 민족대표 33인의 한 사람으로 독립운동을 했으며, 한문불경 번역과 찬불가 작곡 등 대중포교에 일생을 바쳤던 용성스님의 가르침과 업적을 현장에서 새겨보세요. 이날 대각회에서는 참가자에게 용성스님의 대표저서 〈각해일륜〉을 법공양 합니다.

'3월의 독립운동가 용성스님' 발자취

독립기념관 모례원 도리사 서울대각사

◇출 발: 3월 15일(일) 오전7시 · 조계사 앞
◇회 비: 3만5천원(점심제공 · '각해일륜' 법공양)
◇접수처: 현대불교신문사(02)737-8881, 722-4162
혜초여행사 (02)722-3900
◇은행계좌: 조흥은행 322-04-221460(선정호)

주최: 현대불교신문사 협찬: 일양약품
주관: 혜초여행사

명퇴자의 자원봉사



대학원을 졸업하고 공장을 운영하다 부도를 내고, 빚쟁이들에게 쫓겨 노숙자 신세로 배회하는 기장들의 모습. 개인과 가정의 붕괴로 졸지에 엄마 아빠를 잃어버린 어린아이들이 보육원에 맡겨지는 현실을 보면서 초등학교 6학년된 딸아이를 둔 한 사람의 부모로서 가슴이 아팠다.

"저 아이들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을까?" 한참을 고민한 끝에 손씨는 마음 먹었다. 자신도 명퇴한 입장이라 경제적으로 도와줄순 없지만 "아이들을 직접 찾아가서 따뜻한 정을 나누는 자원봉사를 하자!"라고.

자원봉사를 통해서 손씨는 사회가 덧씌운 '명퇴'의 굴레를 스스로 던져버렸다. 어려운 때 일수록 이웃을 돌아보며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라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몸소 실천하고 있는 손병호씨.

"저는 아직 법명도 없고, 정기적으로 법회에 나가지도 않는 그저 그런 '나이롱 불자'인데도 아이들의 해맑은 미소를 보면 부처님을 만난 듯 신심이 절로 솟습니다. 이상한 일이죠!"

〈이은자 기자〉

구독료납부 은행지로 3054464
우체국 계좌번호 010041-0255243

인터넷 부다피아 http://www.buddhapia.com

교계 출소자 갱생생활관 건립 22면
시방세계 소쩍새 새 둥지 튼다 11면
범어사 스님들 3·1운동 공개 9면

여시아문의 새책

대행 스님과의 신행문답 생활 속의 불법 수행

삶의 진실에 다가서지 못한 앎은
또다른 병통입니다.
'길을 찾는 이들'과 '대행 스님'이 나눈
이 책의 물음과 답변들은,
삶의 진실에 대한 절절한 의문과
대행 스님의 大用心이 빚어낸 ·
깨달음의 和音입니다.



현대불교신문사 엮음
여시아문 펴냄
값 5,000원

이 책에 소개된 380여 항목의 질의 응답은 현대불교신문 창간호(94. 10.15)부터 143호(97. 9. 24)까지 '길을 묻는 이에게' 난에 연재되었던 것을 주제별로 묶은 것입니다.

문 : 스님께서는 '주인공 자리'에 모든 것을 의심 없이 놓으라고 하시는데 자꾸만 '아트만' 같은 같은 것이 떠오릅니다. '주인공'에 대해 한말씀 일러 주십시오.

답 : 주인공이란 말은 그냥 이름이니 달리 뭐라고 해도 괜찮습니다. '참나'라 해도 좋고 '한 물건'이라 해도 좋고 '본래 면목'이라 해도 좋습니다. 주인공이란 언어와 명상(名相)을 초월한 것이요, 일체를 다 싸잡아서 붙인 이름입니다. 처사님께서는 주인공이 일체를 한다고 믿고 맡기라니까 개별적인 '나', 개별적인 '그 무엇'을 연상하시는 모양인데, 그것이 아니라 전체를 의미합니다. … 항상 나와 너, 주체와 객체로 나눠 보던 습 때문에 둘 아닌 도리가 가물가물하겠지요. 그래서 주인공! 하여 하나로 싸잡으라는 것입니다.

— 본문 중에서 —

여시아문 여시아문은 '물은 바 한 치의 어긋남도 없이 전하겠다'는 정신으로 시대의 빛이 될 책들을 만들겠습니다.
주소 :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전화 : (02)737-0695, 팩스 : (02)737-0696
최근의 절박한 경제난 타개의 한 방편으로 대행 스님의 가르침을 널리 나누고자 5,000원이라는 파격적인 가격으로 독자 여러분에게 다가갑니다. 불필요한 경비를 제거하고 재생용지를 사용한 것도 현재의 난국을 슬기롭게 극복하자는 여시아문의 의지를 실현한 것입니다.

사 설

출가정신과 분쟁

건전한 상식에 어그러지는 일은 아무리 도도한 웅변으로 정당화를 시키려해도 오히려 그 이면의 추함만을 드러내게 된다. 그러한 일들 가운데 하나가 불교 승단 내부의 갈등, 또는 종단 사이의 갈등들이다.

조계종과 태고종 사이의 해묵은 분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걸핏하면 동원되고 하는 폭력들, 뿌리가 같은 조계종과 선학원 사이의 풀리지 않는 갈등…. 이런 일들은 천만 불자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선을 넘어서 불교의 위상 자체를 나락으로 떨어뜨리게 하는 치부가 되어버렸다. 이런 양상에 대한 근본적 반성이 없다면 우리 나라의 불교는 나날이 망해가고, 결국은 분쟁의 당사자들만 남아서 그들이 그토록 싸워 얻은 텅 빈 사찰을 지키고 있게 될지도 모른다고 우려하는 것은 지나친 상상일까.

물론 분쟁이 있는 이상 그 가운데는 각각 자기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근거가 있을 것이요, 절대적으로는 아니더라도 상대적으로 좀 더 정당성을 지닌 쪽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들 분쟁이 계속되는 양상을 보고 있노라면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소홀히 되고 있다. 그것이 바로잡혀지지 않는 한 원만한 해결은 결코 바랄 수 없을 듯 하다.

우선 분쟁 가운데 있는 불교계의 어느 종단이나 단체를 막론하고 부처님의 출가 정신, 무소유의 정신에 바로 서지 못하고 있다. 부처님의 뜻을 펴는 일이라면 피아를 따지지 않고 힘을 보태주고 밀어주는 풍토가 실종되어 가고 있다. "내 종단 또는 내 단체 밑에 들어와서 하라, 내 절에 소속되어라,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좋은 일이라도 산통을 깨 버리겠다." 이것이 불교계를 풍미하고 있는 구호가 되고 있지 않은지 걱정이다. 그렇게 되면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를 널리 펴기 위한 방편이어야 할 종단이나 단체들이 자체 세력확장을 지상목표로 삼게되고, 자신의 소유를 늘려가기 위해 혈안이 되게 된다.

분쟁의 당사자들은 이제라도 자신들이 앞으로 어떤 역할을 맡아 어떠한 이상적 세계를 건설하려 하는지에 대해 보다 근본적으로 검토하고, 그 결과를 분쟁의 상대방과 또 천만 불자들 앞에 설득력있게 제시해야 한다. 이상적인 미래 불교계의 구도 속에서 자신들의 위상을 제시하고, 그것에 대해 서로 교감하고 조정하여 공통의 인식을 이루어 눈앞의 이익에 매달리는 추한 모습을 벗어나야 한다.

그런 다음에 서두르지 말고 합법적인 틀 속에서 절차를 지켜가며 구체적인 조정 작업을 꾸준히 진행해야 한다. 그 사이에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한다는 논리가 끼어들어서는 안되며, 오히려 절차를 준수하는 과정 자체에서 불교의 수승함을 보여야 한다. 불교를 나락에 처박는 폭력사태나, 자신의 위상 확보를 위해선 불교계의 큰 틀을 깨버릴 수도 있다고 위협하는, 바람직하지 못한 행태는 철저히 배제돼야 한다.

마침 3월1일은 삼일절이고 6일은 부처님 출가절이다. 불교계의 해묵은 문제들을 독립의 정신과 출가정신에 비추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

일제잔재를 씻기 위해 그간 치뤄온 노력과 성과들을 다시 한번 평가하고, 이제 외형적인 청산을 넘어서 진정한 한국불교를 꽃피워 일제잔재가 자연스럽게 그 그늘 속에 묻히도록 하는 일에 나서야 한다. 또 부처님의 출가정신 앞에서 승단내 여러 갈등·분규들에 대해 어떻게 변명할 수 있을까 반성해 보자. 부처님께서 이런 추태에 매달리는 단체나 조직이라면 "해체하라!"고 하시지나 않을지 생각해 보자.

현대불교 구독신청 737-8881

현대만평

박구원



여의도에 피는 연꽃

동국대 불교종합병원 5월 착공

8백 병상 갖춰 한·양방 협진…재원마련 동참 필요

동국대학교 부속 불교종합병원이 2002년 개원을 목표로 오는 5월 착공된다.

동국대(총장 송석구)는 최근 "경기도 고양시로부터 불교종합병원 신축에 따른 건축허가를 통지 받았다"며 "고양시 식사동 8천8백여평 부지에 지하 2층 지상 12층의 불교종합병원을 건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일산에 건립되는 동국대 불교종합병원 조감도.

동국대는 병원건설에 총예산 1천2백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병원은 2천9백여평의 대지에 연면적 2만7천여평 규모로 건립, 약 8백병상의 한·양방 협진체제로 운영할 계획이다. 특히 노인병과 뇌졸중, 성인병 등의 한·양방 협진이 요구되는 진료를 특성화시켜 독자적 의료체계를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또 △국제 의학전산망 구축 △최고수준의 의학정보실 확보 △우수의료진 및 최첨단 의료장비 확보를 통해 수도권내 최대의 종합병원으로 자리매김 할 계획이다.

송석구 총장은 "불교정신에 기초한 의료복지 구현을 위해 세심하고 철저한 시설 및 설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동국대는 병원건립에 필요한 재원조달과 관련 "우선 동국발전기금의 일부와 수익사업을 통해 조성되는 예산 5백5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며 추가 재원마련을 위해서는 불교계 종단과 사부대중의 관심과 동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정은 기자〉

봉축기간 4월1일~5월5일

조계종 봉축위 일정 확정
외국인에게 리프렛 배포도

조계종 봉축위원회는 올 봉축기간을 4월1일부터 5월5일까지로 정하고 4월 14일 애기봉 점등식, 21일 시청앞 점등식, 26일 연등축제, 5월3일 봉축법요식 등 구체적인 일정을 확정했다.

봉축위는 또 외국인 관광객에게 부처님 오신날을 전후로 펼쳐지는 각종 행사와 봉축의 의미를 안내하는 리플렛을 제작 보급하고 있다.

봉축위는 올 봉축행사 관련 행사안내를 한국관광공사가 운용하는 한국관광안내 인터넷 사이트와 총무원이 운용하는 한국불교 소개 사이트에도 등재했다.

봉축위는 또 봉축기획상품 연꽃동자 저금통을 제작 염가에 보급하고 있다. 연꽃동자저금통은 3월부터 6개월간 중간마진이 배제된 6천원에 특별보급한다.

"정신개혁운동 전개 국난극복"

종교지도자협 3·1절 시국선언문 발표

한국종교지도자 협의회(공동대표의장 월주)는 제79주년 3·1절을 맞아 '정신과 물질이 조화된 갱신운동으로 새로운 도약의 기틀을 마련하자' 제하의 선언문을 발표했다. 협의회는 28일 오전 10시 천도교회관에서 '국난극복을 위한 시국강연회 및 시국선언문 발표회'를 갖고 "오늘의 위기를 계기로 우리경제의 체질개선과 불합리한 제도를 개혁하여 재도약의 전기로 삼아야한다"고 강조했다.

협의회는 △작금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우리경제의 체질개선을 위한 각계각층의 노력을 적극 지지하며 전 종교계가 합심하여 이를 지원한다 등 구체적인 선언과 관련 경제회복과 민족통일 운동 종교를 통한 정서순화 운동등의 구체적인 사업들을 실시할 계획이다.



국회정각회 신년법회

국회정각회(회장 서석재)는 27일 정각선원에서 월주스님(조계종 총무원장) 박상규 국민회의 부총재 박철언 자민련 부총재 김태호 한나라당 의원 등 사부대중 1백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신년법회를 개최했다. 서석재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부처님의 가피로 이 나라가 IMF를 극복해 나갈수 있도록 기도하자"고 말했다.

조계종 계단위 의제개혁·52계위 "반대"

율장과 맞지않아…재검토해야
교육원·포교원, "예정대로 시행"

조계종포교원(원장 성타)과 교육원(원장 암도)이 추진하고 있는 '대승보살 52계위 포살참회법'과 '사미·사미니 의제개혁'에 대해 계단위원회(위원장 청하)가 제동을 걸었다.

계단위원회는 2월21일 파계사 영산율원에서 회의를 열어 △사미(니) 의제는 율장에 맞지 않고 △52계위 포살법은 율장에 없는 의식이라며 '불가' 판정을 내렸다. 특히 의제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모았다"고 계단위원인 철우스님이 밝혔다.

'52계위'에 대해 계단위원회는 "신도포살을 정례화하려는 취지에는 동감하나 율장을 확대 해석하거나 율장의 부분을 모아 새로운 포살법을 만들어서는 안된다. 포살법이 아닌 서원법으로 바꾸는 것이 좋다"는 뜻을 이날 회의에 참석한 포교원 포교연구실장 효종스님에게 전했다.

포교연구실은 애초의 계획을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포교연구실장 효종스님은 "현대에 맞는 새로운 신도포살법이 요구된다"며 "52계위에 대한 대중적 합의를 이뤄내기 위해 공청회 세미나 등을 통해 최종 입장을 정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교육원은 계단위의 새 의제법 시행 반대와 관련 "새 의제의 3월 시행은 흔들림없는 종단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계단위원회의 '불가' 판정이 법적 효력을 갖지 않는다는 것이 교육원의 계단법 해석이다. 계단법에는 의제와 신도포살에 대한 규정이 없다. 계단위원 사이에서도 두 사안에 대한 규정이 없어 '의견제출'에 머문다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일부 승가대학 학인들이 새 의제 착용을 꺼리고 있고, 52계위에 대한 반대의견도 만만치 않은 가운데 계단위원회의 반대의견이 나와 돌발상황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정성운·이온자 기자〉

종단협 올사업 남북교류위 설치키로

진관스님 석방탄원도

한국불교종단협의회(회장 월주·조계종 총무원장)는 2월19일 종단협사무실에서 제34차 정기총회를 갖고 남북교류위원회 및 한중일 불교우호교류사무국 연락위원회 설치 등 98년도 사업을 확정했다. 또 진관스님 석방탄원서를 김대중 대통령당선자에게 제출하고 국난극복법회등을 개최키로 했다.

이날 확정된 사업은 △환경보존 소비자보호 인권등 전문위원회 활동 강화 △경제포럼 및 간담회 실시 △경제살리기 운동 전개 △북한동포지원 활동 전개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 이날 이사회에서는 4억3천여만원의 세입·세출 예산안을 확정했으며 올 부처님오신날 봉축행사를 종단협의회 주최, 조계종 주관으로 실시키로 했다.

이밖에 이사회에서는 자비의 전화 부설기관 설치와 내분중인 한국법화종을 제명키로 결의했다.

동국대병원 건립기금 능인회 2천만원 전달

부산 능인회(회장 김무위자)는 2월 26일 부산구도회 법당에서 동국대병원 건립기금 2천만원을 동국대 정병조 부총장에게 전달했다.

동국대총장 이사회 선출

동국대학의 총장 선출방법이 이사회 임명제로 바뀔 전망이다. 동국학원 이사장 녹원스님은 23일 열린 교수회의에서 "교수 선거를 통한 총장선출방식에 문제가 있다"며 이사회가 직접 총장을 선출할 것을 표명했다.

24일 열린 이사회에서도 대다수 이사들이 이사회가 총장 선출하는데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보

불치병으로 고통 받는 사람
우환과 액운으로 고통받는 가정에
건강과 행복, 출세를안겨주는
신비로운 민간요법

명당자리 氣 요법

· 제조원 : 이명무 오링테스트 연구회
· 판매원 : 기원정사 천도원(세정개발 주식회사)
· 주 문 : ☎ 052) 223-0491~2
☎ 052) 249-8751

◆우울증, 치매, 정신병, 간질, 근무력증, 만성피로, 원인불명질환, 중풍, 언어장애, 난청이명, 불면 증, 불임증, 당뇨병, 축농증등 현대의학으로 치료 안되는 환자, 사업실패, 불운, 가정불화, 비행청소년, 기타 우환과 액운이 따르는 사람에게 권합니다.

명당자리 요법이란?

▶ 묘지요법 (영혼천도 및 묘지 명당 만드는 법)
▶ 유해전자파 중화요법 ▶ 찜질 및 목욕요법 등

현대 의학과 민간요법을 조화시켜 종합적으로 대처함으로 치료 효과를 극대화 시킨 합리적인 요법이다.

특히, 현대의학으로 치료가 어려운 난치병, 만성병, 불치의병, 원인 불명의 질환이 거의 대부분 조상의 묘와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이명무 약사가 오링 테스트를 통하여 세계 최초로 확인하여 임상적으로 증명하였다.

놀라운 것은 이러한 종합적인 명당자리 요법을 통하여 정신병 환자가 호전 반응을 일으키고 치매, 신근 경색증 환자가 양호한 상태로 변화되는 등 실제 임상을 통하여 입증시킨 새로운 학문으로 각광을 받게 될 것이며 다가오는 21세기의 의학계 발전에 이바지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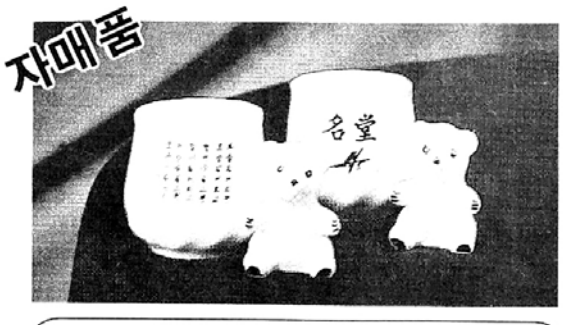
상표등록출원 제23461호

도자기



▲ 조상을 편히 모셔드리는 명당도자기

자매품



★ 명당컵
① 명당컵을 TV위에 올려 놓거나 전자렌지, 냉장고 안에 넣어 두면 신비로운 氣의 작용에 의해서 유해전자파의 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다.
② 명당컵에 물을 담으면 건강수가 되고, 그 물을 이용하여 찜질 및 목욕을 하면 혈액순환이 잘되어 피로회복은 물론 피부가 부드러워진다.

■ 묘지요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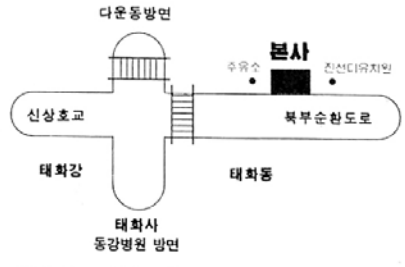
풍수지리설을 근거로 하여 과학적인 측면에서 이명무 약사가 세계 최초로 연구하여 조상의 묘가 잘못되면 실제로 그 후손이 나쁜 기를 받아 각종 질병을 유발시키고 사업실패, 영업부진, 불운과 가정불화, 비행청소년 기타 예고없는 사고등 액운이 따르므로 이런 사람은 지체없이 고인의 묘지에 명당 도자기를 묻어 주거나 유골을 모시면 고통받는 영혼이 완전히 편안한 영혼으로 변화되어 후손들의 질병도 치료되고 당대 발복하여 행운이 따라와서 출세를 누릴 수 있는 불가사의한 치료법이다.(특히, 객사죽음, 화장한 영혼은 한이 많은 영혼이라서 천도가 잘 안되지만 명당도자기 요법으로 100% 천도가 됨)
유해 전자파 중화요법, 찜질 및 목욕요법, 건강 식품 요법 등은 위 상품란에 참고 하시고 상세한 것은 전화 문의나 시중 서점에서 이명무 지음 「신비의 오링테스트와 명당자리 기요법」을 구입해 참조 하시기 바람.

전국 시·군·사찰지사 모집

◐ 「남여 불문 선착순 계약」

주변에 난치병으로 고통받는 신도가 없는지?
갖은 노력을 해도 실패만 거듭하는 신도는 없습니까?
스님들을 통해서 그 효력이 100% 발휘되는
명당자기 기요법!! 놀랍고 불가사의한 비전!
신비로운 작용, 그 전부 입니다.

● 「불황에도 투자액의 배액이 보장된다.」
● 독점 품목이다.
● 투자에 대한 위험이 없다.
● 신도들의 서원을 100% 충족시킨다.
● 간편한 방법으로 영가 천도는 반드시 된다.



※불가비법 원법(圓法) 오링테스트 개인지도 접수함.

교과서 불교왜곡·비하 '시정'

조계종 교과서연구委 4월 결성

교사용 불교참고서도 개발
예산 태부족…성과 의문

조계종포교원(원장 성타) 산하기구로 '교과서 연구위원회(이하 교과서위원회)'가 결성된다. 포교원은 20일 포교연구실에서 포교원 연수국장 법경스님과 교법사단장 고우익법사(동대부고), 전국교사불자회장 임완숙교사(이화여고) 등이 참석한 가운데 준비모임을 열어 4월초 교과서위원회를 결성키로 했다.

교과서위원회는 교과과정 연구분과와 종교교과서 연구분과 등 5개 분과를 두어 △제7차 교육과정 개편에 대비한 불교교과서 개편 및 신종도서 개발 △각종 교과서의 불교관련 내용 조사 및 자료화 △교사용 불교관련 참고자료 개발 △편향 왜곡기술된 교과서 내용의 시정 요구 등의 활동을 펼친다. 교과서위원회 준비모임은 전국교사불자회와 교법사단이 각 분과를 분담키로 했다. 준비모임은 또 각 분과 연구를 토대로 10월초 세미나를 열어 연구내용을 1차 검토키로 했다.

그동안 교과서의 불교 비하·왜곡에 대한 지적은 수차례 있었다. 그러나 권위를 갖춘 종단차원의 단일창구를 통해 교육부에 시정을 요구한 적은 없었다. 일선 불자고사들은 "예전에 비해 교과서에 불교관련 부분은 늘어났으나 불교의 비하·왜곡은 여전하다"고 지적한다.

현재 쓰이고 있는 교과서에도 불교의 비하·왜곡은 쉽게 찾을 수 있다. 초등학교 6-1 도덕교과서(95년 발행)에는 예수를 '하느님의 아들'이라고 표현하면서 부처님을 '성주 아들'로 격하했다. 5학년 도덕교과서에는 '테레사 수녀님'이라고 존칭하면서도 대각국사 의천스님을 '의천'으로 표기하고 있다. 사회 5-1 174쪽에서는 '산대놀이의 내용은 타락한 양반을 비웃고, 계율을 깨뜨린 승려를 탓하며 상식없는 사람을 나무라는'으로 기술해 자칫 스님과 불교에 대한 그릇된 인식을 심어주고 있다.

교과서위원회는 이같은 비하·왜곡에 대한 시정에 중점을 둔다. 제7차 교육과정 개편을 앞두고 올해 교과과목에 대한 연구와 심의를 통해 99년 최종 확정한다는 교육부의 교과서 개편시기에 맞춘다는 방침이다. 교과서위원회는 내용의 잘못에 대한 지적과 함께 올바른 기술(記述)을 대안으로 제출한다.

그러나 올 한해 교과서위원회 예산이 고작 8백만원이어서 실질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지는 의문이라는 지적도 있다. 한 교법사는 "교과서는 청소년들의 1차적인 학습교재이며 교육의 내용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라고 지적하고 "교과서를 다루는 위원회의 의욕을 현실화하기 위한 종단의 관심이 절실하다"며 예산증액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성운 기자



◇경제 한파로 인해 광고수입의 대폭감소 등으로 심각한 운영난에 처한 불교방송·불교TV. 초긴축에 따른 프로그램의 질 저하와 방송포교의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사진은 25일 열린 불교TV 이사회.

적자…긴축…"묘책 찾자"

BBS·btn 예산확정…올 살림 전망

공금횡령사건, IMF로 인한 광고수입 감소 등 내외적 요인으로 심각한 경영난에 처한 불교방송(사장 성낙승)과 누적된 적자에 시달리고 있는 불교TV(사장 정우스님)는 올해 살림을 어떻게 살까.

두 방송사는 이미 구조조정 등으로 적자폭을 줄이려 하고 있지만 가중되는 재정 압박으로 인건비 및 제작비 추가 절감이 불가피하다. 따라서 프로그램의 질적 저하 등 방송매체를 통한 포교에 큰 차질이 예상되고 있다.

불교방송은 97년 공금횡령사건과 광고수입 격감, 재단이사들의 출연금 미납 등 연이어 강타를 얻어맞고 있다. 직원들의 상여금 700% 전액반납, 제작비 축소 등 예산을 긴축해 방송시설 및 지방국 운영비, 인건비 등이 포함된 새해예산 131억원을 2월24일 이사회에서 통과시켰다. 그러나 재단이사회에서는 정기적으로 들어오는 광고수입 66억원과 사업부 수익 23억원을 제외한 42억원에 대한 대책을 전혀 제시하지 않아 방송운영비 부족이 심지난 연말부터 매월 케이블TV 가입자수가 2천명씩 감소하고 있어 수신료 수입도 대폭 줄어들고 있다.

불교방송은 경영 개선을 위한 방안으로 각 종단 총무원장의 고문 위촉, 후원회원 확보, 새 이사 영입, 성지순례와 종단의 각종 행사 대행사업 등이 거론되고 있다. 그러나 종단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고 경제한파 등으로 실현 가능성은 불투명하다. 재단이사 수를 늘리자는 의견도 있어 10명의 이사를 증원할 경우 30억원의 수입이 들어와 급한 불을 끌 수 있다는 예상을 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이사 출연미납액이 5억원을 넘어, 3억 출연금을 낼 수 있는 이사 구하기가 쉽지만은 않을 전망속에서도 새이사 영입에 기대를 하고 있다.

불교TV는 또 한차례의 대대적인 주식공모를 고려하고 있지만 경제한파로 인해 동참율이 저조할 것으로 보고 사찰 및 상업광고 유치, KBS를 비롯한 6개 지역민방 및 미국 위성 K-TV 등에 프로그램 판매 등 수익사업에 기대를 걸고 있는 형편이다.

김주일 기자

BBS 광고공사 폐지설로 위축
btn 광고·수신료 수입등 줄듯

목어 괴문서

"출가하여 수행자가 되는 것이 어찌 작은 일이랴. 편하고 한가함을 구하거나 명예나 재산을 구해서가 아니다. 생사의 괴로움, 번뇌의 속박을 끊고 부처님의 지혜를 이어 끝없는 중생을 건지기 위해서인 것이다."

서산대사가 〈선가귀감〉에서 밝힌 출가의 근본 취지다.

6일(음 2월 8일)은 부처님께서 출가하신 출가절이다. 아침 저녁으로 부처님께 사홍서원을 바치며 출가수행의 길을 걷고 있는 스님들이 그 본뜻을 모르거나 잊을리 만무하다. 그런데도 가끔씩 '출가정신' 부재론이 거론된다. 요즘도 그런 걱정이 오가고 있다.

"출가수행자는 어떻게 관찰해야 세상의 어떤 것에도 집착하지 않고 평안(열반)에 들 수 있습니까"

"내가 있다고 하는 의식의 근본을 제지하고 안에 도사리고 있는 온갖 대착까지도 눌러 버리도록 배우라.

눈으로 보는 것에 탐내지 말아라. 저속한 이야기에서 귀를 멀리하라. 세상 어떤 것이라도 내것이라고 고집하지 말라. 고통을 겪어도 비관에 빠져서는 안된다.

수행자는 비난을 받더라도 두려워말고 칭찬을 들더라도 우쭐거리지 말아라. 오만불손하거나 불화를 가져올 말을 해서도 안된다."

초기경전 〈숫타니파아타〉는 출가자의 몸가짐까지도 상세히 일러준다.

올해는 조계종의 총무원장과 종회의장, 9개 교구본사의 주지임기가 끝나는 해다. 총무원장 임기는 아직 9개월이나 남았는데 벌써부터 선거바람이 이는지 '괴문서'가 나돌고 있다. 본사 주지자리를 놓고도 후보로 오르내리는 스님들에 대한 비방의 소리가 들린다. 남의 잘못은 파사현정 정신에서 드러내야한다. 시기·질투에서가 아니라 전체를 이롭게하는 명분이 뚜렷해야 한다. 따라서 괴문서 작성·배포자는 자기를 떳떳이 밝혀야 한다. 이름을 숨겨야 한다면 괴문서 내용이 사실이라도 그런 일은 비겁한 짓에 불과하다.

죄송한 표현이지만 4년전에도 이 난에서 '스님벼슬 닭벼슬만도 못하다'는 말을 인용했다. 제발 수행공동체답게 종단의 주요자리가 조용하게 정해지길 바란다. 그러기 위해서 올 출가절에는 스님들이 '왜 출가했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다.

2월15일 헌정사 50년만에 국민의 뜻으로 첫 정권교체를 실현한 새 정부가 탄생했다. 지금까지 국회의원 불자모임은 실질적으로 여당이 주도하여 왔다. 따라서 국민회의 불자의원 모임인 연등회에 거는 기대와 역할이 어느때 보다 크다. 새 정부 출범을 계기로 연등회 박상규회장(국민회의 부총재)을 만났다.



수요 인터뷰 국민회의 연등회 박상규 회장

"불교관계법 개정 힘쏟을 터"

국난극복 법회 적극지원 사찰환경보존에 역점

- 해방이후 최악의 경제위기에 처해, 무엇보다 연등회의 활동계획에 관심이 큽니다.

▲우리 연등회는 국난극복과 국민화합을 위해 1천만 불교도와 함께 보살도를 실천하는 것을 기본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주요사업계획으로 각 지방 유명사찰에서 정기법회를 봉행하여 대덕큰스님들의 호국을 위한 법문을 받들겠습니다. 불교종단협의회에서 주최하는 국난극복법회도 후원할 계획입니다. 창립이후 추진해온 불교관계법의 개폐작업과 사찰환경보존정책도 계속 충실히 수행할 것입니다.

- 우리는 21세기로의 변화와 경제위기 극복의 두가지 요구를 충족해야 하는 시대적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불교계의 바람직한 역할은 무엇이라고 보시는지.

▲불교계에서는 현재 경제위기극복을 위해서 여러가지 모범적인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건전하고 올바른 불교정책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새 정부 정책수행에 정책적인 파트너쉽을 형성하는 것도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 종교갈등이 심각한 사회문제화 되어있습니다. 종교간의 형평성을 강력히 유지해 화합과 화해의 시대를 기대하게 되는데요.

▲자기 종교가 소중한 만큼 다른 종교에 대해서도 존경심을 가지고 행동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각종교는 건전한 교단을 유지하기 위해 스스로를 개혁하는 것이 요구되며, 종교집단이 건전한 문화를 사회에 제시할때 그 종교는 사회에서 큰 힘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 회장님께서는 중소기업협의회 회장직을 맡으시는등 활발한 경제분야 활동도 펴오셨는데 불자실업인 조직의 활성화에 대한 견해가 궁금합니다.

▲같은 업종에 있는 불자 실업인들이 함께 모여 신행생활을 하고 대화를 많이 하는 것은 불교계와 개인들의 발전을 위해서 매우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기회가 된다면 저도 불자실업인의 자격으로 참여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 올해는 조계종 총무원장 선거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선거때마다 정치권의 직·간접적 유착에 대해 우려하는 일부 시각도 있었습니다.

▲연등회에서는 불교계의 내부문제에 개입하지 않고 중립을 지키는 자세를 견지할 것입니다. 불교가 정치에 의해 왜곡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위영란 기자

"공원 보존위해 국민생태교육"

조계종 사찰환경포럼

국립공원의 조화로운 보존과 개발을 위해 경관생태학을 활용하고 일반인들을 위한 생태교육프로그램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조계종 사찰환경보존위원회가 24일 대구 진각회관7층에서 개최한 제2회 사찰환경 포럼에서 발제자로 나선 이도원 교수(서울대 환경대학원)는 "경관생태학은 경관구획안에서 생태계의 공간적 크기·배열의 규칙성등의 구조적 내용과 공간적 형상이 자아내는 상호작용·유동변화등의 기능적 측면, 나아가 구조와 기능의 관계를 규명한다"면서 "지방자치의 활성화로 인한 개발과 전통가람의 보존간의 갈등도 경관생태학적 관점에서 해석할수 있다"고 말했다.

토론자로 나선 이하석 논설위원(영남일보)은 "국립공원관리공단을 국립공원관리청과 같은 집행적 행정기구로 승격하고 관리자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할것"을 주장해 눈길을 끌었다.

문창식 사무국장(대구 환경련)은 자연생태계의 마지막 보루인 국립공원을 지키기 위해서는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보존운동전개 △개발세력에 대응할 수 있는 조직체계의 상설화 △권역별로 토론회 세미나 생태문화기행등의 보존운동 사업전개등을 실시할 것을 제안했다. 〈이윤호 기자〉

부처님오신날 설법자료 및 법보시 책자 보급안내

연등공양 이야기

부처님의 전생, 탄생이야기, 부처님께서 세상에 오신 뜻, 인등의 유래와 공덕, 등불공양에 얽힌 이야기 등을 신도님들께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요약해서 수록하였으므로 초파일 법회때에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본 책자를 신도님 가정에 미리 보냄으로써 인등권선을 할 수 있으며 초파일 절에 오시는 신도님께 좋은 법보시가 될 것입니다.

◈ 수 록 내 용 ◈

- 봉축 발원문과 봉축 법어
  부처님오신날 봉축 발원문/부처님오신날 봉축 법어/부처님오신날 봉축 법회 식순
- 부처님의 탄생
  부처님의 전생이야기/부처님의 탄생이야기/부처님께서 세상에 오신 뜻
- 등을 밝히며
  등을 밝히게 된 유래/등의 종류/등을 밝히는 행사들
- 관불의식
  관불의식의 유래와 공덕
- 등공양의 공덕
  등불공양에 얽힌 이야기들



▲ 표지에 사찰명을 넣어드립니다

◆ 200권 이상 주문시 책표지에 사찰명을 넣어 드리고, 법회안내, 법보시자 명단을 추가로 인쇄하여 드립니다.
◆ 법보시 특가/1,500원
◆ 크기/신국판, 64페이지

※ 농협 온라인번호
053-01-127096
(예금주 : 선 문 빈)

부처님의 생애
신국판 72페이지, 법보시 특가:1,500원

스님이 들려주신 부처님오신날 이야기
신국판 80페이지, 법보시 특가:1,500원

감로출판사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13번지(조계사 옆) ☎(02)723-4306~7, 팩스(02)738-8682

봉축위원회 공식지정 봉축현수막

2542 Buddha's Birthday
부처님오신날
대한불교조계종 봉은사



▲ 불자의집 교패



▲ 차량용 스티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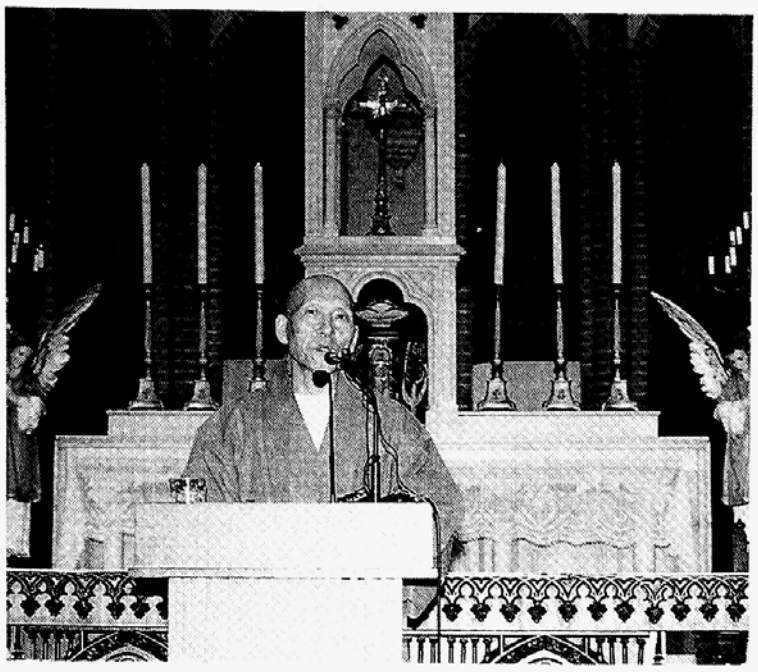
▲ 어 깨 띠 ▲ 리 본

귀의삼보하옵고,
불자는 물론 전국민의 시야가 집중된 이번 봉축행사에 각 사암에서는 봉축위원회 지정 현수막을 사용하여서 불교계의 일치단결된 모습을 보여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부처님오신날 봉축위원회 공식 지정업체로 선정된 감로기획에서는
국민적 축제인 불기2542년 부처님오신날 봉축 현수막을
질기고 품질이 우수한 최고급 천으로
제작하여 보급하고 있습니다.
전국의 대덕 큰스님의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 가 격 표 ◈

품 명		규 격	가 격
현 수 막		90cm×6m	40,000원
		90cm×8m	50,000원
		90cm×10m	60,000원
불자의집 교패		200개이상 주문시 사찰명	1,000원
차량용 스티카			300원
어 깨 띠		100개이상 주문시 사찰명	2,500원
리 본	일 반	500개이상 주문시 사찰명	220원
	고 급		330원
	귀빈용		1,000원

감로기획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13번지(조계사 옆)
☎(02)723-4306·7 FAX:(02)738-8682



법정스님 명동성당서 '무소유' 설법

Focus

"인연에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서게 해준 천주님의 뜻에도 감사드립니다" 아름다운 글과 설법으로 중생들을 진리의 세계로 이끌어 주신 법정스님(맑고향기롭게 회주). 24일 오후 7시30분, 올해로 축성 100년을 맞은 천주교의 성지 명동성당 특별강연회에서 스님은 이렇게 법문을 시작했다.

스님은 '나라와 겨레를 위한 종교인의 자세'라는 주제의 강연을 통해 "오늘의 IMF시련은 우리들에게 맑은 가난의 정신을 되새기게 한다. 따뜻한 가슴을 지니고, 만족하면서, 단순하고 간소한 청빈의 덕을 쌓아가자"고 제시했다.

"청빈의 삶은 일시적인 생활방편이 아니라 우리모두가 두고두고 배우고 익혀야 할 항구적이고 지속적인 생활규범이며, 함께 사는 세상을 엮어가는 힘이다"라면서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세상의 일부분인 나자신부터 달라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모든 것을 초월한 진리세계의 따뜻함을 온몸으로 느낀 듯 성당을 꽉메운 천주교도와 불자, 스님 등 2천여명의 얼굴은 미소로 빛났다.

이은자 기자

"제2 불교개혁은 승·재가 종속관계 탈피"

전불련 상임의장 지원스님



안산 보련사 주지 지원스님이 2월24일 열린 전국불교운동연합 제6차 대의원정기총회에서 상임의장에 만장일치로 추대됐다.

스님은 "전불련은 그동안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궤도를 잃지 않고 제 모습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해 왔다"며 "새로운 시대에 맞는 성숙된 불교운동의 가치를 창출해 내는 개혁의 주체로서 자리매김하는데 미력하나마 보탬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로 소감을 대신했다.

스님은 "제2의 불교 개혁을 이루기 위해서는 승·재가 관계에 대한 인식전환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전제하고 "종속관계로서가 아닌 불교계 양대 산맥으로서 재가를 이해하고 인정, 승·재가가 상호보완적으로 불교발전을 위해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종도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그들의 목소리를 진솔하게 담아내고 이익을 대변하는데도 게을리 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지원스님은 73년 청화스님을 은사로 곡성 태안사에서 득도했으며, 정토구현전국승가회 상임지도위원, 실천불교전국승가회 지도위원, 조계종 개혁회의 의원 및 상임위원, 전불련 지도위원, 불교방송 정상화를 위한 범불교대책위원회 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도필선 기자

교차로

범음대학 졸업식 봉행



송암 태고종 영산재보존회 부설 범음대학장 스님은 2월 25일 봉원사 설법전에서 97년도 졸업 및 수료식 봉행했다.

초중고생 17명에 장학금



현해 월정사 주지는 2월19일 남선재(진부고)군 등 강원도 평창군 진부면 거주 초·중·고등학교 졸업생 17명에게 장학금 2백만원을 전달했다.

불교지도자 지원금 전달



원택 백련불교문화재단 이사장 스님은 2월 27일 서울 동작구 정안정사에서 김일권(서울대 종교학과 박사과정)씨 등 5명에게 97년도 불교지도자 양성 지원금을 전달했다.

용성스님의 달 행사 브리핑



보광 '백용성의 달 기념행사 위원회' 집행위원장 스님은 2월 26일 조계종 총무원장 월주스님을 예방. 기념사업 및 행사를 브리핑. 이날 월주스님들은 기념위원회에 1천만원의 후원금을 전달했다.

나라와 구민위한 법회

자우 도봉구 사암연합회장 스님은 3일 오후 7시30분 도봉구민회관에서 나라와 구민을 위한 기원대법회를 구청과 함께 봉행한다. (02)993-3744



어린이 설법연구서 출판



혜총 부산감로사 주지(어린이불교교육연구소장)는 1일 감로사에서 어린이 법회를 위한 설법·교리 연구서 2집 출판기념법회를 가졌다.

부도기업 자녀 무료교육



정각 목포보현유치원장(보현정사 주지) 스님은 최근 부도를 당한 관내 최대 기업 한라건설 직원 자녀 27명를 무료로 교육시키기로 했다.

불교교양대학 개강



원타 부산 선암사 주지는 11일 제2기 불교교양대학을 개강하고 기초교리반, 참선, 사경, 사찰탐방 등의 강좌를 개설한다.(051)803-7522

영산작법 전수보조자



승강 〈사진〉·기봉 스님은 2월 25일 문화체육부 문화재관리국이 선정하는 중요무형문화재 50호 영산작법 전수교육보조자로 지정을 받았다. 전수교육보조자는 송암스님의 지도를 받는다.

지장불교포교원 개원

경산 본사 포항지국장 스님은 14일 토요일 오전11시 조계종 교육원장 암도스님을 초빙한 가운데 지장불교포교원을 개원한다.

동국대 동우회 장학금 전달



황명수 동국대 총동창회장은 2월 16일 조문기(경제 3)군 등 동국대 재학생 20명에게 각각 1백만원씩 모두 2천만원의 동우회 장학금을 전달했다.

대통령 취임식 국악연주



박범훈 국립국악관현악단장은 2월25일 대통령 취임식에서 1백여명으로 편성된 국악관현악단의 지휘를 맡아 자작곡 '개천'을 연주했다. '개천'은 팔도의 화합을 상징하는 곡.

茶 관련 시집 펴내



김기원 진주산업대 박물관장(한국차학회장)은 최근 차(茶)관련 자작 시를 모아 〈막사발로 녹차 마시는 벗들〉(청학 刊)을 펴냈다.

문체부 감사패 받아



이정 경향신문 뉴미디어센터 차장은 경향신문사와 문화체육부가 공동으로 추진해 온 '문화정보화운동' 실무를 담당한 공로로 문체부 감사패를 받았다.

'우도' 등 창작 발표회

윤소희(동국대 강사)씨는 11일 오후7시30분 부산 문화회관 소강당에서 창작곡 I △범패와 사물놀이에 의한 엔트로피 △대금과 피아노를 위한 '일여(一如)'등을 발표하는 창작곡 발표회를 갖는다.



'자비의 전화' 성금 답지

월주스님 1천만원 종단협 500만원 지원

교계최초의 전화상담기관인 자비의전화(회장 정덕스님)가 심각한 재정난으로 불통(不通) 위기에 놓였다는 본지의 보도(163호, 2월 18일자) 이후 후원금이 답지하고 있다.

조계종총무원장 월주스님은 2월 26일 자비의전화에 후원금 1천만원 전달했다.

월주스님은 이날 정덕스님등 자비전화 관계자들에게 중생의 아픔을 치유하는 자비의 화신이 되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앞서 종단협의회는 21일 열린 정기이사회에서 자비의전화를 범종단적으로 후원키로 하고 상담원교육비 등으로 매년 5백만원을 지원키로 했다.

범각스님 중앙종회의원 보궐선거 당선



범각 도갑사 주지는 2월24일 해남 대둔사에서 열린 조계종 중앙종회의원 보궐선거에서 무투표 당선됐다.

스님은 보선스님의 의원직 사퇴로 공석인 대둔사 종회의원에 단독 출마했었다.

스님은 79년 향림사에서 천운스님을 은사로 득도 법주사 승가대와 중앙승가대를 졸업했다. 목포 달성사 주지, 총무원 사회국장, 대둔사 총무국장 등을 역임했다.

우리민족돕기 불교운동본부 모금현황

△장준분 50,000원 △신창철 10,000원 △김미애 300,000원 △장미연 10,000원 △이제권 50,000원 △이옥근 250,000원 △정목 30,000원 △이금녀 10,000원 △김희수 20,000원 △인법스님 150,000원 외 33명 △한 주 한끼굶기 1,025,000원

●나진 선봉시 북녘 어린이 결연 △정토포교원 승민회 1,440,600원 △정토포교원 아니룻다회 일요팀 75,000원 △한문화운동 330,600원 △도서출판 학고재 35,000원 △이상환 1,000,000원 △서희영 8,060원 △이한영 5,000원 △박종완 30,000원 외 75명 〈2월25일 현재 총 931,143,812원〉

·후원금 접수 (02)3672-5373

·국민은행 818-21-0197-670

예금주: 최석호(우리민족 불교운동)

"염불로 불안한 마음 달랬어요"

나가노 오륜 금메달 2관왕 전이경선수



자랑스런 쿨자선수 전이경(22·연세대 3학년)이 '98나가노 동계올림픽'에서 금 2개, 동 1개를 획득하며 쾌거를 이룩했다.

이런 영광은 혹독한 훈련외에도 불심으로 무장된 전선수의 신앙생활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평소 불심정사(서울 ㅈ양동)를 찾아가 기도한다는 전선수는 "시합전에는 항상 '옴마니반메훔'과 '광명진언'을 외운다"며 "독경은 심리적 부담감을 떨치고 차분한 마음으로 경기에 임할 수 있게 해주는 보이지 않는 힘" 이라고 승리의 비결을 공개했다.

천주교 신자인 어머니 최복자씨(47)도 종교는 다르지만 시합이 있는 날이면 사찰에가서 초와 향을 공양하고 승리를 축원하는 기도를 올려왔다. 전선수가 매일 한차례씩 전화를 걸어 안부를 물을 정도로 믿고 의지하는 불심정사 목화보살은 "이경이는 손에 항상 단주를 끼고 다니며 기도할 정도로 불심이 깊다"고 함께 기뻐했다.

김주일 기자

불교계대학 수석 졸업자

학교명	수석
동국대학교	신은지
중앙승가대학	담연스님
동산불교대학	김성국
조계사불교대	이길자
대구불교대학	오상수
부산불교교육대학	정지연
광주불교문화대학	윤명수
삼화불교대학	심후남·강경봉
법사원불교대학	이건국
동방불교대	홍영애
금강불교대	엄연준·하미지·박훈양

무진장스님과 평생경전공부 회원모집

1. 개설 취지

본회에서는 상구보리 하화중생의 전법이념으로 무진장스님을 법주로 모시고 창립하여 15주년을 맞았습니다.
근세 한국불교포교에 앞장섰던 무진장큰스님에게 직접 대승불교 경전을 공부할 평생회원을 모집하여 그뜻을 기리고 수행공부코저 합니다.

2. 공부과목

금강경, 육조단경, 발심수행장, 선가귀감, 유마경, 반야심경, 원각경, 대승기신론, 천태학(천태사교의, 법화현의, 법화문구)법화경(방편품, 여래수량품), 화엄경(십지품, 입법계품)

3. 제출서류 및 공부방법

제출서류	법회일시·장소	입지수계
·입회원서 1통 ·반명함판 사진 3매	매주 일요일 오후 6시~8시 **동산법당**(안국동)	매과목 공부후 정기적으로 무진장큰스님으로부터 입지수계

4. 개 강 일 시 1998년 4월 5일(일) 오후 6시

5. 문의및 접수 동산반야회 사무국(**전화: 732-1206~8, FAX: 732-1207**)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3번지

6. 입 회 금 오만원(매월회비 삼만원)

※ 평생 경전 회원으로 가입하시면 평생가족으로 모시겠습니다.

무진장스님과 함께하는 평생 경전 공부반

대한불교 조계종 **동산반야회장** 김 재 일

'98 삼화불교대학 학생모집

■ 1. 모집학과 및 안내

학 과	수업연한	모집과정	지원자격 및 제출서류	특별전형30%
불교학과	2년 4년	■주간■야간■통신 ■통신	·고등학교및 동등이상 학력자 ·최종학교 졸업증명서1통 ·본교 소정입학원서1통 ·주민등록등본 1통 ·반명함판 사진 1통	·조계종 승려·포교사(타종단 승려, 포교사도 가능) ·한민족 불교진흥회 스님, 단체추천자.
유아교육과(유아포교과)	2년	■주간■통신		
중국어과	2년	■주간		
불교미술(문화재)과	2년	■주간		
동양화(禪畵)과	2년	■주간		
신문방송과(불교보도과)	2년	■주간■통신		

■ 2. 학교연혁

1989 7.3 학교설립공고
90.3 불교방송대학 불교학부 유아교육학부4년제 개교
90.4 삼화불교대학으로 개명
90.8 본교학생37명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사자격증 취득
91.3 전문부 주간 야간2년제 개설
91.8 본교학생48명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사자격 취득
91.8 교육부인정 고등학교 인수
92.2 제1회 졸업생 배출
92.7 국가인정 보육교사 119명 자격취득
93.3 불교미술과 불교보도(신문방송)과 개설
93.8 본교학생42명 조계종 포교사자격 취득
94.2 국가인정2급 보육교사자격 32명 취득
95.2 국가인정2급 보육교사자격 49명 취득
95.3 전문부 중국어과 개설
95.8 중국 남경 중의약대학과 본교체결
95.11 본교학생41명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사자격 취득
96.2 국가인정2급 보육교사자격 40명취득
96.11 본교학생36명 조계종 포교사자격 취득
97.2 국가인정2급 보육교사자격 20명취득
98.2 제 7회 졸업생 배출예정
98.2 국가인정2급 보육교사자격 21명 취득예정(위탁교육 수료후)
98.2 동양화(선화)과, 동양 풍수과 개설

■ 3. 특 전

·성적 우수자 각종 장학금 지급
·법사자격증, 불교유아포교사2급 자격증 수여
·조계종 포교사 자격취득(자격고시를 거쳐)
·문화재수리 기술사 자격취득(자격고시를 거쳐)
·동국대학교 대학원 과정 입학가능

■ 4. 원서교부및접수기간

·원서교부및접수기간 **1998년 3월25일**까지 (일요일도 접수가능)
·전형방법 서류전형, 면접(우편당일 소인 유효)

■ 5. 원서교부및문의처

·본교 교학과 : **TEL. 511-2026~8 FAX. 511-1080**
※ 1998년 3월 7일 입학식 (동국대문화관)후 정상수업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교학과로 문의바람(**511-2026~8**)
◑ **인터넷홈페이지:WWW.Buddhapia.Co.Kr**

135-120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511-5

대한불교 조계종 **삼 화 불 교 대 학**



◇수협불자회가 주관하여 매년 개최하고 있는 풍어제(豊魚濟) 장면.

농·수협 불자회 '신토불이' 운동

직거래장터 개설 농수산물 판매…교계 호응

'IMF시대 우리농산물을 애용합시다.'

농협중앙회불자회(회장 안장건, 카드사업부장)와 수협중앙회 불자회(회장 안정황, 가락공판장장)가 농·수산업 불자들을 위해 우리 농산물 애용운동을 펼치고 있다. 농·수협불자회는 직거래 장터를 개설하고 사찰과 불자들의 행사물품 접수를 받는다(농협 (02)397-7172, 수협 (02)407-4463).

농·수협불자회가 우리농산물 애용운동을 전개하자 조계·태고 종등 각종단 총무원과 본·말사에서도 이운동에 동참하여 불단에 우리농산물을 올리고 있어 좋은 성과가 기대되고 있다.

신토불이 불심의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농·수협불자회는 IMF시대에 농·수산물 가격이 물가에 영향을 크게 미치는 만큼 불자들이 우리농산물을 애용하고, 근검 절약운동이 불자가정에 서부터 뿌리내리기를 바라고 있다.

농·수협 불자회의 이같은 움직임은 부처님의 가르침인 '身土不二(신토불이)'라는 생활속의 믿음을 실천하려는 것이어서 의미가 크다.

농협중앙회 불자회는 94년 2월 26일 창립해 올해로 5주년을 맞았다. 창립기념법회는 3월초 조계사에서 가질 예정이다. 현재 1백20여명의 회원이 활동중인 농협불자회는 매달 1회 정기법회와 수련대회를 갖고 있다.

수협중앙회 불자회는 92년 창립하여 2백여명의 회원이 활동중이다. 매달 셋째 화요일 불광사에서 법회를 갖고 있는 수협불자회는 지난 10일 법회에서 무사고와 만선을 기원하는 풍어제(豊魚濟)를 올렸다.

수협불자회는 또 토·일요일 혜명보육원등 복지시설을 찾아 자원봉사활동을 하고 있으며 원아들에게 책보시운동을 전개하는 것은 물론 가락시장불자회가 지원하는 수산물을 불교복지단체에 전달하는 운동도 펼치고 있다.

한편 농협불자회는 1백여명의 회원이 가입한 농협 충북지부불자회를 필두로 올해부터 각 지부 불자회 설립을 추진중이며, 수협불자회는 12개 단위조합에 불자회가 구성돼 있는 만큼 조직의 연대와 강화를 위해 전국연합모임 결성을 준비중이다.

김원우 기자

"동체대비 보살행 널리 펼래요"

불교사회복지시설종사자 연수회

1080배·1자1배 사경 '심신정화' 직능별모임 결성 정보교류도

'보살의 한마음으로 복지사업을 펼치자.' 자리이타(自利利他)를 실천하는 불교복지시설 종사자들이 불심으로 한데 뭉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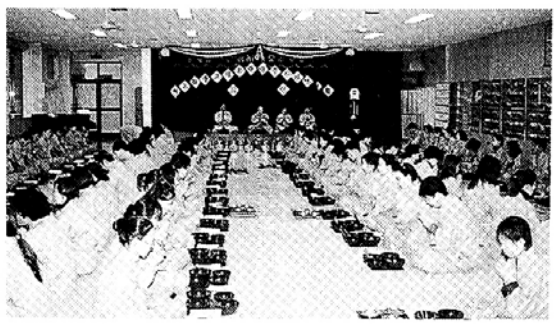
조계종 불교사회복지재단(이사장 월주)이 2월 20~21일 화성 신흥사(주지 성일)에서 개최한 제2회 불교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연수회는 참석자들의 용맹정진으로 뜨거웠다. 복지관·청소년독서실 관장, 어린이집 원장 및 교사, 사회복지사 등 1백여 시설 종사자들은 1080배 정진, 1배1자 사경(반야심경), 조석예불, 발우공양 등의 수행 프로그램을 통해 심신을 정화하고 보살행의 실천에 더욱 정진할 것을 발원했다.

특히 이번 연수회에서는 처음으로 직능별 모임을 결성, 상호정보교류와 불교프로그램 개발 등에 나서기로 해 불교복지사업의 조직화에 새로운 전기가 될 전망이다. 어린이집원장 모임은 유정혜 원장(낙산어린이집)을 회장에 선출하고 3월부터 매달 셋째주 화요일 복지재단 사무실에서 정기모임을 갖기로 했으며, 독서실 관계자모임도 3월중에 첫 회의를 열기로 했다. 사회복지관 종사자와 어린이집 교사들도 각각 실무간사를 선출, 조만간 모임을 구성키로 의견을 모았다.

직능별 모임들은 앞으로 두 달에 한번 정도 모임을 갖고 사회복지전문가를 초빙, 강의를 듣는 등 직무능력 향상에도 노력하면서 모임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이번 연수회는 당초 복지재단이 불교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신심을 고취하기 위해 마련되어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참석자의 절반에 달하는 불교 입문자들은 교육원장 암도스님의 '불교복지 종사자들의 자세'와 김태영법사의 '불교기초교리' 강의를 통해 불교를 이해하고 이를 현장에서 적용하는 방안을 고민했다.

참석자들은 조별 간담회를 통해 △수행 프로그램과 복지전문교육의 이원화 △불교복지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 △우수불교 프로그램 공모 및 시상제도의 정착 △사회복지 정보 및 자료 제공 등을 건의했다.



◇불교사회복지 종사자들은 신흥사에서 발우공양을 하며 근검절약에 힘쓸 것을 발원했다.

화성=김재경 기자

PC동호회 '함께사는 세상' 만들기

보은회 소년가장 후원 — **칠연회** 소쩍새마을 위문

유니텔 전문직 봉사활동 — **부처님마을** 장애인목욕 수발

천리안 하이텔 나우누리 유니텔 등 4대통신 불교동호회들이 봉사활동에 열심이다.

천리안 불교동호회(회장 심준엽) 봉사모임 보은회는 1백여 회원들이 보내온 성금을 모아 지난 25일 진주 성양원에 후원금을 전달했다. 96년 창립한 보은회는 매월 1급지체 장애인과 소년소녀가장들에게 통신비와 생활비를 지원하고 있다. 금은수 보은회장은 "앞으로 군법당에 법보시운동과 복지시설 자원봉사활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칠연회는 총회원 6백여명을 보유하고 있는 하이텔 불교동호회(회장 김주서)의 2대 모임중 하나. 매년 소쩍새마을을 정기적으로 방문하는 것을 비롯하여 일반회원과 장애회원이 함께 생활하는 수련대회를 갖고 있다. 특히 장애법우들의 법회참여 희망시 일반회원들이 승용차를 이용하여 이동봉사하고 통신비를 대납해주고 있다.

유니텔 불교동호회(회장 김희정)는 22일 40여명의 회원이 참여하여 경기도 시흥시 송암동산에서 봉사활동을 했다. 40여명의 회원이 참가한 이날 봉사활동에는 컴퓨터 프로그래머, 건축사등 전문직 종사 회원들이 요리와 가구, 컴퓨터수리 및 교육봉사를 폈다.

나우누리 부처님마을(회장 박춘동)도 22일 20여명의 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 수락산 시립요양원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펼쳤다. 나우누리 서울지역모임은 이날 다훈증후군등을 앓고 있는 60여명의 장애인들에게 목욕과 야외산책 봉사를 했다. 〈원〉

우리 모임에선

보건환경연 불자회 창립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 불심회(회장 신재영. 수질부장)는 23일 42명의 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총회를 갖고 공식발족했다. 불심회는 서울시산하 보건 환경연구원 50명이 회원으로 가입했으며 매월 음력 24일 관음재일 법회를 연구원 세미나실에서 개최한다. 이에앞서 보건환경연구원불자들은 16일 능인선원에서 지광스님을 법사로 창립법회를 가졌다.

세무사불자회 정기법회

세무사불자회(회장 송호승)는 13일 서울 서초동 마하연포교당에서 서윤길교수 초청 정기법회를 개최한다. 이날 법회에서 서윤길교수(동국대 불교학과)는 '불교란 무엇인가'를 주제로 강의한다. (02)585-3577

예비역법사단 전체모임

예비역군법사단(단장 성광스님)은 19일 정동 도화림에서 회의를 갖고 4월경에 전체모임을 갖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 예비역군법사단은 군불교 포교를 위해 진법활동 강화 방안을 마련키로 하고 4월 전체모임에서 실천사항을 구체화하기로 했다.

하불동 명등계 명상차회

하이텔불교동호회 명등계는 21일 60여명의 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수원포교당 문화회관 청한산방에서 신년명상차회를 가졌다. 차를 나눠마시며 마음을 맑힌 이날 명상차회는 범현스님(완주 귀신사)의 법문, 대화, 철야정진 순으로 진행됐다.

광동학원 신임교사 연수

광동학원(이사장 일면스님)은 2월 23일·24일 양일간 불암사에서 신임교사 연수회를 가졌다. 이번 광동종고 광동여고 광동중학교에 신규임용된 17명의 교사들이 참석한 연수회는 불교의 올바른 이해와 종립학교 교사로서의 불교적 소양을 익히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다. 〈사진〉



연수회는 불교학 불교문화 참선실수 등의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명성여중 교사 심성연수

명성여자중학교(교장 안은자)는 2월18일·19일 양일간 전 교사진이 참석한 가운데 교사 심성 수련연수를 실시했다. 이번 연수는 부처님의 자비정신을 바탕으로 한 학생들의 인성 교육 능력을 향상시킬 목적으로 마련됐다. 심성수련 전문 강사인 김영의씨(前 무학여중 교장)가 만남의 장, 스트레스 해소법, 대화기법 강의와 학교 부적응 학생 지도 방법을 집중적으로 교육했다.

'한라불교' 불기협 가입

한국불교기자협회(회장 하춘생)는 23일 종단협 회의실에서 제23회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98년 사업계획과 예산 4천5백60여만원을 확정했다. 또 '불교와 문화'와 '한라불교신문'을 신규가입 회원사로 승인했다.



실상사 화엄학림 2기 졸업식

실상사 화엄학림(학장 연관스님)은 2월 23일 제2기 졸업식을 가졌다. 이날 졸업식에서는 하림스님, 법신스님, 지정스님, 지장스님, 현석스님 등 5명의 졸업생이 배출됐다. 또 청강생 월공스님도 자리를 함께했다.

연관스님은 축사를 통해 "오늘로써 화엄학림에서의 공부는 끝이 났지만 항상 정진하는 자세를 늦추지 않는 증도가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심우회 12사단서 수계 및 범종낙성

22일 강원도 12사단 신병교육대 법당(군법사 김용)에서 심우회(회장 김명원) 회원 80여명과 훈련장병 3백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수계식및 범종낙성식이 거행됐다. 수계법사 법륜스님(심우회 지도법사)은 장병들에게 "오계를 지키고 항상 관세음보살 계송을 염송하며 건강하게 군생활에 임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심우회원 이지성심보살(73세)이 장병들의 무사고를 기원하며 보시한 범종낙성식을 가졌다.



동산불교대학 LA분교 입학식

동산불교대학(학장 무진장스님) LA분교 입학식이 2월 15일 미국 로스엔젤레스 관음사에서 열렸다.

이날 입학식에는 총 57명의 신입생과 김재일이사장(동산불교대), 도안스님(LA 관음사 주지), 김구총장(Western States대학) 등이 참석했다.

도안스님은 축사를 통해 "부처님의 가르침을 올곧게 배우고, 일심으로 정진수행하는 선근인연을 맺으라"고 말했다.



원각사 학생회 청소년 어울한마당

선산 원각사(주지 대혜) 불교학생회는 22일 경북 선산문화회관에서 제1회 8교구 청소년 불교 어울한마당 축제를 가졌다.

'맑은 세상을 청소년에게'란 주제로 개최된 이날 행사는 1부 법회, 2부 축제한마당으로 진행됐으며 승무, 수화로 노래부르기, 율동 등의 공연이 펼쳐졌다. 이날 행사에는 김천 구미 상주 등에서 2백여명의 청소년 불자들이 동참했다.

출·간·즉·시·화·제·목·발

IMF 시대

삶에 희망과 용기를 불러 일으킨 생활지침서

내용이 쉬운 가운데에서도 부처님의 심오한 진리를 남김없이 표현하고 있으니, 이글을 읽은 사람이라면 한 번 쯤은 금강경을 수지 독송하고 싶은 마음이 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 정보성 태고종 종정스님, 전 동국대 총장 -

80을 넘어섰지만, 기력이 왕성하신 것이 바로 금강경 공부때문이 아닐까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 이홍녕 세계 평화교수 협의회 고문, 전 홍익대 총장 -

기독교의 환경속에서 일생을 살아왔기에 불경이해에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번에 이 책을 읽고 불교에 대한 전반적인 모습을 머리속에 완연히 그릴 수 있었습니다.
- 윤세원 선문대 총장 -

금강경 독송을 통해 툭 터지는(깨치는) 그런 길이 분명히 있다는 확신을 가지게 해 줍니다.
- 김지견, 대한전통불교연구원장 -

'성자와 범부가 함께 읽는' 제목을 통해서 윤교수님이 참으로 금강경의 깊은 뜻을 터득하고 계신다고 느꼈습니다.
- 이영자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장 -

독서대상을 청소년 눈높이에 맞춰 놓았다는 것이 이 책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할머니, 할아버지의 옛날 이야기처럼 아주 구수하게 서술되어 있습니다.
- 서울 신문사 관리부장 박상희 -



성자와 범부가 함께 읽는 금강경

윤을순 엮음

전 동국대 교수

신우당 펴냄

신국판/340쪽



♤ 화제의 신간 ♤

초판 1개월만에 재판돌입!!

▶ 82세 고령의 나이로 하루에 3시간만 자는 자시가행정진기도 및 철야기도등 참 신행을 실천하는 분이 집필한 책이기에 더욱 감동적이다. - '98년 2월호 불광 -

▶ 마음을 밝혀주는 주옥같은 108가지 이야기로 금강경을 알기 쉽고 재미있게 풀이하였다. - '98년 2월 5일자 스포츠서울 -

▶ 지금까지 여러종류의 금강경해설서가 나왔지만 이 책처럼 경전내용이 쉽게 머리에 쏙쏙 들어오는 해설서도 아마 없을 것이다. - '98년 1월 24일 BBS불교방송 '무명을 밝히고' -

◐ 이 책의 활용: 사찰법회와 각종 불교단체 및 청소년 포교단체 교육용교재 산업체연수원 및 능력개발원 연수교재, 각 대학 교양교재 및 법보시용

※ 책방 「여시아문」, 「능인선원 서점」을 비롯한 시중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독후감 원고 모집

책한권으로 전가족이 참여하여 알찬 선물을!

⊙ 대 상 : 초중등부, 대학부, 일반부
⊙ 서 적 : 〈성자와 범부가 함께 읽는 금강경〉
⊙ 상 품 : 전체 대상 (1명) - 15만원 문화 상품권
각 부별 장원 (각 1명씩) - 7만원 문화 상품권
각 부별 우수상 (각 2명씩) - '불교와 문화' 1년 구독권
각 부별 장려상 (각 3명씩) - 도서상품권 4매
※ 입상자 전원에게 추천 불서 1권씩을 드립니다.
⊙ 기 간 : 1998년 4월 15일까지
⊙ 발 표 : 1998년 5월 3일 부처님 오신날 전후
⊙ 분 량 : A4용지 1~2매 정도(200자 원고지 10매 내외)
⊙ 보낼곳 : 412-030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원당동 889(응화정사))
('독후감 응모'라고 명기. 주소 및 연락처 기재 바람)
FAX 접수 : 02-324-3866
INTERNET 접수 : www. interpia. net/~ommani/diamond.html
기타문의 : ☎02-337-1636, INTERNET주소로 HOME PAGE 참조
♣주 관 : 바른법연구원, 한국불교신문사
♣후 원 : 태고종 총무원, 현대불교신문사, 재단법인 대한불교진흥원
♣협 찬 : 책방 여시아문, 도서출판 신우당
※ 선별된 우수작은 각 신문과 잡지에 실리게 됩니다.

♣ 초등학생도 읽을 수 있는 쉽고 재미나는 금강경 ♣

바른법연구원 내용 및 단체구입 문의 ☎ 02-337-1636

법회안내



천운스님(대둔사 주지) 매월 음력 1일 오전 10시 초하루 법회, 매월 음력 8일 오전 10시 약사재일 법회, 매월 음력 15일 오전 10시 보름법회, 매월 음력 18일 오전 10시 지장재일 법회, 매월 음력 24일 오전 10시 관음재일 법회. (062)375-7600



도일스님(직지사 수성포교원 주지)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30분 정기법회 〈화엄경〉강의,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30분 불교대학 강의, 매월 음력 1일 오전 10시30분 초하루법회, 매월 음력 18일 오전 10시30분 지장재일법회.



영도스님(심원사 주지) 1일부터 49일간 매주 토요일~일요일 철야 조상천도 기도법회. 매월 음력 18일 오전 10시 지장재일 법회. (0353)55-346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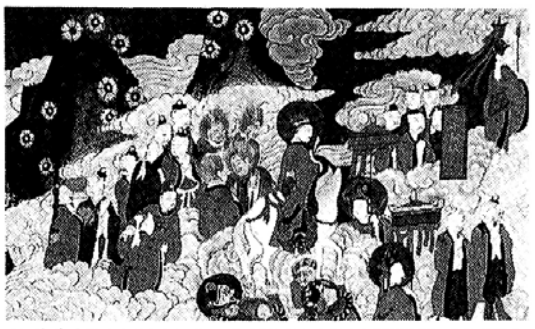
인경스님(천불암 주지) 매월 음력 초하루법회, 매월 음력 관음재일법회, 매월 음력 지장재일법회. 매주 일요일 오전 10시30분 가족화합법회, 매월 음력 5일 큰스님초청법회. (0417)557-3223



재연스님(무량선원 주지) 8일 오전 10시 부처님 점안법회, 매월 음력 초하루법회, 매월 음력 보름법회, 매주 일요일 오전 10시 가족법회 기초교리강좌. (062)971-8626

■ 법회안내를 원하는 사찰·단체는 법사 사진과 함께 보내주시면 성실히 게재하겠습니다.

전화(02)722-4162
팩스(02)737-0698



◇사랑하는 처자와 왕위를 버리고 성을 떠나 출가하는 석가모니.



◇시라쌍수 아래에서 열반에 드신 부처님.

6일 출가절
13일 열반절

불자 경건주간

출가학교·발우공양 · 성지순례 · 철야정진 등 마련

따사로운 햇살과 가벼워진 사람들의 옷차림, 이렇듯 움트는 봄기운속에 부처님 출가절과 열반절이 돌아왔다. 출가절인 6일부터 열반절인 13일까지는 불자경건주간. 부처님 출가·열반의 의미를 되새기는 특별법회, 강좌 등이 풍성하게 준비돼 동참을 기다린다.

봉은사(주지 무상)는 6일~13일까지 '출가에서 열반까지 8일 기도 및 108참회법회'를 매일 오전 10시에 봉행한다. 매일 낮 12시에는 '발우공양체험'도 신청자에 한해 실시한다. 또 저녁 7시~9시에는 '특별좌선법회'를 열어 직장인들도 동참할 수 있다. (02)545-1448

부산 반야사(주지 성모)는 '제3회 열반경 산림법회'를 1일부터 7일까지 일주일간 계속한다. 종범스님, 지안스님, 한파스님 등이 매일 오전 10시~12시 강의한다. (051)646-6237

통도사부산포교원(원장 심산)은 6일부터 13일까지 오후 7시 '자비도량 참법기도'를 봉행한다. 이번 기도법회는 명예퇴직, 해고 등으로 마음이 위축된 거사들에게 위안을 주기위해 마련됐다. (051)816-2241

강남포교원(주지 성열)은 6일~13일 '경건주간 참선교육'을 실시한다. 매일 오전 10시30분~11시30분에까지 기도정진을 하고, 12시30분~3시30분까지는 참선의 기본자세와 참선 실수 등의 특별프로그램을 진행한다. (02)539-2631~4

경남 창원 관음정사(주지 해선)는 6일 오전 10시 '서옹 큰스님 초청출가재일 참사람 대법회'를 마련했다. 큰 스님의 감로법문을 통해 업기를 극복하고,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힘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0551)87-0930

조계사(주지 현근)는 6일~13일까지 '출가열반재일 법회'를 연다. 6일 현근스님, 7일 향적스님, 8일 무진장스님, 9일 암도스님, 10일 종범스님, 11일 일초스님, 12일 종범스님, 13일 현근스님등이 법문한다. (02)732-2115

구룡사(주지 정우)는 6일~13일까지 '발심정진기도법회'를 매일 아침 9시에 봉행한다. 108배와 〈금강경〉사경 등을 함께하며 부처님의 가르침을 되새길 계획. (02)575-7766

무진법장사(주지 법장)는 6일 새벽 6시 강원도 태백 정암사 적멸보궁으로 사찰순례 겸 기도법회를 떠난다. (02)932-2333

정토포교원(원장 유수)은 홍제법당과 서초 법당에서 6일~13일까지 불자들을 위한 '8일 출가수련'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매일 새벽 4시부터 밤10시까지 1천배 기도정진, 발우공양, 참선 등을 비롯 부처님일생·예불문 등에 대한 강의도 한다. 8일간 법당에서 상주하거나, 원하는 시간에 동참할 수 있다. (02)379-1650, 582-1080

육주사(주지 현엽)은 14~15일 '1박2일 출가학교'를 연다. (051)971-0042

출가 새 풍속도

가족이 입산 적극 권유
수행 뒷바라지도 앞장

최근 몇년사이 부모와 가족들을 비롯 주위의 축하 속에 출가를 단행하는 새로운 풍속도가 확산되고 있다.

출가에 대한 인식이 세속을 버린다는 의미에서 상구보리 하화중생을 위한 성스러운 불사로 탈바꿈하고 있는 것.

부산 B사찰의 OO스님의 경우 어릴 때부터 모친이 출가할 것을 권유했다. 동국대학교에서 불교학을 공부하게 할 정도로 스님의 출가를 적극 후원했다. 이유는 "자식을 출가사문이 되게 하는것이 세세생생 부처님과 함께하는 길이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결국 모친은 외아들을 출가시켰을 뿐만 아니라 모든 사제를 보시하고 어머니로서가 아니라 불제자로서 스님들의 뒷바라지를 하며 또다른 불자의 길을 걷고 있다.

또 행자교육원을 비롯 졸업식장에 스님들의 졸업을 축하하는 가족들도 눈에 띄게 늘고 있는 추세다. 지난 16일 동국대 졸업식장에는 출가한 아들의 졸업을 축하하기 위해 참석한 가족들이 눈길을 끌었다. 이날 은사스님과 가족들의 축하를 받은 한 사미스님은 "가족들이 적극적으로 도와줘 수행에 도움이 되고 있다"며 고마움을 표시하고 "출세간의 인과를 무분별하게 망각해서는 출가본의에 어긋난다"라고 가족들에게 당부했다. 이에대해 가족들도 "수행에 매진해 깨달음을 얻어 많은 중생을 교화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게 시 판

♣ 인사

옥수복지관 △기획실장 정웅정(전 대불청사무총장)

임제종총무원 △교무국장 혜각

♣ 알림

△참고서 바꿔쓰기=청담종합사회복지관(관장 이근배)은 3월말까지 초중고등학생 들이 사용하는, 참고서, 학습교재, 학용품 바꿔쓰기 행사를 마련했다. 복지관 사무실로 신청하면 된다. (02)806-1375~7

△한국사찰음식연구소 개원=사찰음식연구가 이여영씨가 지난달 20일 종로구 동숭동 21-2호에 한국사찰음식연구소를 개원했다. (02)747-8734

♣ 강좌

△벽암록·선시=민족사(사장 윤창화)는 11일부터 매주 수요일 오후 7시 민족사 사무실에서 불자들을 대상으로 〈벽암록〉·선시 강좌를 연다. (02)732-2403

△사진강좌=부산화지문화회관(관장 신윤재)은 주부와 직장인을 대상으로 사진강좌를 개설했다. 주간반과 야간반으로 나뉘 4일부터 개강한다. (051)866-6967

△기초교리·의식=평생불자회(회장 김정호)는 불교 기초교리와 의식 등을 무료로 강의. 매주 수요일 오후7시. 동국대 역경원장 월운스님을 증명법사로 한정섭법사, 장익교수 등이 지도한다. 개강은 7일 오후 3시. 6일까지 선착순 마감. (02)507-4008

♣ 모집

△기체조=인천 자비의전화(회장 무찰)는 매주 월요일 오후 2시30분, 오후 6시 기체조교실을 열고, 수강생 모집. (032)884-0118

♣ 답사

△화엄사·삼성궁=국토문화순례 터사랑(대표 전숙희)은 7일~8일 지리산 화엄사, 삼성궁, 운조루 등지로 답사여행을 떠난다. 참가비는 5만원. (02)725-1284

♣ 이전

△혜초여행사(대표 심상돈)는 16일 종로구 관철동 43-8 대한방직빌딩 902호로 이전했다. 전화는 그대로 (02)733-3900

△대한불교화엄종장학회(이사장 정회수)는 서울사무소를 종로구 관훈동 198-16번지 남도빌딩 406호로 이전했다. 전화는 그대로 (02)730-0798

♣ 화촉

△본사 부다피아 최정근씨가 8일 일요일 낮 12시40분 대전 신신농장예식원 2층 백합홀에서 김정은양과 화촉을 밝힌다.

△불교신문사 장용준기자가 8일 일요일 오후2시 인천 주안 고려예식장 1층 득실에서 이종임양을 신부로 맞는다.

나의 수행일기



이근우 〈청담종합고등학교 교장〉

이른 아침 라디오에서 울려퍼지는 장엄한 불교방송 새벽예불과 함께 하루를 준비한다. 예불과 함께 108배를 하면서 한결같은 마음으로 부처님의 가르침에 귀의하는 것. 이것이 내 수행생활의 기초가 된다.

'목숨은 짧고 짧으니 부지런히 힘써라. 이 세상은 실로 덧없는 것. 미혹하여 어두운 곳에 떨어지지 말라. 마땅히 배워서 마음을 지키고, 스스로 닦아 지혜를 구하라. 번뇌의 때를 벗고 지혜의 촛불을 잡고 길을 보라'는 부처님의 말씀을 되새기면서 항상 깨달음을 향한 발원을 하지만 실상 현실에서 비춰지는 내 모습은 여전히 중생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한다.

특히 요즘은 소비주의 생활방식에 젖은 내 삶의 터전을 돌아보며 겉치장에 치중하는 겉돌기 인생을 멈추고 보다 많은 사람들이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서원하곤 한다. 오늘의 경제적 난국을 돌파하기위해서는 진정한 자기 성찰과 자기몫의 각성, 참회수행을 함께 해야 한다는 생각에서다.

내가 불교를 처음 접한 것은 어머니 뱃속에서부터였다. 1940년대 대전에서 인쇄업을 하셨던 부모님은 오랜 도시생활을 정리하고, 속리산에서 은둔생활을 시작했다. 그곳에서 두 분은 늘 염불정진을 생활화하셨다.

부모님의 염불정진은 어린 나에게 큰 영향을 미쳤다. 염불은 내게 하루 세끼 밥 먹는 것과 같은 너무도 당연한 일상으로 자리잡았고, 이같은 가정환경속에서 성장했다. 그러한 가운데 나의 친형이 청담스님의 제자가 되어 출가를 했다. 아마도 부모님의 부처님을 향한 간절한 기도가 그렇게 이뤄진 듯 싶다.

어린시절 형님인 혜성스님을 따라 다니며 참회정진으로 기도에 매진하기도 하고, 또 상원사 적멸보궁에서 여름방학 한철을 기도에 전념하기도 했던 기억들이 아직도 생생하다.

그때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하는 물음을 나 자신에게 수없이 던졌다. 과연 어떻게 해야만 제대로 된 삶을 엮어갈 수 있을까. 그러나 답은 한가지, 일념으로 부처님의 가르침에 귀의하는 것. 이것이 내 수행생활의 기초가 된다.

'목숨은 짧고 짧으니 부지런히 힘써라. 이 세상은 실로 덧없는 것. 미혹하여 어두운 곳에 떨어지지 말라. 마땅히 배워서 마음을 지키고, 스스로 닦아 지혜를 구하라. 번뇌의 때를 벗고 지혜의 촛불을 잡고 길을 보라'는 부처님의 말씀을 되새기면서 항상 깨달음을 향한 발원을 하지만 실상 현실에서 비춰지는 내 모습은 여전히 중생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한다.

특히 요즘은 소비주의 생활방식에 젖은 내 삶의 터전을 돌아보며 겉치장에 치중하는 겉돌기 인생을 멈추고 보다 많은 사람들이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서원하곤 한다. 오늘의 경제적 난국을 돌파하기위해서는 진정한 자기 성찰과 자기몫의 각성, 참회수행을 함께 해야 한다는 생각에서다.

내가 불교를 처음 접한 것은 어머니 뱃속에서부터였다. 1940년대 대전에서 인쇄업을 하셨던 부모님은 오랜 도시생활을 정리하고, 속리산에서 은둔생활을 시작했다. 그곳에서 두 분은 늘 염불정진을 생활화하셨다.

부모님의 염불정진은 어린 나에게 큰 영향을 미쳤다. 염불은 내게 하루 세끼 밥 먹는 것과 같은 너무도 당연한 일상으로 자리잡았고, 이같은 가정환경속에서 성장했다. 그러한 가운데 나의 친형이 청담스님의 제자가 되어 출가를 했다. 아마도 부모님의 부처님을 향한 간절한 기도가 그렇게 이뤄진 듯 싶다.

어린시절 형님인 혜성스님을 따라 다니며 참회정진으로 기도에 매진하기도 하고, 또 상원사 적멸보궁에서 여름방학 한철을 기도에 전념하기도 했던 기억들이 아직도 생생하다.

그때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하는 물음을 나 자신에게 수없이 던졌다. 과연 어떻게 해야만 제대로 된 삶을 엮어갈 수 있을까. 그러나 답은 한가지, 일념으로 부처님의 가르침에 귀의하는 것. 이것이 내 수행생활의 기초가 된다.

'목숨은 짧고 짧으니 부지런히 힘써라. 이 세상은 실로 덧없는 것. 미혹하여 어두운 곳에 떨어지지 말라. 마땅히 배워서 마음을 지키고, 스스로 닦아 지혜를 구하라. 번뇌의 때를 벗고 지혜의 촛불을 잡고 길을 보라'는 부처님의 말씀을 되새기면서 항상 깨달음을 향한 발원을 하지만 실상 현실에서 비춰지는 내 모습은 여전히 중생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한다.

특히 요즘은 소비주의 생활방식에 젖은 내 삶의 터전을 돌아보며 겉치장에 치중하는 겉돌기 인생을 멈추고 보다 많은 사람들이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서원하곤 한다. 오늘의 경제적 난국을 돌파하기위해서는 진정한 자기 성찰과 자기몫의 각

"청소년에 절약정신 심자"

부모님 염불정진에 감화 매일 108참회



성, 참회수행을 함께 해야 한다는 생각에서다.

내가 불교를 처음 접한 것은 어머니 뱃속에서부터였다. 1940년대 대전에서 인쇄업을 하셨던 부모님은 오랜 도시생활을 정리하고, 속리산에서 은둔생활을 시작했다. 그곳에서 두 분은 늘 염불정진을 생활화하셨다.

부모님의 염불정진은 어린 나에게 큰 영향을 미쳤다. 염불은 내게 하루 세끼 밥 먹는 것과 같은 너무도 당연한 일상으로 자리잡았고, 이같은 가정환경속에서 성장했다. 그러한 가운데 나의 친형이 청담스님의 제자가 되어 출가를 했다. 아마도 부모님의 부처님을 향한 간절한 기도가 그렇게 이뤄진 듯 싶다.

어린시절 형님인 혜성스님을 따라 다니며 참회정진으로 기도에 매진하기도 하고, 또 상원사 적멸보궁에서 여름방학 한철을 기도에 전념하기도 했던 기억들이 아직도 생생하다.

그때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하는 물음을 나 자신에게 수없이 던졌다. 과연 어떻게 해야만 제대로 된 삶을 엮어갈 수 있을까. 그러나 답은 한가지, 일념으로 부처님의 가르침에 귀의하는 것. 이것이 내 수행생활의 기초가 된다.

'목숨은 짧고 짧으니 부지런히 힘써라. 이 세상은 실로 덧없는 것. 미혹하여 어두운 곳에 떨어지지 말라. 마땅히 배워서 마음을 지키고, 스스로 닦아 지혜를 구하라. 번뇌의 때를 벗고 지혜의 촛불을 잡고 길을 보라'는 부처님의 말씀을 되새기면서 항상 깨달음을 향한 발원을 하지만 실상 현실에서 비춰지는 내 모습은 여전히 중생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한다.

특히 요즘은 소비주의 생활방식에 젖은 내 삶의 터전을 돌아보며 겉치장에 치중하는 겉돌기 인생을 멈추고 보다 많은 사람들이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서원하곤 한다. 오늘의 경제적 난국을 돌파하기위해서는 진정한 자기 성찰과 자기몫의 각

원력수행의 학교라 할 수 있다.

인스턴트문화에 젖어있는 우리의 청소년들이 자비실천의 덕성을 지닌 지혜로운 인간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현재 내 수행의 가장 중심을 차지하고 있다.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우리민족의 얼과 정신 그리고 근검절약의 정신을 투철하게 교육시키는 것이 일차적 소명이요, 실천수행법이다. 이를 위해 나 자신부터 자족(自足)의 철학, 청빈의 덕을 되새기면서 근검절약하는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있다. 부지런히 노력하는 것은 깨달음의 경지라고 부처님은 말씀 하셨다.

열심히 노력하기를 즐기며, 게으르고 태만한 것을 두려워하는 수행자는 타락하는 일이 없이 이미 열반 가까이에 있다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마음속에 새기며 우리의 청소년들을 바르게 길러내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것을 다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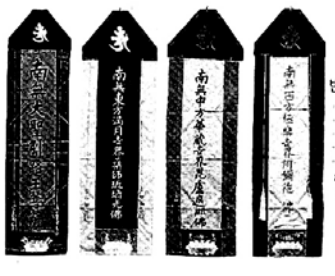
歷史는 바뀔 수 있어도 傳統儀式은 바뀔 수가 없습니다.
영 가 천 도
천도재 49재 예수재 영산재 수륙재

"사찰에 輦[연]은 필수품입니다"



시연(侍輦)은 각종 제(齋)에 필수적인 장엄의식구로써 전통적예술적 아름다움이 어우러진 수공예품으로 제작하였고, 원목을 사용한 정교한 조각, 우아한 단청, 화려한 휘장으로 4단 조립형의 장엄한 예술적 작품으로 이동시 편리하게 제작되었습니다.

"사찰에 幡[번]은 필수품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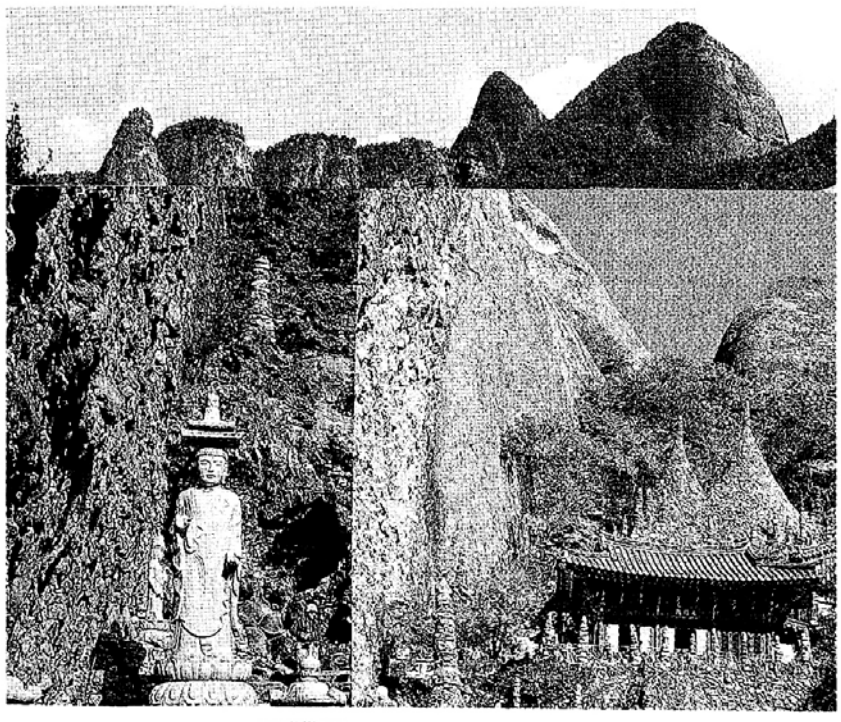


불 보살의 위덕과 무량한 공덕을 나타내는 幡은 화려한 공단과 섬세한 자수로 전통의식 幡 그대로를 재현하여 영구히 보관할 수 있는 예술적 작품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종합불사조성회사 藝暉佛美院
서울特別市 龍山區 文培洞 17-1 신화빌딩 3층
TEL:(02)704-5070(代) 704-8850
영업품목 ; 고건축•대불•옥불•동불•특수불•석불•탱화•개금•단청•법당내부•사찰 홍보기획 및 출판대행

관광을 겸한 방생 어디가 좋을까!
기왕이면 경치도 좋고 물도 가득차 있는 곳이면 더욱 좋겠지요.

신비의 마이산 탑사
탑영제 방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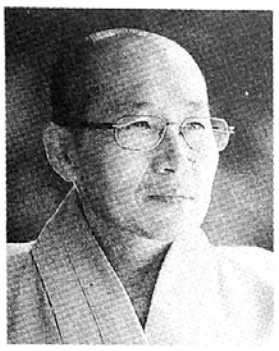


한국의 불가사의 만불탑의 오묘한 신비, 이태조가 백일기도를 드린 영험있는 기도 도량 섬진강 맑은 물의 탑영제 방생기도

관광과 방생을 한곳에서

찾아오시는길
서울 대전 대구 부산
전주 40분 M 마이산
광주

진안 마이산 탑사
전화(0655)33-2900,0303
32-0652,0072



◇경암스님



◇심종선씨

"시조로 읽는 경전 아시나요"

경암스님, 아함·반야·법화부 등 시조로 심종선씨, '시조금강경' 계간지 연재

불교초심자가 아니더라도 경전은 딱딱하고 어렵게만 느껴져 선뜻 손에 잡히지 않는다. 이러한 경전의 딱딱함과 난해함을 뛰어넘어 쉬운 말과 우리 민족 고유의 시가형식인 시조로 재구성해 일반 불자들에게 보다 친근하게 다가가고자 하는 문학적 시도가 호응을 얻고 있다.

형태되어 있는 것은 영원한 것 하나 없고
삼라만상 찬란함도 참모습이 아니란다
이 진리 손에 잡으면 여래진신 만나리

따뜻한 임의 미소 봄햇살로 쏟아지고
켜켜이 쌓인 번뇌 눈사태를 만났구려
이제사 세상 내려다 볼 밝은 두 눈 달았네

〈금강경〉의 유명한 사구게인 "범소유상 개시허망 약견제상비상 즉견여래(凡所有相 皆是虛忘 若見諸相非相 卽見如來)"를 시조화한 것. 시조시인 심종선씨(51·부산불교문인협회)의 작품이다. 심씨는 계간지 '실상문학' 봄호에 '머무는 곳 없이 네 마음 흘러라'는 제목으로 시조 금강경을 발표했다. 2년여의 준비끝에 태어난 '머무는 곳…'은 총 150여편의 연시로 구성될 예정으로 현재 30수가 발표됐다. 한때 출가의 길을 걷기도 했던 심씨는 "경전은 난해한 용어와 반복으로 어렵다고 느끼는 이들이 많다"면서 "많이 독송되고 있는 금강경에 담겨있는 심오한 진리와 거기에서 느끼는 감동을 어떻게 하면 일반에 잘 전할 수 있을까를 오래 전부터 생각해오다 우리 민족 심성과 잘 어울리는 시조에 담았다"고 말한다. '머무는 곳…'은 단순한 뜻풀이에 그치지 않고 경전구절에 대한 시인의 감동과 느낌까지 아우러 한 결 문학적인 맛이 느껴진다는 평.

함축미·정형미 돋보여 뜻풀이에 그치지 않고 감동과 느낌까지 표현

지난 79년 월간 '법시'에 부처님 전생담을 시조로 발표하기 시작해 20년 가까이 '경전의 시조화'를 해오고 있는 경암스님(불입종 총무원장). 스님은 1972년 시조문학으로 문단에 데뷔한 시조시인이다.

경암스님은 부처님 전생담을 비롯 아함부 반야부를 거쳐 현재 법화부를 시조로 창작해 계간지 '불입'에 발표하고 있다. 반야부의 공(空)사상을 시로 창작할때 언어로의 표현이 특히 어려웠다고 회고하는 스님은 "시조는 총 40~50자의 정형시이기에 불경을 시조화하면 압축미와 정형미가 돋보여 그 가르침의 내용이 더 마음에 와 닿는 것 같다"며 부처님의 사상을 잘 표현하기 위해 경전을 읽고 또 읽으며 구상과 퇴고를 거듭한다고.

이번 법화경이 끝나면 열반부 화엄부를, 그리고 조사어록도 시조화할 계획이다. 스님은 시작(詩作)이 완료되는대로 발표됐던 시조들에서 가려뽑고 주석과 용어풀이를 붙여 단행본으로 펴 낼 계획이다.

심종선씨도 인연 닿는대로 다른 경전들도 현대적인 용어로 담아내는 작업을 계속하고 싶다는 원력을 펴보이며 시조금강경의 연재가 끝나는 내년 여름쯤 책으로 엮을 생각임을 밝힌다.

이경숙·천미희 기자

불심시심 〈119〉

마른 나무에 꽃이 피다

禁足銀山下 (금족은산하) 발길을 끊으라 은산이 내리고
觀心玉府開 (관심옥부개) 마음을 살피라 백옥 궁전 열리다
虛窓飛絮舞 (허창비서무) 허공의 창에는 나는 솜의 춤이고
斷塹積鹽頹 (단학적염퇴) 잘린 골에는 쌓인 소금이 무너지다
戴白松應老 (대백송응로) 흰 색을 이었으니 소나무는 늙고
埋青竹未胎 (매청죽미태) 푸르름을 묻었으니 대는 잉태할 수가 없네
乾坤多造化 (건곤다조화) 건곤은 조화력도 많으니
枯木放花來 (고목방화래) 늙은 나무에도 꽃을 피워 주네.

위 시는 경암(鏡巖 1743~1804)대사의 시이다. 대사의 이름은 응윤(應允)이고 경암은 호이다. 속성은 민씨이고 본관은 여흥이다. 어려서부터 영리하여 5세때 배움에 들어 9세에 이미 경사(經史)를 통했다 한다.

13세에 아버지가 별세하자, 15세에 출가하고 한암(寒巖)화상에게서 구족계를 받았다. 두루 여러 곳을 참학하다가 마침내 한암대사의 문하로 다시 돌아와 28세에 강당을 열어 대중을 교화하였고, 후에 배우려는 이가 운집하여 대종사로 추대되니, 이로하여 청허당의 8대 손이 된다.

위의 시는 '은신암에서 눈을 읊는다(隱身庵詠雪)'는 제목의 시이다. 눈을 여러 각도로 조명하여 여실하게 서술한 시이다. 어려서부터 재주가 있어 기림을 받았으니 위의 시도 그러한 시인적 분석의 안목을 보이기에 적합한 시라 하겠다.

첫 구에서부터 내린 눈을 어떤 사물로 대유하고 있다. 온 세계가 은으로 덮여 있다. 은산이 내려왔다는 것이다. 그저 은산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선가 내려왔다는 것이다. 그것은 사람들에게 금족령을 내리는 것이다. 사람들의 출입을 완전히 두절시키고 있다. 출입을 막아 놓고 마음 공부를 하라는 것이다. 백옥의 궁전, 곧 신선들의 궁전이다. 선가의 수양을 강조한다.

나는 솜(飛絮), 쌓인 소금(積鹽)으로 비유한 점도 재미있는 표현이다. 창 밖의 눈은 봄날 버들개지에서 나는 솜털의 하늘거림이고, 내리어 쌓인 눈은 소금더미가 쌓이다가 무너져 내린 것이라는 것이다. 소나무는 하루 저녁 사이에 백발이 되어 늙었고 대나무 숲도 희게 뭇혔으니 거기서 새 순이 나리라고 믿어지지가 않는다. 새 순을 잉태(胎)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역시 수사의 묘미다. 온갖 숲이 백설이 아닌 택화로 덮였으니 천지의 조화에 감탄할 수밖에 없다. 이 시는 이렇듯 전 편이 사물을 새로운 물체로 분석하는 시인적 안목에 이끌리게 한다.

이종찬 〈동국대 교수〉



◇기봉스님 불교사진전에 전시되는 작품 '기원'.

기봉스님 사진전 삼보사찰 전경등 40여점 전시

10~17일 진주서

기봉스님(하동 보문사 주지)의 4번째 불교사진전이 10일부터 17일까지 진주시 경남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다. '98 사진영상의 해를 기념해 열리는 이번 사진전에는 부석사 소조아미타여래좌상 등 불상들과 해인사 통도사 송광사 등 3보사찰의 전경, 사찰의 4계, 청학동의 모습 등 칼라사진작품 총 40여점이 전시된다.

기봉스님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아름다우면서도 상징적으로 형상화시킨 사찰의 모든 것을 포커스에 담아보았다"면서 "불자들이 이번 사진전에서 이심전심으로 진리의 법향을 조금이나마 느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기봉스님은 8월 서울신문 갤러리에서 또 한번의 사진작품전을 갖고 작품집도 펴 낸다. (0591)759-0501

부산BBS합창단 창단

부산불교방송(사장 류진수) 합창단이 창단됐다. 21일 부산 코모도 호텔에서 열린 창단식에는 혜총스님(감로사 주지) 등 부산불교계 인사와 합창단 관계자 200여명이 참석했다.

백성태교수(동의대 음대)를 상임지휘자로 홍순남 단장을 비롯한 80여 단원은 3월중 창단기념 음악발표회를 갖는다.



◇봉서사 영산작법 시연모습.

봉서사 영산작법 전북문화재 지정

완주 봉서사 영산작법이 지난해 12월 24일 전북도 중요무형문화재 제18호로 지정됐다.

봉서사 영산작법보존회(회장 남파)는 태고종 전북총무원의 후원을 받아 이를 기념하는 경축법회를 11일 오전 11시 봉서사에서 봉행한다.

봉서사는 범패의 시조 진감국사가 전수해 준 이래 1200여년간 많은 범패스님을 배출해 낸 곳. 옛부터 범패와 작법에 능한 대중들이 많은 곳으로 유명했지만 86년 전국 민속예술경연대회에서 문체부장관상을 받기 전까지는 세간의 주목을 받지 못했다. 같은 해 영산작법보존회로 개칭, 불교의식을 통해 전법도생에 많은 성과를 거뒀으며 지난해 범패에 일암스님(전주 실상사 주지)이, 작법에 석정스님(전주 극락암 주지)이 기능보유자로 지정받았다. 봉서사 영산작법은 서울 봉원사의 것과 비교해 볼 때 규모는 작지만 소박하면서도 민속적인 면이 강하게 풍긴다.

박물관 전시실 유물마저 훼손

민경희교수 "미생물에 의해 손상…대책 시급"

박물관내 밀폐된 전시실과 수장고에서도 미생물에 의해 문화재 손상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2월20일 국립중앙박물관 사회교육관 강당에서 열린 한국문화재보존과학회(회장 민경희) 학술대회에서 민경희교수(숙명여대 생물학과)는 '박물관내에서의 미생물 분포와 문화재의 훼손'에서 "박물관별 미생물 분포를 조사한 결과 수장고보다는 전시실, 박물관 내부보다는 입구, 휴관일보다는 개관일의 미생물 분포가 더 많았다"며 "관람객의 출입에 의한 외부와의 공기유입이 미생물 분포에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민교수는 "문화재의 병을 치유하는 보존과학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고고학은 물론 물리학, 화학, 생물학 등 관련 분야의 통합학문적인 연구가 절실하다"며 "각 대학에 보존과학과가 신설돼야 하며, 독립된 문화재보존과학기구가 하루바삐 생겨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석조문화재의 보존대책에 대한 고찰'을 발표한 이상헌교수(강원대 지질학과)는 "석굴암, 감은사지 3층석탑, 정암사 수마노탑 등을 제외하고는 국가지정 문화재 중 기초적인 조사자료를 갖추고 있는 경우가 거의 없다"며 "풍화 등 문화재 훼손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통해 주원인을 분석, 이를 토대로 보수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윤기석 기자



◇박물관 전시실에서도 미생물에 의한 문화재 손상이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사진은 국립중앙박물관 전시실.

강화 선원사지 발굴조사 재개

4월부터…사역확인등 고증후 복원

팔만대장경의 관각성지 강화 선원사지에 대한 2차 발굴조사가 4월부터 실시된다.

선원사(주지 성원)는 2월23일 선원사 유물전시관에서 불교언론 기자회견을 갖고 선원사 복원 및 강화문화권 정비사업의 일환으로 오는 4월초부터 선원사지에 대한 2차 발굴조사를 재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동국대박물관(관장 이기동)이 실시하는 이번 발굴조사는 2억5천7백만원을 들여 선원사의 확실한 고증과 사역확인을 주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미 지난해 1차 발굴을 통해 거대한 사찰건물지의 유구를 확인한 바 있는 선원사지는 확실한 고증작업이 이뤄질 경우 2002년까지 16억3천3백만원을 들여 연차적인 복원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대장도감을 복원하고, 팔만대장경의 판각과정을 소개하는 전시특장시설을 설치해 향후 인쇄박물관도 적극 유치할 방침이다.

한편, 이와 별도로 강화군은 강화문화유적권 정비차원에서 해안순환도로를 착공하고 있으며 선원사지 진입로도 곧 개통할 예정이다.

"양택생활풍수에 적용하면, 악운을 예방하고 행운을 불러들이는"

12품 팔상탑주(八相塔呪)의 비법과 그 불가사의한 효험력

글쓴이 : 혜천법사

◎ 팔상탑주(八相塔呪)책자내용의 요점설명

1)음택풍수측면 : 현재의 조상님 산소자리를 후손에게 발복이 일어나는 명당터의 토질로 변하게 해주는 방법수록

2)양택풍수측면:
①사업이 잘 안될때 이를 개선시키는 방법
②대학입시나 고시등 각종 시험에 합격하기를 원할 때
③노처녀나 노총각이 결혼을 빨리하고자 원할때
④부부간에 불화가 심할경우 부부금실을 좋게 해 주는 방법
⑤자녀가 없어 아이갖기를 간절히 원할 때
⑥불치병등을 완치시키고자할 때 풍수적인 조치방법
⑦부동산등을 빨리 처분하기를 원할때
⑧식당, 레스토랑, 다방, 술집, 가게, 상점, 슈퍼마켓, 약국, 여관, 호텔, 사우나, 목욕탕, 학원등 영업장소에 고객들이 증가하고 장사가 잘 되기를 원할 때

12품팔상탑주를 적용시켜 풍수적으로 그 개선방법과 해결책 제시!!

◎본책자는 현재 전국에서 사암을 운영하고 계시는 스님들과 신심깊은 불자님들에게 연락주시는대로 1권씩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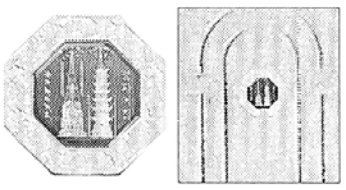
◎스님들께서는 어려우시드라도 가능한 시간을 내주시어 본회로 한번 방문해 주셨으면 합니다.
여러가지로 스님께 도움되는 방법을 제시해 드리고자 하오며 실물을 직접보시고 스님께서 판단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풍수원리를 잘 적용하게 되면, 그 가정과 사업체는 번영과 성장을 하게 되지만 이것을 무시하면 재앙과 재난이 뒤따른다는 *풍수사상!!*"

※팔상탑주(八相塔呪)는 12품의 종류와 방위를 판독하는 나침반으로 구성

이 12품 팔상탑주 중에서 불자님들께서는 다음의설명드리는 2종류의 팔상탑주를 제일 먼저 우선적으로 적용해 주시기를 권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팔상탑주는 이 두품을 먼저 적용하고나서 시간을 두고 경제적인 부담도 고려하시어 단계적으로 적용방법등을 검토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두품만 먼저 적용하셔도 자신의 약한 운세가 변화되고 강해지는 것을 느끼실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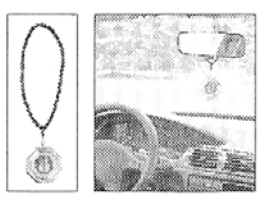
1) 대문용 팔상탑주를 대문앞에 부착해 주십시오.



·소재:금속위에 순도99.9% 순금도금
·규격:8cm×8cm ·가격:60,000원

12품 팔상탑주 중에서 누구나 최우선적으로 적용할 것은 대문용 팔상탑주를 제일 먼저 부착해 놓는 일이 풍수적으로 가장 시급한 일입니다. 대문은 집에 들어오고, 나가는 기(氣)의 출입구입니다. 일단은 대문을 통해서 들어오는 재앙과 불행과 나쁜 사기나 악운을 못들어오게 하고, 상서로운 기만 흡입되도록 풍수적으로 먼저 조치를 해주고 다른 처방을 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특히, 앞집대문과 마주보고 있는 대문은 풍수상으로 적살방이라 하여 어느시점이든 기가 약해졌을때 집안의 생기를 앞집에 모두 빼앗겨 갑자기 한 집은 망하게 되거나 집안에 점점 어려운 일만 생깁니다. 대문용 팔상탑주는 그자체가 부처님의 가호를 받을 수 있는 "불자의 집"임을 나타내고 있으며 전체가 생활풍수원리에 맞도록 조성되어 있어 강력하고 좋은 기(氣)가 계속적으로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대문앞에 부착하면 일단은 대문을 통하여 집안에 생기가 흡입되고 모여들며 이 운기가 앞집이나 외부로 따져나가거나 빼앗기지 않도록 작용하며, 그 시점부터 외부의 나쁜 사기를 완전히 분산시키고 제압하여 집안의 상서러운 기(氣)만을 들어오게 함으로써 출입자에게 강한 운(運)을 제공해 줍니다. 즉 운세가 약하거나 기우는 집안이 이로 인해 다시 운세가 강해지는 운맞이 역할을 시작하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2) 차량 및 목걸이용 팔상탑주를 차안에 걸거나 몸에 지니고 다니십시오



·소재 금속위에 순도99.9% 순금도금
·규격 5cm×5cm ·가격 60,000원

각 집마다 차량이 없는 집이 거의 없을 정도의 현실에서 차량사고에 대한 불안감은 누구나가 가지고 있는 잠재의식중의 하나일 것입니다. 사업번창도 좋고 가정의 번영도 중요하지만 차량사고로 인하여 불행한 일이 발생한다면 아무런 의미도 없는 것입니다. 이제 각 가정마다 차량은 필수품이 되어 메어 놓으려해도 놓을 수 없는 실정에서 차량의 안전운행은 무엇보다 우선적이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차량용 팔상탑주는 차안에 필히 걸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풍수적으로 큰 힘을 발휘하도록 조성된 차량용 팔상탑주는 앞면에 총괄팔상탑주, 뒷면에는 팔괘만다라를 새겨넣어 차안에 걸게 되면 차량 내부 전체에 강력한 우주에너지를 취합시키고 발생시켜 차안에 생기가 충만케 해주고 그로인해 운전자나 탑승자의 운기를 강하게 향상시켜 주므로써, 외부로부터의 사고발생에 대한 대처능력을 높여주고 예견해주는 작용을 하며 사고를 미연에 방지시키고 차량자체도 생기가 뻗어나와 돌발적인 사고가 져절로 피해가도록 조절해 줍니다.

● 차량이 없는 분이나 혼자서 운전하시고 다니시는 분은 목에 걸거나 호주머니등에 넣고 다니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몸에 지니고 다니면 몸전체에 생기가 흡입되어 자신에게 닥치는 재난과 질병과 불행이 차단되고 운기가 뻗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으므로 중요한 계약체결이나 시험보러갈때, 관재가 있거나 삼재가 온 사람은 꼭 몸에 지니고 다니십시오. 특히 사업하시는 분이나 건강이 안 좋은 분, 간절한 소원이 있는 분은 필히 지니고 다니시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 팔상탑주란?

"사람에게는 인상(人相), 관상(觀相)이 있고 집에는 가상(家相)이 있다. 이 가상(家相)안의 여덟방위에는 주역의 괘괘에서 말하는 길상(吉相)인 팔상(八相)이 존재하고 있으며 팔상(八相)은 여덟가지의 인생사(人生事) (1)결혼 (2)명성 (3)부 (4)가정 (5)지식 (6)진로 (7)조력자 (8)자식을 뜻한다. 이 8방위의 발전을 각방위별로 크게 성취할 수 있도록 하는 교정수단으로서 팔괘의 팔각형안에 음양의 불담다라니 신주(神呪)와 오행상의 길(吉)한 색상과 상징물, 숫자, 주술(呪術)등을 도입하여 조성한것과 이곳에서 불가사의하고 신비스러운 위력이 크게 나타나고 있는 것을 이름하여 팔상탑주(八相塔呪)라"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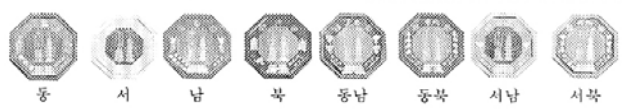
3) 거실·사무실·상점 등의 중앙에 걸어두는 총괄 팔상탑주



(1)적용방법 및 효능 등 자세한 설명은 책자 참조
(2)소재 : 특수 주물금속위에 순도 99.9% 순금으로 도금
(3)규격 : : 30cm×30cm
(4)수려하고 아름다운 외관은 풍수적으로도 탁월한 효능을 발휘하지만 불자님들 집안의 고급스러운 장식용으로도 손색이 없습니다.

의장특허등록 : 제211260호

4) 8방위 영역발전을 성취시켜주는 방위별 팔상탑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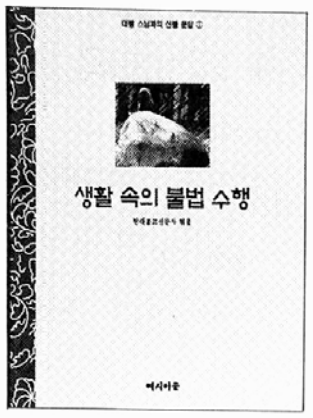


동 서 남 북 동남 동북 서남 서북

◎ 팔상탑주(八相塔呪)의 효험력

강한 기(氣)의 생성과 균형, 팔괘와 음양의 조화, 십이지·오행상의 상생을 조화시킨 양택 생활풍수원리와 불탑신주(佛塔神呪)의 위력이 합일(合一)되어 조성된 12품의 팔상탑주(八相塔呪)는 가옥이나 사무실, 가게 등에 적용하는 순간부터 그 곳의 운기(運氣)를 최상으로 만들어 놓고, 그곳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운세를 무엇이든 이룰 수 있는 강한 운(運)의 소유자로 변화시킨다.
즉, 12품 팔상탑주(八相塔呪)의 비밀스럽고 불가사의한 효험력은 적용되는 순간부터 거주인들에게 닥치는 악운(惡運)을 예방시키고, 행운(幸運)을 가져오기 시작하며 결혼·재정·학업성취·대인관계 등에서 유익하게 작용토록하고 직업면에서도 운(運)이 열리고 자손이 번성하고 명성을 얻게 하며 가족이 화목하게 되고 많은 부(富)를 쌓게 하여 행복한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한다.

상담문의 및 책자신청 성지관음회
경기도 용인시 모현면 능원리 30-1(능원빌딩 3층)
전 화 : (0335)34-9490, 34-9491 야 간 : (0342)706-3060



신행의문에 명쾌한 해답

여시아문 '생활속의 불법수행' 출간

현대불교신문 연재 '길을 묻는 이에게' 묶어

4백여쪽 분량 5천원

"대학원생 아들이 어느날 갑자기 휴학을 하더니 이제는 아예 자퇴를 하겠다고 합니다. 나름대로 부처님 말씀을 일러주며 애를 쓰고 있으나 별 반응이 없습니다" "우리는 집을 지을 때 방마다 전선을 가설해 놓고 전등을 달아 놓지요. 우리의 마음도 그와 같이 가설돼 있습니다. 전선마다 전기가 흐르고 있다는 사실에 대한 믿음으로 내 마음의 불을 켜면 아들의 마음에도 불이 들어오게 됩니다"

삶의 고비고비에서 부딪치는 문제들, 신행생활을 하다 얻게되는 갖가지 의문들을 한마음선원장 대행스님의 답변을 통해 하나하나 풀어 주제별로 정리한 〈생활 속의 불법수행〉(여시아문 刊)이 나왔다. 이 책은 불법수행을 매우 어렵게 여기거나 일상속에서 깨달음을 얻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고정관념을 깨뜨리고 부처님 가르침을 널리 알려 향기로운 삶을 가꾸자는 취지에서 기획됐다.

현대불교신문 창간호(1994. 10. 15)부터 제143호(1997. 9. 24)까지 지상에 연재됐던 '길을 묻는 이에게'를 정리한 이 책은 생활 속에서 발견하고 체험할 수 있는 사례를 통해 불교진리를 쉽게 설명했으며, 부처님 가르침을 어떻게 수행하고 실천해야 하는가를 자상하게 일러주고 있다.

구성은 '주인공이란' '믿고 놓아라' '교리와 신행 속의 생활' 등 모두 14개의 큰 주제아래 평소 불자로서 수행하면서 느꼈던 궁금한 점과 이해하기 어려운 갖가지의 질문과 이에 대한 자세한 답변으로 꾸며져 있다. '불성을 깨닫고 싶어요' '신심이 부족합니다'등 신행생활에 대한 궁금증에서부터 '고3 아들이 놀러만 다녀요' '제법무아란 무슨 뜻입니까' '견성이란 무엇입니까'등 생활과 교리, 깨달음의 세계에 이르기까지 3백80여개의 질문과 답변을 통해 생활과 불법수행이 둘이 아님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이 책은 IMF시대 종지지를 사용하고 지면당 원고수용률을 최대한 높이는 등 거품을 모두 걷어내 400여쪽이 넘는 분량임에도 가격은 5천원으로 책정됐다.

한명우 기자


◇한마음선원장 대행스님이 신행생활에서 부딪치는 의문에 대해 답하고 있다.

"사람구실 제대로 하려면 불교를 알아야 한다"

'다석 유영모 명상록' 3권 나와



1955년 5월11일. 다석 유영모선생은 일기에 '물질은 불구부정(不垢不淨)이요. 심정(心情)은 가구가정(可垢可淨)이다'고 적었다. '물질은 깨끗하고 더럽고를 가릴 수 없으나 물질을 더럽히는 것은 사람뿐이며, 더러워진 마음은 깨끗하게 할 수 있다. 이것이 수행이며, 끊는 것처럼 바른 길은 없다'는 의미로, 다석선생의 사상이 대체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평생을 참을 찾아 실천한 진인(眞人)으로 평가받고 있는 다석(多石) 선생의 일기를 한데 모아 엮은 〈유영모 명상록〉 1·2·3(성천문화재단 刊)이 나왔다. 김리교신학대 김흥호교수가 1955년부터 1974년까지의 다석선생 일기를 풀이한 것으로 불교 기독교 유교 등을 고루 설렵한 사상가 다석의 생각과 고뇌가 담겨져 있다.

이 일기는 모두 3천 수의 시조와 한시가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글 제목이 있는 것은 그대로 쓰고 없는 것은 편의상 저자가 붙였다. 구성은 고어와 한문이 섞인 원문을 그대로 소개하고 이에 대한 자세한 해설을 곁들였다.

다석선생은 동서양의 고전을 읽기도하고 사물에 대해 깊이 생각하는 것으로 하루를 채웠다고 한다. 57년 1월14일 일기 '새벽이란 밝으려고 하지만 아직 밝지 못한 때이다. 사람도 깨달으려고 깊이 생각할 때는 금방 깨달을 것 같은데 못 깨닫고 헤매는 것이 깨닫기 전의 마음이다'만 보아도 다석선생의 정신적 경지를 느낄 수 있다.

다석선생은 서울 YMCA에서 〈반야바라밀다심경〉을 강의하면서 "불교는 그 역사가 2천5백년이나 되는 세계적인 사상이다. 우리가 사람 구실을 제대로 하자면 불교를 알아야 한다. 불교를 모르고는 사람 구실을 할 수 없다"고 말한 바 있을 정도로 이 책에서는 곳곳에서 그의 불교관을 볼 수 있다. 〈우〉

'농사짓는 변호사 경주에 살다'

변호사 신평씨 자전적 수필집
기독교서 불교귀의 이유 밝혀



전직 관사에서 지금은 변호사이자 농사꾼. 기독교인에서 신심 돈독한 불자로의 변신. 신평(43세)씨가 제2의 인생을 시작한 경주에서의 삶의 이모저모를 엮은 〈농사짓는 변호사 경주에 살다〉를 내놓았다.

93년 신평씨는 모 시사주간지에 사법부 개혁을 촉구하는 기고문을 발표하면서 현행헌법 최초로 법관재임용 탈락처분이라는 시련을 겪었다. 그렇지 않아도 건강악화와 삶의 궁극적 의미를 찾아 헤매이던 그의 영혼은 자신이 의지하던 하나님에게서조차 쉴 곳을 찾지 못하던 차였다.

제1부 '경주에 살으리랏다'에서 신평씨는 '분황사 시절'과 '나와 불교'라는 주제아래 자신이 불교에 귀의하게 된 이유와 불교관을 설명하고 있다. 기독교를 신앙하면서도 설명하기 힘든 아쉬움은 늘 가슴 한구석에 남아있었다.

이때 우연히 만난 대흥사 윤보스님으로부터 크게 깨우쳐 불교에 귀의하고, 불교의 가르침을 어떤 형태로든 자신의 삶에서 녹이고자 노력하는 삶을 살고 있다고 고백한다.

2부 '상식이 통하는 사회를 위하여'와 3부 '관사와 오관'에서 열어보이고 있는 작은 이야기들은 신평씨의 날카로운 시각과 잔잔한 문장으로 사람과 사회에 대한 아픔과 희망을 비추고 있다.

신평씨는 현재 경주 남산의 한 자락에서 텃밭을 가꾸면서 변호사일과 함께 경주학술포럼이사장과 장학단체인 마평장학회 회장을 맡고 있다.

'문화상품권' 판매
책방 여시아문

책방 여시아문이 3월16일부터 '문화상품권'을 판매한다. '문화상품권'은 영화 연극 전시회 및 공연 관람뿐만 아니라 CD LP 구입과 비디오 구입 및 대여까지 단 한장의 상품권으로 고객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게 한 종합상품권으로 1매당 5천원이다. 5천원권에 이어 1만원권 5만원권과 소비자의 욕구대로 금액을 사용할 수 있는 '프리페이드 카드'(Prepaid Card)시스템도 도입될 예정이다. (02)737-0695

◇금주의 베스트불서 10

책방 여시아문 집계

순위	도 서 명	저·편자	출 판 사
1	가슴을 적시는 부처님 말씀 3백가지	성우·지현	민 족 사
2	불보살 명호이야기	이 윤 수	민 족 사
3	성지와 범부가 함께 읽는 금강경	윤 을 순	신 우 당
4	마음 알기 다루기 나누기	일 타	대원정사
5	팔만대장경에 숨어있는 108가지 이야기	진 현 종	혜 윰
6	무소유	법 정	범 우 사
7	수행으로 가는 길	이 제 열	대원정사
8	알기쉬운 불교미술	동국불교미술연구회	반출판사
9	생활속의 기도법	일 타	효 림
10	금강경 강의	무 비	불 광

구입문의:(02)737-0695

대둔사 개산 1450년 역사 담은 '대둔사지' 4권 발간

대둔사 개산 1450여년의 역사를 담은 〈대둔사지〉가 발간됐다. 창건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의 인물, 유물 등 대둔사의 모든 것을 자체적으로 수집하고 제작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권1에는 대둔사 맥(脈)의 유래와 12종사 등 인물을, 권2에는 사암 층탑 제영(題詠) 등이, 권3에는 유서(遺書) 유기(遺器) 등이, 권4에는 신라승 무루선사 등 역사적 인물과 사찰 그리고 고구려 백제 신라 등 시대별 불교의 특징이 서술돼 있다.

〈대둔사지〉는 불교의 역사와 문화 예술 사상을 전하는 중요한 기록이라는 점에서 가치가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대둔사지간행위원회와 강진문헌연구회가 공동으로 간행했다.

둥지속의 대화 | 효종스님 지음

이웃들의 가슴아픈 이야기 30여편



부산 바라밀포교원 원장 효종스님이 간병인 활동을 하며 직접 경험한 내용을 간추려 엮었다.

"스님, 김씨네가 집을 팔아야 할 형편이랍니다. 차라리 치료를 중단하고 남은 처자식이라도 먹고 살 수 있도록 하는게 낫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는 것이 도리가 아니겠습니까" 결국 세상을 떠난 농부 김종수씨(가명)의 이야기를 시작으로 염불할머니 청정행보살에 이르기까지 30명의 가슴아픈 이야기를 담으며 효종스님은 "육신을 가누지 못하고 있는 날개 잃은 새들을 위해 장삼자락을 다시 동여 매고 힘차게 뛰어야 한다"는 다짐을 한다. 〈부다가야 6천6백원〉

와제외책

만다라를 통한… | 수잔핀처 지음

심리분석등 만다라 치료사례 소개



만다라는 우주 만물의 조화와 연관성 및 차별성을 부처님 모양의 그림으로 나타낸 것이다. 흔히 기하학적 구조로 그려진 불보살의 그림(탱화·불화)을 만다라라고 부르며, 깨달음을 상징하기도 한다. 저자는 만다라를 통한 심리치료로서의 미술치료에 관한 내용을 만다라의 역사와 더불어 치유성을 이 책에서 설명하고 있다. 만다라는 바로 자기자신을 나타낸다고 저자는 주장한다. 그리고 만다라 속에 나타난 색깔, 숫자, 형태, 새나 꽃과 같은 소재들의 상징성을 통해 만다라를 그린 사람의 심리를 분석·이해하고 치료에 성공한 사례를 제시했다. 〈학지사 8천원〉

새로나온 책







▲심지통경=예불은 어떤 마음가짐으로 해야 하는가. 불교교리와 예법을 초보자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있으며, 선(禪)수행의 요점과 참선하는 법, 달마조사의 오분향 해설, 황벽선사의 교훈 일구(一句), 부처님의 교화방법 등 다양한 내용을 혜등스님이 한데 묶었다. 〈전원문화사 1만2천원〉

▲선인들의 공부법=공부는 특별한 것이거나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닌 살아있는 동안 끊임없이 해나가면서 그것을 통해 자신의 인격을 향상시키고, 세상을 밝히며, 인간과 우주의 도를 깨달아가는 과정임을 보여주고 있다. 공자 장자 주자 이이 이황 홍대용 박지원 등 16명의 선인이 공부에 관해 남긴 훌륭한 말들을 모았다.〈창작과비평사 8천5백원〉

▲한국인의 종교경험 무교(巫敎)=종교인들의 지금까지의 삶에서 전혀 새로운 삶으로의 전이를 가능하게 하는 비일상적인 종교 경험뿐만 아니라 종교와 관련된 일상적인 경험들을 다루고 있다. 〈서광사 9천5백원〉

부드러운 말 한마디 미묘한 향이로다
일타큰스님 법어집

"맑고 향기로운 세계를 향해 열려 있는 문(門)"

부처님의 말씀을 보다 쉽고 가깝게 대중들에게 전하셨던 일타큰스님. 일타큰스님의 법어집 《부드러운 말 한마디 미묘한 향이로다》가 출간되었습니다.
고된 삶 속에서 이리저리 흔들리며 방황하는 모든 이들에게 새로운 세계로 향하는 문을 열어드립니다.
법(法)의 향기 가득한 일타큰스님의 말씀, 삶의 지표를 다시금 세워보십시오.

Ⅰ. 무엇을 위하여 살 것인가 / Ⅱ. 복된 삶을 이루기 위하여 / Ⅲ. 베풀며 살자 / Ⅳ. 밝은 삶을 여는 계율 / Ⅴ. 자기를 돌아보는 공부 / Ⅵ. 화두 드는 법 / Ⅶ. 마하반야바라밀

※ 월간 『법공양』에 연재되었던 일타큰스님의 주옥같은 법문을 한권에 담았습니다.

신국판 / 값 5,000원

고된 삶의 감로수 같은 일타큰스님의 책모음

· 생활 속의 기도법 일상생활에서 처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도법 모음집 B6 / 3,500원
· 祈禱(기도) 일타스님과 도반·선배·제자·신도들의 기도성취 영험담 모음집 신국판 / 5,000원
· 시작도 끝도 없는 길 일타스님 주변의 윤회와 인연이야기 모음집 신국판 / 5,000원
· 시작하는 마음 초보자를 위한 불교입문 지침서 보조국사의 《초심》 강설집 신국판 / 5,000원
· 영원으로 향하는 마음 원효대사의 《발심수행장》에 대한 일타스님의 강설집 신국판 / 5,000원
· 자기를 돌아보는 마음 야운비구의 《자경문》을 알기 쉽게 풀이한 책 신국판 / 5,000원
· 법공양문 부처님과 역대스님들의 가르침을 모아 엮은 책 신국판 / 5,000원
· 범망경보살계1~5 보살계 산림법회에서 강설하신 일타스님의 무애변 [illegible] 을 담은 책 신국판 / 각권 6,000원
· 감로법문 듣는 것만으로도 환희심이 샘솟는 일타스님의 육성법문 테이프 육성법문 테이프 / 5개 1세트 / 10,000원

법보시를 원하시는 분은 출판사로 연락을 주십시오. 할인혜택을 드립니다. 도서출판 효림 전화 : (02) 587~6612·582~6612 팩스 : (02) 586~9078


◇백용성스님

"대각교 운동으로 식민체제극복 노력"

13일 대각사 용성스님 세미나

생애·사상·대각불교 등 조명

3·1운동 당시 만해 한용운 스님과 더불어 민족대표 33인에 참여해 독립운동에 앞장섰던 백용성 스님(白龍城·1864~1940).

국가보훈처가 '3월의 독립운동가'로 백용성스님을 선정한 것을 계기로 그의 생애와 사상을 재조명하는 학술세미나가 13일 오후2시 서울 대각사에서 대각사상연구원(원장 보광스님) 주최로 열린다. '백용성 스님과 불교계의 독립운동'을 주제로 △백용성스님의 생애(보광스님) △백용성스님의 독립운동(김광식·독립기념관 연구원) △불교계의 독립운동(김창수·동국대 교수) △대각교의 성립배경(홍윤식·동국대 교수) 등의 논문이 발표될 예정이다.

김광식씨는 미리 배포한 논문 '백용성의 독립운동'을 통해 "용성스님의 행적은 전통불교의 몰락, 일본불교의 침투 등 일제 식민지체제하에서 불교의 대중화 및 혁신을 위한 불교정신의 재창조였다"는 견해를 제시했다. 용성스님의 행적 가운데 △1910년 '조동종 맹약'에 반대해 일어난 '임제종 운동' △선학원 설립 주도와 대각교(大覺敎) 창설등은 위 주장을 설명하기에 충분하다는 것. 김씨는 "항일불교운동으로 귀결되는 용성스님의 생애 전반은 식민지 체제를 극복하려는 독립운동 그 자체였다"고 강조했다.

보광스님(동국대 교수)은 "지금까지 용성스님에 대한 연구는 대각교 사상이라는 제한된 시각에서만 이뤄져 그의 사상적 다양성과 심원성에는 접근하지 못했었다"며 "사호성과 역사성에 비추어 승려로서, 독립지사로서 활동하였던 독립운동의 관점에서 용성스님을 조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홍윤식 교수는 "용성스님이 한국 전통불교의 정수(精髓)를 유지하면서 재창조하기 위해 '대각교'를 설립했다"고 배경을 밝히는 한편, "대각교 운동은 전통불교의 핵심인 선을 근본으로 삼으면서 율의 엄정한 실천을 제창한 선율(禪律)의 병행, 승려 및 불교기관의 자립화를 위한 노농(勞農) 실시, 불교 교육제도 개혁을 통한 재창조의 과정"이었다며 "1921년을 전후한 대각교 창립을 통해 용성스님은 식민지불교 극복 노력에 심혈을 기울였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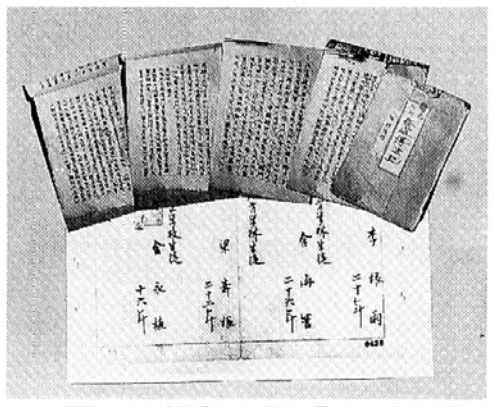
김정은 기자

범어사스님들 3·1운동 자세히 묘사

동광선사 '수도전법기' 공개

3·1운동 당시 범어사 스님들이 동래지역에서 일으킨 만세운동에 가담했던 동광스님(東光 1900~1976)이 당시의 정황을 상세히 기록한 친필유고 〈동광선사 수도전법기〉와 〈동광경사록〉이 공개됐다.

두권의 자서전적 원고에서 동광스님은 "경성부 중앙 학림에 재학중이던 김법린의 독립선언서를 비밀리에 사(師 동광스님 자신)가 전달 받고 범어사 일주문 근처 나무뿌리 속에 감추어 두었다가 각 학교 학생들에게 전달한 뒤 3월 3일 40명으로 결사대를 조직하고 이를 선두로 동래읍내에서 8시 30분과 4일 오후 4시경, 이틀동안 만세를 불렀는데 이때 동래성의 동문


◇동광스님의 친필유고와 정부기록보존소에 소장된 대구 복심 법원의 재판 판결문.


◇동광스님

"항일 불교인사 독립유공자 등록 교계 관심가져야"

책임자는 양춘도(楊春到), 서문 책임자는 사(師)가, 남문 책임자는 허영호(許永鎬·해방후 동국대학장 및 구회의의원 역임), 북문 책임자는 황학동(黃鶴東)씨 등이 주축이 되어 조선독립만세를 높히 부르며 동래읍내로 들어가니 뜻을 같이한 백성들이 합세하게 되어 세력은 더욱 커져 동래경찰서로 진입하던 중 놀란 왜경들이 총을 난사하고 칼을 휘둘러 죽는자가 속출하게 되었다"고 회고했다. 스님은 또 왜경에게 체포되어 부산지방법원에서 6개월의 형을 언도 받고 불복, 대구 복심법원과 경성 고등법원에서 다시 6개월을 언도받은 내용들도 기록하고 있다.

이 원고는 동광스님의 제자인 육락스님(영주 대현사즈지)이 최근 공개한 것으로 동광스님이 70년대 초에 집필한 것. 동광스님은 만공스님으로부터 법을 인가 받았으며 학명, 전강, 춘성스님등 당대를 주름잡은 선승들과 함께 선지를 나눈 선승이지만 아직 학계에 조명되지 않았다.

동래지역 만세 운동의 주동자로 부산지법의 관결에 대해 항소한 13명의 스님들이 5월 20일 대구복심법원에서 재관을 받은 관결문 원본이 정부기록보존소에 보관돼 있어 동광스님의 원고를 사실로 확인시켜주고 있다. 관결문에 따르면 동광스님(당시 이근우)과 김영규, 김상기, 김한기 등 범어사 지방학림 생도와 명정학교 생도등은 3월 17일과 18일(동광스님은 3일과 4일로 기록하고 있는데 날짜를 혼동했을 것으로 보인다.) 동래지역에서 만세운동을 주동한 혐의로 1년 내지 6개월의 형을 언도 받았다.

동광스님의 원고 내용이 사실로 확인된 것과 관련 근세 불교사를 연구하는 학자들은 "항일 운동을 한 불교인사들의 독립유공자 등록에 불교계가 더욱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항일운동을 했던 불교인사들의 활동내역을 상세히 추적, 입증자료를 찾으려는 노력이 부족해 아직도 많은 불교인사들의 항일 활동이 역사의 한켠에 묻혀 있는 것으로 짐작되기 때문. 실제로 동광스님과 함께 복심법원에서 재관을 받은 스님 13명 가운데 김영규스님등 4명은 독립유공자로 등록됐으나 나머지는 아직 등록되지 않았다. 국가보훈처의 이성춘 사무관은 "독립유공자 추천은 불교계가 자료확보등 노력을 기울인다면 많은 항일인사들의 업적이 공인되어 포상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등록된 8천3백여명의 독립유공자 중 불자를 가려내는 작업이 진행되지 못한 실정이지만 항일 불교인사 발굴작업은 3·1절 79주년을 맞은 불교계에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임연태 기자

화엄사상 유심·연기 등 5분류

도업스님 화엄경 본문 연구 박사논문



용수 법장 등 화엄교가들의 주석서 연구로 이뤄지던 기존의 화엄경 연구와는 달리 화엄경 본문을 직접 연구한 논문이 발표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동국대 불교문화대 교수 도업스님이 2월13일 일본 교토불교대 박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한 '화엄경사상 연구'. 스님은 이 논문에서 화엄경에 담겨 있는 사상을 법신불사상(法身佛思想), 보살사상(菩薩思想), 유심사상(唯心思想), 연기사상(緣起思想), 정토사상(淨土思想) 등 5부분으로 분류, 독자적인 연구를 시도했다.

스님은 유심사상에서 "일체유심조의 '마음'을 생멸하면서 변해가는 우주의 원리 또는 법칙(법신불)으로 정의하고 있다. 또 연기법을 시·공간적인 상즉상입(相卽相入)과 주반구족(主伴具足)의 불이(不二)적인 개념으로 접근, 서양사상이 수직·종속적인데 비해 불교사상은 수평·평등적임을 밝혀 놓았다. 특히 스님은 "화엄경에 나타난 염불은 칭명염불이 아닌 지관염불(止觀念佛)이며, 보살행의 조건으로 성내지 않는 마음으로서의 무진에(無瞋恚)가 추가돼 있는 것이 특징이다"고 주장했다.

종밀사상 영향받았으나 선교통합 방식 시도

"보조스님 독창적 선사상 수립"

보조사상硏 1차 禪典연구 발표


◇최연식씨


◇이병욱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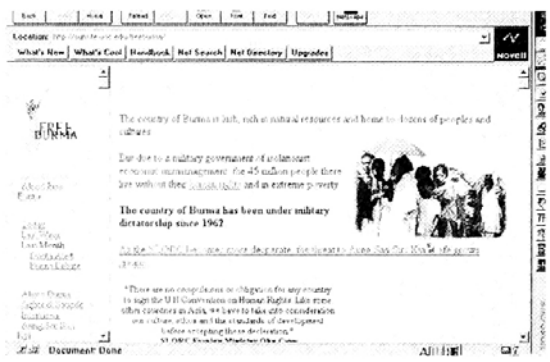
보조지눌(普照知訥: 1158~1210)은 규봉종밀(圭峯宗密: 780~841)로부터 선사상의 영향을 받았으나 독자적 안목을 발휘, 새로운 선수행 방법과 선교(禪敎)일치라는 자기만의 입장을 수립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월27일 열린 보조사상연구원 제1차 禪典연구 '보조의 〈법집별행록절요병입사기·法集別行錄節要幷入私記〉 연구' 발표회에서 최연식씨(서울대 국사학과)와 이병욱씨(고려대 철학과)는 종밀과의 비교를 통해 지눌의 독창적인 선사상을 밝혔다. 〈법집별행록절요병입사기〉(이하 사기)는 종밀의 저술 〈법집별행록〉(이하 법집)을 간추려서 정리하고, 그것을 기초로 자신의 해석을 덧붙인 지눌스님의 만년(晩年) 저작.

'보조의 삼문(三門)의 성격'을 주제로 발표한 최연식씨는 "〈사기〉의 내용을 살펴보면 〈법집〉의 해설서라기 보다는 오히려 〈법집〉을 소재로 하여 자신이 생각하는 선수행의 요체를 서술한 저술임을 알 수 있다"고 밝혔다. 〈법집〉에 나타난 선수행의 대표적 방법은 삼문이다. 지눌스님의 사상구조를 체계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삼문은 성적등지문(惺寂等持門) 원돈신해문(圓頓信解門) 경절문(徑截門)의 세가지 수행방법을 일컫는다.

최씨는 "성적등지문과 원돈신해문은 각기 점수와 돈오의 수행법으로 '마음'을 완전하게 인식하는 것(돈오)과 제대로 활용하는 것(점수)은 별개가 아님을 깨닫도록 하는 수행법(정혜쌍수)"이며 "지눌은 궁극적으로 화두의 참구(參究)를 통해 이론과 개념을 초월하는 경절문의 수행법을 〈사기〉에서 밝히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병욱씨는 '종밀과 보조의 선교관(禪敎觀) 비교'에서 "종밀은 선종과 교종을 각각 세가지로 구분하고 각 단계별로 일치를 시키고 있는 반면 지눌은 종밀의 영향을 받았지만 종밀과 다른 선교통합방식을 시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즉 지눌은 선종의 하택종·홍주종과 교종의 원교(圓敎)는 마음을 기준으로 불교를 설명하며 무념을 근본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서로 일치한다고 보고 있다. 이씨는 "지눌의 선교통합은 종밀과 입장을 달리하며 자기방식의 선교통합을 주장했다는 점에서 지눌의 진면목을 읽을 수 있다"고 밝혔다.



부다피아 사이버 기행

불교문화와 정치

"미얀마 불교문화 열람하세요"

전국민의 90%가 상좌부(Theravada)를 믿는 불교국가로, 아웅산 수지 여사가 지난 93년 노벨평화상을 수상한 것으로 세계에 널리 알려진 미얀마의 불교 예술을 감상하고 정치 상황도 살필 수 있는 사이트들이 있다.

미얀마 관광성이 개설한 '미얀마 불교예술'은 세계에서 가장 크고 화려한 △쉐다곤(Shwedagon) 탑과 △양곤시의 전경 사진을 제공한다. 2500년전 조성된 쉐다곤 탑은 바닥에서 황금 돔까지의 길이가 98m에 달하며 사용된 금만도 60여톤. 바간시의 △아난다 사원 탑사도 제공한다. 53평방미터에 이르는 이 탑사에는 51m 중앙 홀 사면으로 9.5m의 입상불상이 모셔져 있다.

호주국립대가 개설한 '버마와 머나먼 저편'은 아시아 연구가 고든 루스(호주·1889~1979)가 일생동안 버마를 연구하며 수집했던 △경전 필사본 △사진 △지도 등을 제공한다.

미국 망명 반체제 인사들이 워싱턴에서 개설한 '프리버마'는 미얀마의 △역사 △아웅산 수지 여사 △버마의 창 등의 서비스를 개설, 다양한 정치·사회 정보를 제공한다.

미얀마불교예술 http://www.myanmar.com/gov/tourist

버마와 머나먼 저편 http://www.nla.gov.au/1/asian/form/uce.html

프리버마 http://sunsite.unc.edu/freeburma/

버마 프로젝트 http://www.soros.org/burma.html

지혜의 빛 자비의 샘 채널32 불교텔레비전

이계진 아나운서가 우리절 홍보 보좌관!



우리절 우리스님
방송시간
(50분간 1회본방 3회 재방)
매주 화요일
09:10~10:00
13:25~14:15
22:00~22:50
매주 일요일
18:40~19:30

" 불교텔레비전 '우리절 우리스님'에 출연하길 참 잘했어요."
언제봐도 믿음직한 불자 아나운서 이계진씨가 우리절 자랑에 발벗고 나섰답니다.
우리끼리만 알고 있기에는 너무 아까운 우리절 이야기 보따리를 요즘 잘 나가는 프로 '우리절 우리스님'에 나가 풀어놔보세요.
가슴속은 시원해지고 이깨는 으쓱해진답니다.

* 출연문의 : 불교TV 영상사업부 02)3270-3368

* 불교TV는 케이블TV에 가입하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btn
불교 TV
서울 마포구 마포동 418번지

한 형 조

무문관 탐방

42

법안의 발 ①

*점심 공양을 앞두고 청량의 대법안선사에게 한 승려가 찾아왔다. 법안은 손으로 발을 가리켰다. 곁에 섰던 스님 둘이 일어나 발을 걷어올렸다. 법안이 말했다. "하나는 옳은데 하나는 틀렸다."

*나 혜개가 말한다. "자, 말해보라. 대체 누가 옳고 누가 그른가. 여기서 눈 하나를 얻는다면 청량의 패착까지 알아낼 수 있을 터. 그렇지만 이리저리 머리 굴려서는 절대로 아니되지."

*송하여 가로되, "발을 걷으니 환한 하늘이네. 그 흰한 하늘도 선의 근본과는 거리가 있는 것. 어찌서 그 하늘마저 내던져 버리지 않았을꼬. 꼼꼼 촘촘하여 바람 한 점 통하지 않게하라."

二僧卷簾:

淸凉大法眼, 因僧齋前上參, 眼以手指簾. 時有二僧, 同去卷簾. 眼曰, 一得一失. 無門曰, 且道是誰得誰失. 若向者裏, 著得一隻眼, 便知淸凉國師敗闕處. 然雖如是, 切忌向得失裏商量. 頌曰, 卷起明明徹太空, 太空猶未合吾宗. 爭似從空都放下, 綿綿密密不通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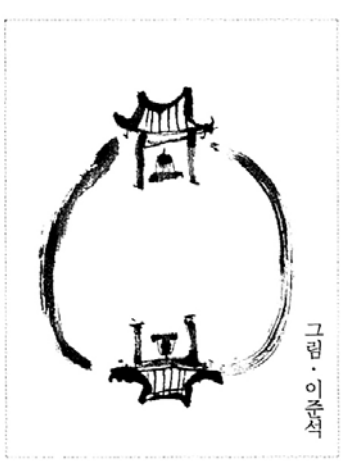


그림 · 이준석

따는 무더운 여름이었나보다. 법안은 곧 나올 점심을 대중과 함께 기다리고 있었다. 밥을 먹는 일은 그 자체가 엄숙한 의례였다. 그래서 재(齋)라 한 것이다. 공양(供養)또한 마찬가지의 취지를 담고 있다. 절집의 아침은 대개 죽(粥)이고 저녁은 본래 없었다. 인도불교는 해가 지고난 뒤에는 음식을 취하지 말라고 일렀지만, 이 계율은 저녁이 길고 날씨가 추운 동북아시아에서는 지켜지기 힘든 것이다. 그래서 저녁을 먹기로 했다. 약석(藥石)이라는 이름에는 그 타협과 양보에 대한 미안함과 겸연쩍음이 담겨 있다. 그러니 진짜 식사는 점심이었다. 허한 배를 달래며 혹은 즐기며(?) 공양을 기다리고 있는 법안의 처소에 객승 하나가 찾아왔다. 길을 찾아 구름처럼 떠도는 이 순례자에게 법안은 노파심을 발휘했다.

법안의 눈에 문에 쳐진 발(簾)이 들어왔다. 대나무로 살을 만들어 엮은 간소한 것이 여름햇빛을 가리고 있었다. 법안은 말없이 손으로 그것을 가리켰다. 대중 가운데 두 사람이 일어나 다가가서 그것을 걷어올렸다. 법안은 이를 지켜보고나서 말했다. "한 사람은 알아들었는데 다른 한 사람은 전혀 알아듣지 못했다." 두 사람의 행동은 똑같은 것이었다. 두 사람 다 스승의 손이 발을 가리키는 것을 보았고, 두 사람 다 자리에서 일어났다. 두 사람 다 발쪽으로 다가갔고, 두 사람 다 발을 걷어올렸다. 우리는 둘의 차이를 확인할 아무런 표지를 갖고 있지 못하다. 그렇다. 외적으로는 그의 내면의 선악과 동기의 진위를 파악할 수 없다. 거기까지는 이해가 된다. 선은 한걸음 더 나아간다. 내면의 선악과 동기라는 내적 징표조차 선(禪)을 읽는 잣대가 될 수 없다. 우리는 심리적 정서적 정신적으로도 혼란된 기제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속고 있다!

조주도 차를 따라 마시고, 나도 출근하면 차를 끓인다. 그럼에도 조주는 안한한데 나는 이리도 어지럽다. 그와 나는 무엇이 다른가. 조주의 어록과 문집에 실린 예피소드에서 나는 한없는 선망과 외경을 품는다. "조주는 그의 의식과 무의식 사이에 아무런 갈등과 괴리가 없구나. 그는 내적으로 헉헉대지 않고 외적으로 허둥대지 않는다. 그는 세상에 득실이 없다는 것, 그 궁극의 진실을 체현하며 살고 있구나." 그러나 여기에 함정이 있다. 나는 조주의 내적 경지를 그저 투사(project)하고 있을 뿐이다. 내 내면의 풍경에 대한 불만과 동경으로 하여 오염되고 뒤틀린 프리즘으로 말이다. 조주의 말이든, 그로 연상되는 경지든, 내가 헤아리고 판단하려 든다면 벌써 어긋나기 시작한다. 깨달은 자의 내면은 오직 깨달은 자만이 교감할 수 있다! 다시 말하지만 우리는 진리를 행동주의적 표지나 심리적 정서적 공감을 통해 판단할 수 없다. 이 취지를 일러주는 전형적 공안을 앞에서 본 적이 있다. 제 14강 조주의 혓바닥이 그것이다.

*조주가 어느 암자를 방문하여 물었다. "안에 누가 계신가." 암자의 주인이 (삐끔 머리를 내밀더니 말없이) 주먹을 들어 보였다. 조주는 "물이 얕아서 배를 댈 수 없구만" 하고 가버렸다. 그 후 또 다른 암자를 방문하여 물었다. "안에 누가 계신가." 그 암자의 주인도 (말없이) 주먹을 들 뿐이었다. 조주는 "들었다 놓으며, 죽이고 살림이 자재(自在)로운 사람일세" 하고는 큰절을 올렸다.

*나 혜개가 말한다. 주먹을 들기는 매일반인데, 어째서 하나는 인정하고 하나는 인정하지 않았나. 어디 말해보라. 눈을 속인 자리는 어디인가. 여기서 한 소식을 얻는다면, 조주의 혓바닥에 뼈가 없다는 것을, 그리하여 일으켜세우고 거꾸러뜨림에 걸림이 없음을 알 것이다. 그렇더라도 어쩔 것이냐. 실은 조주가 그들에게 시험을 당했으니. 만일 두 암자 주인에 우열이 있다고 하면 눈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것이며, 우열이 없다고 해도 또한 눈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것이다.

*송하여 가로되, 눈은 유성과 같고, 움직임은 번개가 번쩍이듯. 사람 죽이는 칼이 어느새 사람 살리는 검. 〈한국정신문화연구원 교수〉

"눈을 속인 자리는 어디인가"

깨달은 자의 내면 오직 깨달은 자만 교감

일상을 어떻게 보아야 할까



▲미국 출생
▲태국, 인도, 미얀마에서 6년간 두타행
▲1963년 美 다트마우트대학 임상심리학 박사학위
▲1965년 아잔차등 남방선사 지도로 수행
▲1974년 美 명상수도원 개원
▲현재 美 나로파연구소에서 위빠싸나 연구 · 수행.
저서로는 〈남방의 선사들〉 〈마음 속의길〉 등 다수.

본지는 태국의 고승 아잔차 스님의 제자로 널리 알려진 미국의 잭 콘필드박사가 1995년 미국에서 출판한 〈재가불자를 위한 팔정도〉를 요약해 연재한다. 콘필드는 깨달음은 경전에서 찾아지는 것이 아니고 눈 · 귀 · 코 · 혀 · 몸, 마음의 작용에 있으며, 이러한 공부를 직접 실천에 옮겨 마음챙김을 계발할 것을 강조했다. 위빠싸나 수행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는 요즈음 관념적인 팔정도가 아니라 직접 생활속에서 실천으로 다가오는 팔정도의 의미를 새롭게 새기는 계기가 될 것이다.

잭 · 콘필드가 쓰는

재가자를 위한 팔정도 1

정견 ①

안이비설신의 작용서 깨달음 발견

"사물에 집착하면 고통 따르네"

명상은 소박하고 단도직입적인 수행이다. 사람들은 대개 명상센터에서 명상법을 배우고 20여분간의 좌선으로 수행을 처음 시작해 10여일간의 단기수행으로 발전해 나아간다. 자신을 지나치게 과신하는 사람들 중에는 "무조건 시작해 보는 거야"라며 3개월간의 장기수행에 주저없이 참가하는 사람도 더러 있다. 그러나 초심자들은 하루 정도의 좌선을 하고선 명상이란게 결코 쉬운 것이 아니라며 중도 탈락하는 경우도 꽤 있다. 그들은 명상에 쏟았던 관심만큼 수행에서도 '몰입과 즐거움'을 얻어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부처님이 어떤 나라를 방문했을 때, 한 남자가 "매우 뛰어나 보이는 당신은 누구입니까"라고 묻자 부처님은 "나는 깨달았다"라며 지나친 일화는 수행자의 자세와 불교의 진리를 보여주기에 충분하다. 우리는 영적인 사람 혹은 불자가 되기 위해 수행을 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의 수행은 내면에 숨겨있는 깨달음의 능력을 스스로 보기 위한 몸부림이 되어야 한다. 지금 바로 여기 우리 몸과 마음에서 부처님이 설한 고(苦)와 해탈의 진리를 찾아낼 수 있다는 것이다.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불법은 우리가 걸어다니고 일하는 장소에서 깨달을 수 있는 보편성(普遍性)을 가지고 있다.

신심(信心)이 돈독한 어떤 사람이 큰 물난리를 당했다. 비가 얼마나 내렸던지 빗물이 금세 2층까지 차올라 그는 지붕 위로 피신했다. 이때 보트 한 척이 지붕처마로 다가왔다. 사공은 "배를 타시오"라고 소리쳤다. 그는 "신(神)이 도울 것입니다"라며 사양했다. 잠시후 빗물이 그의 입까지 차올라 숨쉬기 조차 힘겨워졌다. 이번에는 헬기에서 구명로프를 내렸지만 "신이 도울 것입니다"라며 거절했다. 결국 그는 죽어서 신(神)을 만나, "당신을 믿고 의지했는데, 어디에 계셨습니까?"라고 물었다. 신은 "보트와 헬기를 보내지 않았더냐"라며 그를 달랬다.

부처님의 깨달음은 눈부신 광휘로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는다. 불법은 수행자 머릿 속의 환상과 추억의 경계에 있지 않고 우리의 일상 속에 있는 것이다.

일상 속에서 수행자가 마음을 챙길수 있도록 부처님이 가르친 지혜가 바로 팔정도(八正道)이다. 따라서 팔정도는 경전이나 책에서 찾아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감각기관인 눈, 귀, 코, 혀, 몸, 마음의 작용에서 발견될 수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일상을 어떻게 보아야 할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사물에 집착하고 즐거움을 얻을 때, 그만큼의 고통도 연이어 따라온다.

번역 정리=오증욱 기자

과학속의 불교 불교속의 과학 150

불교와 수학

45

공리

김 용 운



그림 · 최주현

계약수학의 논리한계 · 모순 알아야

'실유불성' 철학세계 위기극복 해답

이번 IMF 사태를 통해 우리는 서구인의 계약(契約)사상을 새삼 통감하게 되었다. 이스라엘은 반사막지대이며 그 주변에는 가혹한 사막이 둘러싸여 있다. 그 곳에서는 자급자족이란 생각할 수 없으며 오직 교역만으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다. 사막의 대상에 상징되는 유목민의 생활은 남은 농산물을 내다 파는 농경사회의 장사와는 판이하다. 일단 약속(계약)이 성립하면 며칠간이나 죽음을 무릅쓰고라도 사막을 가로질러야 한다. 사막지대의 계약은 생명이며 절대적인 생활의 지혜이며 심지어 결혼식에서도 이혼을 했을 때 돈을 얼마씩 나누어 갖는다는 것까지도 계약할 정도이다.

종교를 영어로는 Rrligion=re-ligion, 즉 결합을 뜻하고 있다. 원죄를 범함으로써 신의 나라에서 추방된 아담과 이브의 자손인 인간이 신(神)과 계약을 맺고 서로 결합된다는 뜻이다. 그러므로 신을 중심으로 묶여진 집단 내의 구성원과 다른 사람과의 신뢰관계에 있어서 큰 차이가 발생하고 배타성(排他性)이 나타난다.

모두가 받아들일 수 있는 전제를 정해두고 공리라고 부른다. 공리는 수학자 사회의 계약이다. 일단 정해진 공리(계약)는 절대적이며 그 일부만이라도 무시하게 되면 수학의 탑은 무너지고 만다.

지난 호에서는 0의 발견으로 세계수학이 하나로 통일되어 갔음을 설명했다. 그러나 그것을 발견한 인도수학은 세계 수학의 주류가 될 수 없었다. 공리라는 수학상의 계약이 없었으므로 전세계에 수학 공통의 장을 제공할 수가 없었기 때문이다. 어디에나 부처(진리)가 있다는 실유불성(悉有佛性)의 입장에서는 공리를 생각할 수 없다.

수학이란 현상을 효과적으로 생각한다는 현실적인 목적이 있다. 이때 '생각하는 방법은 무엇이냐'는 물음이 나온다. '생각의 수단은 언어'이다. 언어를 효과적으로 구사하기 위해 형식적인 논리가 구축된다. 20세기 최대의 수학자 B.러셀은 '수학이란 논리이다. 진리도 거짓도 아닌 논리의 형식이며, 다른 과학에 이용되건 말건 아무 상관하지 않는다'고까지 말하고 있다. 사람이 정한 공리를 절대화 한 논리의 숙명이다. 이쯤되면 수학은 언어의 장난에 불과하다는 비난 소리가 나올만도 하다.

불교, 특히 유식론에서는 사유(思惟), 생각하는 것이 언어의 허구성에 기반을 두고 나타나는 것이며, 사유를 초월한 곳에 대각(大覺)의 경지가 있다는 입장이다. 공리로써는 절대 진리에 도달할 수 없음을 말하는 것이다. 유식론은 언어에 얽힌 인간의 습성을 낱낱이 파헤치고 그 허구성을 알아차림으로써 창조와 옳은 사고의 뜻을 알게 된다고 한다. 특히 불교 철학에는 연기(緣起)와 같은, 서구의 논리에는 동떨어진 개념이 있다. 공리수학만이 세계수학이며 모든 인간의 사유, 특히 논리 형식은 그 체계에 포함된다는 것은 필연적으로 모순을 갖게 된다.

우리는 국제 경제의 틀 속에서 경제 경쟁을 벌여야 한다. 그렇다면 그 논리의 한계와 모순을 충분히 알아차려야 한다. 그 사실은 곧 세계 경제와 가혹한 계약(언어), 수학의 논리로 전개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 속에 모순이 있든 없든 그 논리는 우리를 구속한다. 이제 우리는 IMF 사태로 새삼 서구논리의 실상을 피부에 느끼기 시작한 것 같다.

수마허는 불교적 경제학을 주장했다('작은 것이 아름답다'). 연기사상에 입각한 경제학이 인류의 위기를 구한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그의 목소리는 많은 동조를 얻지 못했었다. 하지만 뜻밖에도 최근, 특히 90년대 이후 실유불성(悉有佛性)의 철학을 긍정하는 복잡성(카오스)의 수학이 등장했다. 그것은 오히려 진리의 추구보다는 현실을 보다 정확하게 설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공리적 수학을 계약의 수학(서구수학)이라 한다면 복잡성의 수학은 불교적 수학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서구 경제학의 주류에 맞선 슈마허 경제학의 대비와 같은 것이라 하겠다.

〈한양대 수학과 명예교수〉

불법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살아있는 法語, 살아있는 佛教史料!

'97년판 현대불교신문

합본집 발간

이천만 불자의 참대변지, 수행의 길잡이인 「현대불교신문」이 '97년 한해를 총집결한 합본 '97년판을 발간합니다.



'97년 합본집

● 합본집('97년판) : 제109호(1997년. 1.1)-제156호(1997.12.24)
● 가 격 : 60,000원(발송비 별도)
● 입금계좌 : 국민은행 023-25-0007-617 현대불교신문사
● 구입신청 : 현대불교신문사 경영관리국

현대불교신문사 전화 : (代) 02)737-8881 팩스 : 02)737-0697

순수한 경면주사로 쓴
운장법사의 생필 (眞本)
'五色광채'를 발하는 신비한
반야심경



운장법사의 禪筆(眞品)
佛子體의 神秘를 최초로 공개



금강경, 법구, 다라니, 각종 불서, 병풍

※ 집통요원 배우는 사경예술 실습 수강생 모집, 사경은체와 용이 있고 법과 대가 있습니다(통신도 가능)
반야심경, 법화경 모든 경전 서예 수강생 특별지도

사업실패, 가정불화, 자녀문제, 부부갈등 등 답답하고 고민하시는 분 서슴없이 전화하세요!

생명의 전화 : ☎ (02)242-0331,242-0255 (야)216-0307

●주문 신청방법 국민은행 042-21-0582-499 조정순
※ 전화로 주문하시면 곧 보내 드립니다.

韓國佛教文化藝術院
雲藏法師禪筆研究會

부·처·님·의·가·르·침·을·실·천·하·는·참·교·육·의·장

선우강좌 개강안내

'시단법인 우리는 선우'에서는 부처님 가르침의 오체와 그 사회적 응용을 바르게 이해하고 실천하는 재가불자들을 길러내기 위해 선우강좌를 개설. 제2기 개강을 앞두고 있습니다. 신심→분심→원력→실천으로 이어지는 짐불자상을 정립하고 21세기를 이끌어갈 재가불자들을 양성하는 교육의 산실이 되어줄 선우강좌에 사부대중 여러분들의 많은 동참을 바랍니다.

1. 강좌일정안내

기 간	강 사	제 목
Ⅰ. 부처님의 생애		
제 1주(3/16)	도법스님	부처님의 생애와 우리의 삶
Ⅱ. 기 초 교 리		
제 2주(3/23)	성열스님	근본불교 Ⅰ
제 3주(3/30)	성열스님	근본불교 Ⅱ
Ⅲ. 대 승 불 교		
제 4주(4/6)	김성철교수	空사상의 反논리
※ 4/11(토) ~ 4/12(일) 수 련 회 (장성 백양사)		
제 5주(4/20)	본각스님	화엄경에 나타난 생활윤리
제 6주(4/27)	이병욱 님	다시 보는 법화경
※ 특 강		
제 7주(5/4)	법륜스님	통일운동과 불교인의 실천윤리
※ 5/10(일) 장애인 나들이 행사(장충단 공원)		
제 8주(5/11)	신영훈 님	한국의 건축문화 이해-불국사
제 9주(5/18)	고 은 님	불교문학 가까이 하기
제10주(5/25)	보각 스님	나누는 삶의 행복
제11주(6/1)	대화 스님	동사섭-마음알기 · 나누기 · 행하기
제12주(6/8)	김용운교수	불교와 카오스 이론
제13주(6/15)	이제열법사	불교의 수행체계
제14주(6/22)	윤원철교수	불교-철학적 접근과 종교적 이해
제15주(6/29)	장 원 교수	내 마음이 만드는 청정국토

2. 등 록 안 내

◐ 기 간 : 3월 16일 ~ 6월 29일(총 15주 강의)
◐ 때 : 매주 월요일 오후 7 ~ 9시
◐ 장 소 : (사)우리는 선우 내 선우법당
◐ 인 원 : 정규반 60명, 통신반 30명
◐ 등록금 : 8만원(통신반 9만원, 대학생 4만원)
◐ 문의처 :278-8672(대표)

사단법인 우리는 선우 공동대표 남지심 · 박광서
(100-392)서울시 중구 장충동2가 188-6번지 뉴장충빌딩 3층
전화 278-8672(대표) 전송 : 278-8675

시방세계

불사의 현장
불·교·조·각·원
부처님 조성, 천불조성, 목탱화, 개금불사, 천불강설, 내무장엄불사, 불교목공예품
서울 종로구 견지동 81번지 2층 (조계사 건너편)
TEL : (02)738-8447~8


◇예불에 참여할 수 없는 원생을 제외한 원생 1백여명은 불편한 몸에도 불구하고 매일 오후 5시45분 예불을 봉행한다.


◇매일 가족을 목욕시키는 것은 빠뜨릴 수 없는 일. 스님들은 일손이 부족해 더욱 바빠졌다.


◇거동이 불편한 무의탁노인들은 더욱 외로움을 탄다. 두명의 간호사는 건강도 돌보고 다정한 말벗이 된다.


◇송무부장 묘전스님과 함께 썰매타기를 즐기는 원생들.

"소쩍새마을 새 둥지 틀어요"

소쩍새마을 횡성군 안흥면에 종합복지타운 9월착공
19만평 부지에 장애인복지센터·병원·학교 등 계획
382억여원 예산 복지불사…"자비손길 필요해요"
정부보조금 한푼 없어…IMF영향 후원금등 줄어

진종일 참 흘리는 천상바라기의 꿈/ 관세음보살 시현으로 읽어 내리지 못한다/ 머리에 괸 곰팡이 왕관처럼 두르고/ 반쯤 쏟으며 받아먹는 끼니때의 하얀 밥알/ 한 톨의 쌀만도 못한 왕족의 후예로/ 그렇게 한 백년 누워 와불로 멈추어라/ 아니예요, 앉고 싶어요, 뛰고 싶어요/ 이 땅의 자식으로 크고 싶어요.(김숙희 시인의 '소쩍새마을2-왕자와 공주' 중에서)

소쩍새가 새로운 둥지를 틀기 시작했다.

승가원(이사장 지하스님)이 소쩍새마을(원장 보각스님) 건립·이전불사를 가시화 하기 시작했다. 승가원은 지난 2월5일 횡성군 안흥면 농지위원들로부터 '승가원이 종합복지타운 건설 부지를 매입해도 좋다'는 내용의 허가서를 받아냄으로써 종합복지타운 건립불사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소쩍새마을(원장 보각)은 부지매입과 동시에 3월말부터 종합복지타운 건설 예정지인 강원도 횡성군 안흥면 송한리 일대 부지 19만평 중 4만여평의 부지에 재활농장을 운영하기로 했다.

이제 서막을 연 종합복지타운 건립불사는 불자들의 힘을 모아 법적으로도 하자가 없고, 장애인·고아·무의탁 노인 등 원생들에게도 편안한 중지를 마련하기 위해 중앙승가대학교 부설 승가원이 소쩍새마을을 인수한 95년 7월부터 추진되었다. 복지타운 안에 재활병원과 특수학교, 양로원 등을 고루 갖춰 원생들을 불편함이 없이 돌보겠다는 생각에서다.

지난 95년 7월 가짜승 일력사건 등 숱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소쩍새마을은 이제 새로운 비상을 꿈꾸고 있다. 가족들도 처음 91명보다 세 배 이상 늘어났고(현재 291명) 시설도 나아졌다. 하지만 지난해 불어닥친 IMF한파로 인한 20% 정도의 후원금(후원자는 2만여명) 감축과 자원봉사자 감소, 안원에 비해 좁은 시설 등이 새로운 난제가 되고 있다.

96년 하반기에 증축공사를 하고 1백여명의 원생이 새로 입소해 지난해 초에는 2백여명의 가족이 포화상태를 이루었다. 올해 초까지 다시 1백여명이 늘어났다. 한달에 평균 7~8명의 장애인들이 마을에 입소한 셈이다.

전국 장애인의 수는 대략 450만명. 오갈 데 없는 노인과 아이들은 그 수를 헤아리기조차 어렵다. 때문에 현재 접수된 입소 희망자가 6백여명에 이를 정도다. 소쩍새마을은 내년에는 식구가 1천여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인원이 늘다 보니 많은 손길을 필요로 하는 원생관리에도 어려움이 많다. 매일 가족들을 목욕시키고 하루에도 몇번씩 갈아입는 옷을 세탁하는 일손이 부족해 스님(5명)들과 보육사(8명)들은 눈코 뜰 새가 없다. 특히 단체후원자의 발길이 뜸해져 대가족을 먹고 입히고 치료하는 일도 예전 같지 않다. 쌀·약값, 치료비가 2배, 이들을 돌봐야 하는 손길도 2배가 필요하지만 오히려 후원이 줄었다. 명색이 복지법인이지만 조립식 가건물(처음엔 비닐천막집)이라 시설인가를 받지 못해(치악산 국립공원경내라 건축허가가 안남) 정부보조금은 한푼도 들어오지 않는다. 상임법사인 한북스님은 "부식·교육·연료비가 엄청나게 폭등했지만 경제난으로 도움을 받기도 쉽지 않다. 그래서 직원들은 생활비를 조금이라도 아끼려고 '한 등 끄기 운동'과 같은 작은 실천을 시작했다"고 말했다.


◇19만평 대지에 3천여명의 가족이 함께 살게되는 새로운 소쩍새마을의 구상도. ①대웅전 ②중앙본관(병원, 공동이용시설) ③별관 ④장애인부부주택 ⑤특수학교 ⑥자원봉사자센터 ⑦직원숙소 ⑧연수원·체육관 ⑨재활작업장 ⑩재활농장 ⑪장애인복지센터 ⑫노인요양원

소쩍새마을 이전불사는 이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승가원이 지난해 10월15일 발표한 종합복지타운 건설 계획에 따르면 19만7백49평의 부지에 전체 3백 82억 6천만원의 예산이 투자되는 대작불사를 통해 불교복지의 새 장이 열리게 된다.

올 9월 토목공사에 착수, 우선 2천여평에 법당 연수원 생활관 등을 짓는다. 2000년까지 65억6천만원의 예산을 들여 본관과 직원숙소 재활작업장 등을 건립하고 2001년까지 대웅전 장애인부부(현재 4쌍)주택 특수학교 등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또 2003년까지 1백26억원을 들여 종합복지타운의 핵심이 될 장애인과 노인(스님 포함)요양시설을 마무리하는 등 2005년까지 자원봉사자센터 및 연수·체육관시설을 모두 갖추기로 했다. 종합복지타운의 재원조달은 전체 투자예산 3백82억6천만원 가운데 20%는 승가원에서 부담하고 50%는 정부조달, 나머지 30%는 이벤트행사 수익금과 기부금 등으로 충당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서는 불자들의 따뜻한 마음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물론이다.

그간 소쩍새마을 사람들은 이곳을 수용(收容)이 아니라 재활과 자립과 독립을 위한 터전으로 만들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스님과 직원 등 21명의 엄마·아빠·형님·누나는 원생들과 희로애락을 함께 하는 한 가족이 되어 다음을 웃음꽃이 피는 동산으로 일궈왔다.

소쩍새마을 식구들이 내일을 밝고 환하게 살도록 하는 것은 함께 사는 이웃들의 몫이 되어야 한다. 끌어안고 간직하기는 쉽지만 내놓고 나누는 일은 그리 쉽지 않다. 그러나 소쩍새마을 식구들을 보면 '내놓고 나눌 수 있는 것'이 누구에게나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매월 둘째주 화요일이면 어김없이 소쩍새마을을 찾아 원생들에게 자장면을 만들어주는 원주 태평양반점 지배인 김근배씨는 "돈과 물건이 없으면 말이나 마음을 나눌 수 있고, 땀과 노력을 나눠도 된다"며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작은 관심과 애정"이라고 강조한다.

자비문중에 '무자비'한 사람이 많다는 소리를 들어서는 안되겠다. "중생이 아프므로 내가 아프다"는 유마거사의 법문처럼 분별심과 편견을 떨쳐 나와 이웃과 사회는 둘이 아님을 깨닫는 것이 불제자의 의무가 아닐까. 이런 깨달음에서 나오는 참된 보살행이야말로 무주상보시(無住相布施)의 실현이요, '깨달음과 실천'의 조화가 아닐까.

"가장 업이 많지만 가장 거짓없는 사람들이 모여사는 곳"이란 총무과장 소희스님의 말처럼 소쩍새마을에는 그래서 부처님·보살로 가득하다. 탁한 물과 진흙에서 연꽃이 더 곱고 아름답게 피듯이.

김재경 기자

소쩍새마을 원장 보각스님



"자비를 실천하지 않는 것이 무자비 아닙니까. 10년 이내에 소쩍새마을을 3천명이 함께 사는 종합복지타운으로 만들겠다는 원을 부처님 앞에서 세웠습니다. '스님 양로원'도 지을 겁니다. 마음을 모아 주세요!"

소쩍새마을 원장 보각스님(중앙승가대학교 불교사회복지연구소장)의 소원은 "소쩍새마을을 3천명이 함께 살 수 있는 큰 집으로 옮기고 사랑과 나눔과 자비를 세상 사람 모두가 깨닫게 하고 싶은 것"이다.

스님은 방문자들로부터 가끔씩 듣는 "이젠 딴 데를 도와야겠네요"라는 말을 가장 싫어한다. "소쩍새마을이 어느 정도 먹고 살만하니까 더 어려운 시설을 도와야 한다는 불자들의 소박한 말이 이해는 가지만 이는 잘못된 판단"이란 것.

"양적 팽창을 발전으로 보는 시각이 문제입니다. 프로그램 등 그 내용을 살펴야 하고 시설이 좋아질 수록 비용이 더 든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이제는 값싼 동정심을 유발하는 복지사업이나 이에 관심을 갖는 후원자들의 시각이 바뀔 때입니다."

스님은 또 "현대적인 복지시설은 이제 인간관계의 단절에서 오는 서구적인 시설병을 경계해야 한다"고 말한다. "복지시설이 규모면에서 커지더라도 소그룹화해 '가족' 개념을 심어줘야 한다"는 것이 스님의 복지관이다.

"자비 실천하지 않으면 무자비"

● **전화**: 사회복지법인 승가원(02-928-0750)으로 전화하면 지로용지를 보내준다.

● **지로**: 지로용지에 주소를 정확히 기입, 은행·우체국에 내면 저절로 후원회에 가입된다. 지로용지가 없으면 은행·우체국에 있는 '계좌(입금)이체통지서'에 지로번호(7625637)와 '보내는 사람'을 기록해서 은행에 내면 된다.

소쩍새를 돕는 방법

● **자동이체**: 매달 은행에 납부하기가 번거로우면 거래은행에 통장과 도장을 갖고 가 '자동이체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예금주는 '사회복지법인 승가원'이며, 우체국은 자동이체가 되지 않는다.

● **PCS '부다피아 포교기금' 신청**: 소쩍새마을 등 소외된 이웃을 돕기 위한 '부다피아 포교기금' 마련을 위해 현대불교신문(02-737-8881)에서 휴대전화 PCS016 가입신청을 받고 있다. 가입신청을 하게 되면 월 사용료의 5%가 사용자의 추가부담 없이 소쩍새마을에 후원금으로 들어가게 된다. IMF한파로 후원금이 크게 줄고 있는 상황에서 가장 효과적인 후원방법이기도 하다.


◇홍성철 특수교사가 손발이 불편해 머리에 타이핑 장치를 한 원생에게 컴퓨터를 가르치고 있다.

인터넷으로도 소쩍새마을 방문

부다피아에 '홈페이지'

소쩍새마을을 인터넷으로도 방문할 수 있다. 본사가 개설한 '소쩍새마을 홈페이지'는 소쩍새마을의 변화된 모습과 미래의 계획을 국민들에게 알리고 관심을 모으기 위해 제작됐다. 소쩍새마을 상임법사 한북스님이 찍은 인상깊은 사진과 훈훈한 내용의 글로 채워져 있다.

메인 메뉴는 8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아침 체조에서부터 공양, 간식, 운동, 목욕, 취침 등 소쩍새 가족의 하루를 담은 '소쩍새 가족의 삶' △보육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특수교사들의 도움으로 특수학교, 병원치료, 재활작업장, 재활농장에서 새 삶을 추구하는 가족들의 노력을 소개한 '소쩍새 가족의 재활' △중앙승가대 사회복지학과 스님들을 비롯 제과점·중국집 아저씨, 군인, 미용사, 목욕·방청소를 도와주는 자원봉사자를 소개하면서 새로운 자원봉사자를 찾는 '소쩍새를 돕는 사람들' △황성 종합복지타운의 이모저모를 소개한 '소쩍새마을의 미래' △원장스님 인사 △후원금 보내는 방법 △각종 교통편을 그림으로 설명한 '소쩍새 마을을 찾아서' △소쩍새 앨범 등으로 꾸며져 있다.

주소=http://www.buddhapia.com/mem/sojukbird/

★ '시방세계'는 불자들의 관심과 시선이 가는 법계소식을 집중 조명합니다. 독자 여러분의 제보·문의를 기다립니다. 전화 (02)722-4162 팩스 (02)722-0698

다시 푸는 경서

법구경

도행품(道行品) ③

慧解是意 혜해시의
可修經戒 가수경계
勤行度世 근행도세
一切除苦 일체제고

지혜로운 이 이런 뜻 잘 알아
도와 계율을 즐겨 닦고
부지런히 행하여 세속을 건너
모든 괴로움을 없애버린다

遠離諸淵 원리제연
如風超雲 여풍각운
已滅思想 이멸사상
是爲知見 시위지견

온갖 깊은 수렁 멀리 떠나라
바람이 구름을 거둬 가듯이
이미 여러 생각 멸하였다면
이것이 바른 지견이 된다

智爲世長 지위세장
㤰樂無爲 염락무위
知受正教 지수정교
生死得盡 생사득진

지혜가 세상에서 으뜸가는 것
세상 모든 짓 실체 없는 것이니
이를 아는 것 혜견이라
세상의 괴로움 아주 싫어해
이 도를 따라 없애버린다

吾語汝法 오어여법
愛箭爲射 애전위사
宜以自勖 의이자욱
受如來言 수여래언

내 그대에게 법을 말하노니
갈애의 화살 쏘아버리고
마땅히 스스로 힘써서
여래의 말씀을 받잡아야 한다

吾爲都以滅 오위도이멸
往來生死盡 왕래생사진
非一情以解 비일정이해
所演爲道眼 소연위도안

나는 모든 것 멸함으로써
가고 옴 나고 죽음 다하였도다
한 뜻으로 깨달은게 아니니
말하자면 도안으로 이룬 것

駛流漬于海 사류주우해
潘水漾疾滿 반수양질만
故爲智者說 고위지자설

세상 모든 짓 실체 없는 것이니
이를 아는 것 혜견이라
세상의 괴로움 아주 싫어해
이 도를 따라 없애버린다

지혜로운 이 道와 계율 즐겨 닦아
세속을 건너 모든 괴로움 없앤다

마음 담박하여 함이 없음 즐기면
바른 가르침 받을 줄 알아서
나고 죽는 일 다하게 된다

可趣服甘露 가취복감로

빨리 흘러 바다로 들어가면
출렁대는 물 어느 새 가득차니
고로 지혜로운 이를 위해 말한다
나아가 감로법으로 배를 채워라

知衆行空 지중행공
是爲慧見 시위혜견
罷厭世苦 파염세고
從是道除 종시도제

세상의 모든 짓 텅 빈줄 알면
이를 혜견이라 하느니
세상의 괴로움을 아주 싫어해
이 도를 따라 없애버린다

前未聞法輪 전미문법륜
轉爲哀衆生 전위애중생
於是奉事者 어시봉사자
禪之度三有 예지도삼유

일찍이 듣지못한 법륜 굴림은
중생을 애처롭게 여김이라
이에 부처를 받들어 모시는 이
그에게 예배하고 삼계를 건넌다

知衆行苦 지중행고
是爲慧見 시위혜견
罷厭世苦 파염세고
從是道除 종시도제

세상 모든 짓 괴로움인줄 알면
이를 혜견이라 하느니
세상의 괴로움 아주 싫어해
이 도를 따라 없애버린다

三念可念善 삼념가념선
三亦難不善 삼역난불선
從念而有行 종념이유행
滅之爲正斷 멸지위정단

세가지 선정이라야 바른 공부다
그 셋이 어렵다면 바르지 않다
생각을 좇아서 행업이 있나니
생각끊고 번뇌 없애야 바른 끊음이 된다

衆行非身 중행비신
是爲慧見 시위혜견
罷厭世苦 파염세고
從是道除 종시도제

龍 眼

큰스님 수행한담

"맡은 일 즐겁게 하다보면

선산스님 〈강화 선원사 조실〉



누렇게 빛바랜 창호지 만큼 세월의 풍상을 지닌 문을 열고 들어가자 종이냄새와 묵향이 진동했다. 무엇이 경계인지도 모르는 속인이 문지방을 넘어서곤 한참동안 두리번거리자, 고개를 드신 선산스님은 "거기 서 있지 말고 이리 와 차 한잔 들게나!"라는 말로 방문자를 맞았다.

60여년간 부처님 그늘에서 살고 있지만 선방 보다는 단칸방 생활을 더 좋아하는 노승입니다. 여지껏 해온 것이라곤 "마음을 닦는데는 오로지 달마조사를 그리는 것이 가장 좋다"는 은사스님의 말에 의지해온 것 밖에 없어요.

불가에 들어온 것이 1931년, 열 여덟 나이였는데 무엇을 크게 이루겠다는 결심을 품고 찾아온 것은 아니었어요. 당시 한창 때라는 나이에 걸맞지 않게 몹시 허약해서 산사를 찾아 1년 정도 휴양하며 심신을 키우라는 어머님의 당부가 있었어요. 고향에서 가까운 부여 무량사를 찾아 갔습니다.

무량사에는 오균스님이 주석하고 계셨어요. 이 분은 만공스님께 공부하셨던 선승이셨는데, 인근 사찰에서 선법문이 열릴 때마다 오균스님을 많이 모셔갔어요. 내가 지금껏 아무 후회없이 달마조사만을 그리며 절밥을 먹고 있는 것은 따지고 보면 모두 오균스님과의 인연에서 비롯됐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일제시대에는 일인 관료들이 관할 사찰들을 방문, 점검하는 '초도순시'라는게 있었어요. 당시 스님들은 초도순시를 매우 곤혹스러워했어요. 산문을 들어선 일인 관료에게 스님들이 '구복(몸을 깊이 굽히는 것)' 자세를 강요당했으니까요.

내가 무량사에 있을 때 일인들이 충청남도 초도순시의 일환으로 무량사에 왔었습니다. 스님들이 모두 구복을 했는데 유일하게 오균스님만이 꼿꼿하게 서 있었죠. 그때 처음으로 선기(禪機)가 무엇인가를 확실하게 경험했고, 또 그때 스님이 되어야겠다고 결심하게 됐지요.

다음날부터 새벽예불에 참석하기 시작했어요. 꼭두 새벽에 일어나 세수하고 예불의식에 참여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지만, 예불문을 따라 열심히 동참했어요.

어느날 오균스님이 나를 부르시더니 "마음병을 고치러 왔으면 병을 고쳐야지 무슨 옅불이냐"며 "달마조사를 그리는 필선(筆禪)으로 마음을 먼저 닦으라"고 엄한 분부를 내리셨어요. 당연히 새벽예불이 열리는 법당 근처에는 갈 수 없었고, 오직 예불이 시작되는 꼭두 새벽부터 하루종일 달마조사 그리기를 1년 남짓 했어요. 지금 곰곰이 생각해보면 은사스님의 엄명은 선기만을 탐해 스님이 되겠다는 그릇된 내 생각을 바로잡아주고자 했던 것 같습니다.

달마조사는 "망상과 욕심은 중생의 다른 이름들이다. 그대가 망상에 사로잡혀 있을 때 그대는 이쪽 언덕에 있다. 그대가 깨어 있을 때 그대는 저쪽 언덕에 있다… 그러나 한번 그대가 자신의 마음이 비어 있는 것을 알고 어떤 겉모습에도 눈길을 주지 않을 때, 그대는 망상과 깨어 있음 모두를 초월한다"고 말했습니다.

'망상과 욕심으로부터 자신을 자유롭게 하는 것이 해탈'이라는 달마조사의 일갈이 바로 오균스님이 내게 가르치려고 했던 것이죠.

나는 평생 달마조사를 그렸습니다. 수천 수만장을 그렸지요. 그러나 그림이 아니라 한 줄의 선, 하나의 붓놀림으로 달마스님의 가르침을 새기고 또 새기는 일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달마조사의 가르침은 궁극의 경지이며, 오균스님이 내게 그리라고 엄명한 달마조사는 그 경지에 이르게 하는 방편이었던 것입니다.

나는 선기를 지닌 선승이 되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달마조사를 그리는 어눌한 붓놀림 때문만은 아닙니다. 아직도 집착에서 자유로워야 한다는 생각을 저버리지 못했기 때문이죠. 그런 생각을 한다는 자체가 수행이 부족하다는 반증 아니겠어요.

내게 1년 동안 달마를 그리게 한 은사스님은 나의 필선을 지켜보시고는 '선산(禪山)'이라는 법명을 열반하기 바로 직전에 내려주셨습니다.. 당연히 수계의식은 오균스님의 위패를 모시고 할 수 밖에 없었어요. 무량사 도반스님들이 나를 '위패상좌'라고 불렀던 이유도 은사스님의 위패 앞에서 머리를 깎았기 때문입니다.

은사스님의 열반 후 나는 마곡사 선방을 찾아들어가 정진을 시작했는데 필선수행과 달리 더디기만 했어요. 망상이 끊이질 않았어요. 내가 상심해 있을 때 나를 위로하던 선방 수좌들 말씀이 생생해요. "면벽 공부가 쉽지 않네. 그러나 어디 가서도 여기서 했던 반만 해도 중노릇 못한다는 말은 듣지 않을걸세. 몸에 익은 필선을 계속 하게나."

지금 학인들은 출가한 절에서 돈도 주고 그러지만 당시는 먹을 것조차 변변치 않았습니다. 아침에는 거의 솔가루에 된장을 넣어 쑨 죽을 먹었지요. 학인들 중에는 너무 배가 고파서 도망가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해방된 다음해 나는 마곡사를 떠나 서울 돈암동에 절을 개원했어요. 당시 돈암동은 아주 못사는 달동네였습니다.. 이곳에 살고 있는 대부분의 주민들은 일자리조차 없었고, 그나마 일자리가 있는 사람들도 저녁에 귀가할 때면 어김없이 연탄 2장, 쌀 한 봉지를 들고 다녔어요. 하루종일 일해봐야 그날 저녁과 다음날 아침을 겨우 해결할 수 있었던 것이죠.

나는 부처님 가르침을 말로 전하는 것보다는 달마조사를 그리듯이 실천으로 보여주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먼저 법당을 찾아온 신도들 중에서 직업이 없는 사람들을 데리고 도배일을 시작했어요.

약력
- 1923년 충남 부여 生
- 1931년 오균스님을 은사로 무량사에서 득도
- 1956년 만봉스님 문하에서 단청사사
- 1987년 제5회 대한민국문화예술대상전 추천작가
- 現 강화 선원사에 주석

'달마조사 그리는 筆禪으로 마음을 먼저 닦으라' 은사스님 말씀 60여년 받들어

1997년 3월 4일 화요일 주간불교

인터뷰

건강식품 '불로화정' 특허

대구 여래한방병원 시연 스님



시연스님(대구여래한방병원 원장)이 흑염자(검은깨)와 감식초 등 10여종의 첨가물을 3년간 발효시킨 강정 건강식품 '불로화정'을 상품화 하면서 특허를 출원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스님은 이미 10년전에 은사스님으로부터 전수 받아 개발한 불로화정을 그동안 비매품으로 사용해 오다 최근 상용화를 위해 특허를 출원하고 시장확보에 나섰다. 여래한방병원을 운영하며 오랜세월 불치병 치료에 전념해온 시연스님은 건강식품인 불로화정을 현대화된 의약품으로 선보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허출원자인 시연스님은 "'불로화정'은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해 모든 질병의 치료와 예방이 가능하고 암을 억제시키며 위염, 소화불량, 설사 등 위장질환의 치료에 효과가 탁월하다"고 그 효능을 설명했다.

현재 국내 감식초음료 시장이 2백50억원대의 규모로 확장돼 있는 것이 현실인점을 감안하면 사업전망은 밝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고 상업을 주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 불로화정의 판매 수익금은 경주시내 99평 대지에 건립될 5층규모의 한방병원 설립에 쓰여진다. 또 한방병원 건물내에는 무료예식장과 탁아소도 만든다는 것이 스님의 계획이다.

불로화정 (不老化精)

오랜세월동안 비전된 방법으로 만든 「不老化精」은 원래 산중 사찰의 스님들을 위하여 흑염자(검은깨)와 감식초외에 10여종의 첨가물을 3년간 발효시킨 강정 건강식품으로 40여년전 시연스님의 은사 큰스님으로부터 전수받은 것입니다.

「不老化精」은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함으로써 모든 질병의 치료와 예방이 가능하고 암을 억제시키며 특히 노인은 발에 땀이 날 정도로 건강이 호전되고 노화도 지연되며 2개월만 복용하면 다이어트를 안하고 마음껏 먹어도 비만이 안되며, 위염, 소화불량, 설사 등 모든 위장질환이 치료되고 복부에 주름살이 펴지며 음주를 많이 해도 취하지 않고 눈이 밝아지며 피로를 모르는 건강한 몸을 만들어 줍니다.

▣ 가 격 : 정가 50만원(2개월분)을
마지막분 선착순 1,700명에게
(2개월분 400,000원)할인하여 드립니다.
▣ 입금구좌 : 대구은행 김창수 : 033-07-172508

如來健康院

문의전화 : (053)655-2227

법보신문 제409호 1997년 3월 5일 수요일 12

화제

여래한방원 시연스님 '불로화정' 특허 출원



대구에서 여래건강원을 운영하며 병고에 시달리는 뭇자들을 돌봐오던 시연스님이 흑염자(검은깨)와 감식초 외에 10여가지 첨가물을 3년간 발효시킨 강정 건강식품 '불로화정'을 상품화하면서 특허를 출원해 화제이다. 스님은 "'불로화정'은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함으로서 질병의 치료와 예방에 효과가 있으며 특히 위장질환과 암을 억제하며 노인성 질환을 예방, 치유하는데 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밝혔다.

참깨서 노화억제·암예방 성분 대량추출

농진청 세계 최초로

참깨에서 노화억제 및 암예방효과가 입증된 「세사미놀」 성분을 대량 다.

세사미놀은 노화를 막고 암을 예방하는 효과가 인정돼 각광을 받고 있는 새로운 기능성 물질로 지금까

-KBS TV 6시 내고향(9월9일) 방영-



〈TV에서 성인병, 난치병 특효 설명〉

※식초 한종류 연구로 노벨의학상 3회수상하였음

큰스님 수행한담

몸에 배여 이치 트여요"



◇강화 선원사의 두평 남직한 방에서 쉼없이 '달마필선(筆禪)' 정진을 하고 있는 선산스님.

"30년동안 가난한 신도들에게 도배를 가르쳐 일을 하게 했어요 이것이 포교요 불사라는 생각에서…"

일은 몸과 마음 닦는 수행 정진의 방편

"소유하지못해 안달하는 것이 고통의 삶"

달마조사를 그리면서 배워놓았던 탱화배접 일이 도배일과 비슷해 시작하기 수월했어요. 도배일은 1985년까지, 그러니까 30년 가까이 했습니다. 처음엔 주민 7명과 함께 시작했지만, 80년에 와서는 도배공만 2백여명으로 늘었어요. 건설업에 종사하고 있던 사람들은 나를 '도배장이 중'이라고 불렀습니다..

노동도 수행자가 깨달음을 이룰 수 있는 방편중 한 가지라고 여겨야 합니다. 나는 그동안 법당을 찾아온 신도들의 시주금으로 먹고 살지 않았습니다. 노동의 가치를 스스로 깨달을 수 있고, 생계가 어려운 사람들에게 도배일을 가르치고 일자리를 마련해주는 것이 포교요, 불사라 생각하고 그대로 시행한 것입니다. '하루 일하지 않으면 하루 먹지 않는다'는 백장청규를 늘 명심했지요.

무소유를 실천하고 맑은 정신으로 살기 위해서는 일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방법이죠. 일에는 자신의 몸과 마음을 벼르는 정진이 있는 것입니다. 아파트 공사장을 전전하며 도배일을 하는 것에서도 수행의 기쁨이 깃들 수 있는 것은 벽과 천장을 도배하며 집 한칸 한칸을 완성해 나아갈 때 쏟은 땀과 집중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뭘 얻겠다고 일하는 것은 아니지만 일을 끝낸 후에 얻는 즐거움은 말 할수 없이 크지요. 하루 일하지 않으면 하루 먹지 않는다는 말도 일 자체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이기보다 일을 하며 몸과 마음을 바로 세우고 게으르지 말고 꾸준히 정진하는 수행 자세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입니다.

돈암동에서 함께 도배업을 시작했던 사람들이 자리를 잡아가고 생활이 안정되면서 나는 도배일을 미련없이 그만 두었어요. 도배업이 목적이 아니라 어려운 이들에게 생활 방편을 마련해주고 불심을 키우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선승이셨던 은사스님도 이것을 보셨으면 흡족해 하셨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나 어떤 물질에 더 이상 의존하지 않는다는 그 자체가 대자유 아니겠어요.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자유일 것입니다. 정치적인 자유와 경제적인 자유는 삿된 자유인 것이지요. 진정한 자유는 영적인 자유입니다. 사람들이 모든 집착에서 벗어나 무명을 떨쳐 버릴 때 얻어지는 것이죠.

불사가 원만히 이뤄져 회향을 하는 것은 절의 스님과 신도님들이 한 마음으로 불사를 추진하고 정재를 모아 쓰기 때문입니다. 말하자면 일 자체가 청정하기에 결과도 청정하다는 것입니다.

무엇에 집착하거나 소유를 못해서 안달하지 않는 마음이야 말로 참으로 편안한 것입니다. 그 편안한 마음이 바로 부처님의 마음이라고 했으니 우리도 그런 마음을 가꾸는 일에 근실한 노력을 기울여야 겠습니다. 그 편안한 마음은 누가 만들어 주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스스로 찾아야 하고 길러야 하는 것입니다. 이미 자신에게 있는 그 자리를 속히 찾는 것이 수행입니다.

팔뚝을 잘라 법을 구했던 혜가가 불안한 마음을 편안하게 해 달라고 하자 달마스님은 불안한 그 마음을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혜가는 찾아도 찾아도 찾을 길 없는 그 마음을, '이미 내가 네 마음을 편케 했다"는 달마의 한마디 앞에서 비로소 찾았던 것입니다. 우리의 편안한 마음은 우리 스스로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는 누구든 찾을 수 있습니다. 물욕으로 가리지 말고 탐심으로 더럽히지 말고 근면 성실한 삶의 자세를 이어가면 찾아낼 수 있는 자리가 바로 그것입니다.

도배일을 그만 두고 이후 김해 무량사 법심암(法心庵)에서 10여년간 달마도만을 그렸어요. 달마도(達磨圖)에는 한 줄기 갈대잎 위에 몸을 싣고 물위에 서 있는 달마를 형상화한 달마절노과강도(達磨折蘆過江圖), 좌선하는 달마를 그린 달마벽관도(達磨壁觀圖), 혜가가 달마에게 자신의 구도 열정을 입증하기 위해 스스로 한쪽 팔을 잘랐다는 고사를 도해한 혜가단비도(慧可斷臂圖), 달마의 안면과 가슴 부위까지만을 그린 반신달마도(半身達磨圖), 달마가 가죽신 한 짝만 신고 서쪽으로 돌아갔다는 고사를 그린 척리달마도(隻履達磨圖) 등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이중에서 나는 반신달마도를 즐겨 그리고 있어요. 반신달마도에서 달마스님의 모습은 선종 초조(初祖)의 위용과 기풍이 있다기 보다는 수행의 고통과 증득의 고위함을 이심전심으로 가르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반신달마도에서 달마스님의 커다란 눈, 눈동자의 강렬한 표현과 9년 면벽으로 사그러진 손과 발은 마치 부처님의 깨달음은 경전이나 지식에 얽매이지 않고 스스로 깨쳐야 한다며 수행자의 의지를 침묵속에서 요구하는 것 같아요. 달마스님의 벽관(壁觀) 수행 만큼 내 지관(紙觀) 수행의 정진을 자극하는 것도 없습니다. 욕심없는 청정한 공심(空心)을 그리는 것이 지관입니다. 그 공심에서 그어지는 한획 한획이어야 달마조사를 찬탄하는 도상을 만들어 낼 수 있습니다. 나는 이러한 일 속에서 부처님 제자된 보람을 얻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불화·단청을 그리는 스님들과 미술가 사이에 차별을 두는게 아니겠어요. 무량사에서건 선원사에서건 나보고 그냥 화가라고 부르는 사람은 없었거든요. 그림을 그리고 있지만 세속 화가들과는 달리 깨달음의 방편으로 붓을 들어 부처님 가르침을 하나 하나 새겨넣는 것입니다. 선화에서 뿜어나오는 선기(禪機)의 방사는 수행의 깊이와 정비례하므로, 선화는 널리 교화의 방편도 되는 것입니다.

오래 있으면 정이 들고 집착이 생긴다는 마음에 법심암을 떠나 선원사를 찾은 지도 벌써 2년이 됐어요. 법심암을 떠날 때는 선원사가 있는 것조차 몰랐어요. 부여 역전 식당에서 우연히 동석하게 된 어느 스님에게서 선원사를 알게 되었고, 길 안내를 그 스님께 부탁했어요. 서해안 겨드랑이인 강화에 선원사가 있더군요. 처음 도착했을 때가 겨울이었는데, 선원사를 중심으로 한 설경이 그야말로 한 폭의 그림이었습니다. 또 고려시대 수많은 불자들이 모여 팔만대장경 판각불사를 했었던 불교 성지라는 것도 알게 되었죠. 이곳이 붙교성지이고 풍광이 좋아서 눌러앉은 것이 아닙니다.

선원사와 마주하고 있는 바다에서 필선(筆禪)의 자세를 배울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바다는 항상 이렇게 가르칩니다.

"바다가 고요히 있거나 혹은 침묵 속에서 걷거나 파도가 몰아칠 때에도 그대는 모든 형태를 초월해야 한다. 움직임과 정지, 행위와 무위를 다 초월해야 한다. 밤과 낮, 삶과 죽음을 초월해야 한다. 이 모두를 초월하라. 그때 그대는 그대 속에 가장 지고한 향기를 지니게 될 것이다."

정리=오종욱 기자

경전과 나 43

금강삼매경



고 영 섭
동국대 강사

경전은 길이다. 인간과 세계를 잇는 길. 그 위에는 삶의 결이 수놓여 있다.

내가 〈금강삼매경〉을 접한 것은 원효(617~686)스님을 만나면서다. 이 경은 원효의 주석서인 〈금강삼매경론〉으로 더 알려져 있다. 그때문에 경전으로서의 정체성이 원효의 책이름 속에 묻혀버렸다. 아니 오히려 원효의 주석으로 인해 대중적인 경전이 되었다고 해야 할 것이다. 학부시절 나는 원효라는 화두를 부여잡고 〈금강삼매경〉의 미로를 추적해 보았다.

도안(314~385)의 경록에는 북량(387~439)시대에 분실된 번역경이라고 하고, 승우(445~518)의 〈출삼장기집〉에는 이름만 있을 뿐 경전은 없어진 것으로 적혀 있다. 그 후 수나라의 세 목록이나 당나라의 여러 목록 등에도 빠진 경본으로 기록되어 있다. 때문에 위의 경전이 현존경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그런데 어쩐 일인지 몇 백년이 지난 뒤 당나라 지승의 〈개원석교록〉(730년)에는 '잃어버렸던 것을 찾아서 편집한다'고 하면서 현존본으로 적고 있다.

이 경에는 유수한 대승경론의 교설이 투명돼 있을 뿐만 아니라 남북조시대에 논의된 불학의 모든 성취가 총섭되어 있다. 심지어 현장이래(645년) 신유식의 용어와 선종언어까지 등장한다.

〈금강삼매경〉은 대승논서의 문제와 의취가 드리워진 매우 철학적인 경전이다. 이 경의 성립 연기설화가 실려 있는 〈송고승전〉 '원효전'의 기록처럼 〈금강삼매경〉은 신라 왕비의 악성 종양(중생의 병)을 매개로 하여 겁해(?) 용왕과 편집자 대안과 주석자 원효의 세 인물에 의해 출현하고 있다. 설하고 있는 교리 역시 붓다의 가르침에 잘 부합되고 있다.

내가 〈금강삼매경〉에 끌린 것은 이 경전의 소박함 때문이다. 유수한 대승경전과는 달리 초기 경전인 〈아함경〉처럼 부처님의 인간적 모습이 배어있다는 점이다. 이를테면 사리불과 목건련 등에서 붙이는 '존자'를 부처님의 호칭과 지칭으로 사용하고, 법을 청하는 예의의 몸가짐을 '합장 호궤'로 간추려 통칭하며, 법을 묻는 보살이나 제자들을 '선남자여!' 내지는 '보살(마하살)이여!' 또는 '장자여!'로 호칭하고, 각 품마다 청(문)법자를 달리하여 정연하게 교설을 설하고 있는 점들이다.

이 경은 8품으로 되어 있다. '서품'에서는 부처님께서 기사굴산에서 대중을 위하여 일미진실, 무생 무상, 결정실제, 본각 이행의 가르침을 설하시고 금강삼매에 드시어 몸과 마음을 움직이지 않으시자 아가타(無去, 滅去) 비구가 이 뜻을 밝히기 위해 게송을 읊는 것으로 시작한다.

'무상법품'에는 모든 현상을 깨뜨리기 위해 모습 없음을 관하며, '무생행품'에서는 모든 현상을 깨뜨렸지만 관하는 마음은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이 생하는 마음을 없애어 생함이 없는 행

수행·대중교화의 이익 밝혀 원효스님의 주석서 이해 도와

'본각이품'에서는 무생행이 이미 생하지 않는다면 비로소 본각을 만나 중생을 교화하여 본각의 이익을 얻으며, '입실제품'에서는 본각에 의해 중생을 이익되게 하면 중생은 허망으로부터 실제에 든다고 설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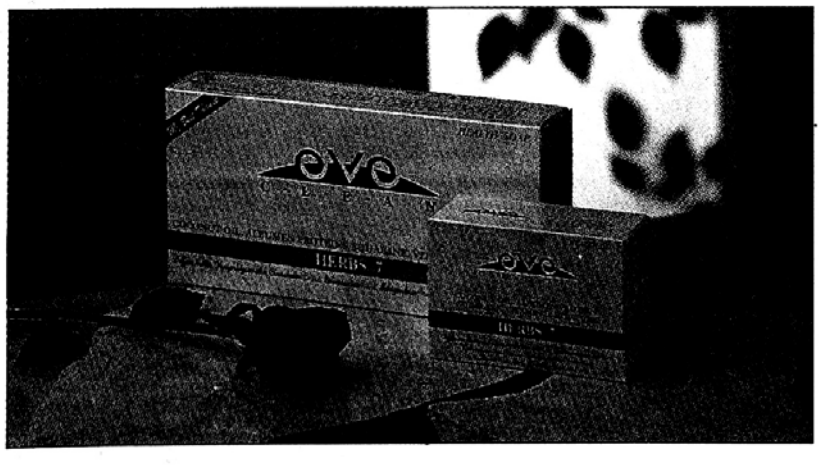
'진성공품'에서는 안으로의 수행은 곧 생함도 없고 모습도 없으며 밖으로의 교화는 곧 본래 이익이자 실제에 드는 것이므로 이러한 두 이익은 온갖 행을 갖추고 동시에 참다운 성품으로 드러남을 밝힌다. '여래장품'에서는 이 참다운 성품에 의해 모든 행을 갖추고 여래장 일미의 근원으로 들어감을 보여주며 이미 마음의 근원으로 돌아가면 할 것이 없고 또 하여지는 것도 없기 때문에 이 여섯 품(품)을 가지고 대승을 포섭하는 것이라고 설한다.

이 경은 나로 하여금 언제나 일미로 세계를 관찰하고 그대로 실행하게 한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대상화 하지 말고 자아화 하라고 일깨운다. 동시에 원효의 앵글을 통해서 이 경전을 보지 말고 나의 눈으로 비추어 보게 한다. 깨뜨릴 수 없는 삼매 수행으로 항시 길 안에 있기를 촉구한다.

건강하고 아름다운 자연미의 피부미학을 추구합니다.

신토불이 무공해 오염되지 않은 피부! 신선한 自然속에서 이루어집니다.

각종 유해 대기속에서 지친피부를 바라보는 마음은 실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신선한 자연속에서 생활하고 싶은 마음이야 간절하지만 …
바쁜 일정속에서도 만족하고 싶은 자연의 美!
이제 세안·샤워하실 때 만큼은 항생제를 쓰지 않는 **천연 무공해 항균면역피부미용비누**를 사용하세요.



●오보크린은 알부민푸로테인과 레시틴등의 생리활성물질(호서대학교와 C.T.F. 연구개발팀의 공동연구 개발물)을 기본원료로 하고, 한국인의 체질에 적합한 일곱가지 한방재료 추출물들을 첨가한 천연소재의 비항생제성 피부 친화적 **항균면역피부미용비누**입니다.
●오보크린은 피부에 감염되는 병원균들에 대해 직접·간접적인 생리작용으로 항균효과를 발휘하여 주부습진, 비듬, 무좀등을 예방하고, 피부의 자연면역기능을 활성화 시켜줄 뿐만 아니라, 공해로 인해 오염된 중금속을 피부로부터 배출시켜 항상 싱싱하고 아름다운 피부를 유지해주는 새로운 개념의 **첨단 생명공학적 건강미용 비누**입니다.

- 한방재료추출물 (오미자, 구기자, 감초, 숙지황, 천궁,계피등)을 첨가하여 한국인의 체질에 맞게 만든 무공해성 신토불아 비누
- 피부에 **미백효과**가 있습니다
- 99% **천연소재** 사용
- 공해(매연, 산성비)로 인해 오염된 **중금속배출 능력**이 우수합니다
- **주부습진, 여드름, 가려움증(비듬, 무좀등) 예방**에도 좋습니다
- 항균·항진균효과(anti-bacteral & fungal effect)가 있어 피부에 **자연면역 기능을 증진**시키며, 장기간 사용시에도 병원균들이 내성을 갖지 않습니다

추천의 글

호서대학교 식품영양학과 교수 공학박사 이 기 영
"오보크린"은 공해로 인해 오염된 피부를 깨끗이 씻어내고 피부에 필요한 영양을 공급할뿐만 아니라, 우수한 항균력과 면역기능까지 부여한 첨단생명공학적 고기능성 건강미용비누라고 생각합니다.

카톨릭대학교 환경학과 교수 이학박사 김 영 준
대기 및 실내에 산재된 각종 유해 중금속입자 및 오염물질들을 신속하게 제거해 주는 "오보크린" 건강미용비누는 이들에 노출되어 살아가는 도시인들에게 건강한 삶을 제공해 줄 것이라 기대됩니다.

강원대학교 축산가공학과 교수 이학박사 최 면
세면비누는 미용필수품이지만 "오보크린"처럼 과학적으로 입증된 항균성물질과 피부노화방지물질 등을 천연소재로부터 추출하여 첨가한 "건강기능성비누"는 차세대 아이디어 상품이다.

신성국제특허법률사무소 대표변리사 원 석 희
오보크린"은 피부에 유익한 생리활성물질에 한방재료성분을 첨가하여 만들어낸 한국인의 체질에 맞는 건강미용비누로서, 어느 외국제품과도 당당히 경쟁할 수 있는 첨단기술력의 제품이다.

(주)씨·티·에프 호서대학교 호서신기술센터內

첨단의 생명공학기술과 전통의 동의학으로 탄생한 신개념의 비항생제성 항균 면역피부 미용 비누

C·L·E·A·N

구입문의 현대불교신문사 영업부 (02)737-8881

山寺不二…명산에 명찰있다



山寺不二, 산과 절은 둘이 아니다. 상구보리 하화중생(上求菩提 下化衆生)의 원대한 뜻을 실현하기 위해 출가하는 것을 입산(入山)이라 이름한다. 왜 절에 간다 하지 않고 산에 들어간다 했을까. 지고한 불교의 가르침에 견줄만한 그 무엇이 산에 들어 있는 것일까. 그렇다. 산에는 그 무엇이 가득하다. 시인 고은은 그의 시 '산'에서 자신이 곧 산이라고 노래한다. 시인의 전인격과 산은 다르지 않다.

"젊은 날 산에 들어가/내 마음 가득히/산 소나기에 젖어/겨울이면 겨우살이 나도 산이었다" 산을 떠나서도 "여기 저기 떠돌다가/불현듯 고개 들어/바라 보면 거기가 산이었다"

금강산 세존봉 법기보살이 1천2백 권속들과 항상 머무르며 설법하고 있는 금강산. 흰 눈을 인 봉우리를 좌우보처로 삼고 있는 세존봉의 모습이 우람하다. 〈사진=한관수 편저 '금강산'〉

상징으로 보는 **불교문화** 山

〈3〉

입산은 곧 출가…구도 수행처

금강·두타·가야산 등 불교용어서 인용

자장율사 이후 산과 절 동의어로 사용

산은 어머니이기도 하다.

"허리께로 들어오는 시원한 바람./등 긁어주던/어머니 정이/아리도록 아리도록 산이 좋아/산길을 걷는다." 〈수안스님 시 '산길을 걸으며'에서〉

산은 시인의 전존재이면서 어머니이다. 한국인에게 산은 그런 곳이다. 또한 신성성의 표상이다.

산에 오른다고 하는 것은 산정에 올라 천하를 정복하려는 욕심의 성취를 이루려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속(俗)의 닫힘을 뚫고 다른 공간, 곧 신성공간에서의 하늘과의 만남을 기하려는 신비에의 겸허한 참여이다.

그래서 산은 오르는 것이 아니라 '가서 뵈어야' 한다.

산은 불교와의 관계 이전에 우리 민족의 삶터였다. 단군신화의 큰 배경은 산이다. 백두산정 신단수 아래 천광(天坪)에 도읍했는데 이를 신시(神市)라 했다.

애초에 절이 산에 있었던 것은 아니다. 성문사 이불란사 등 불교초전기의 절들은 산에 위치하지 않았다. 산과 절은 저만치 떨어져 있었던 것이다. 불교가 가장 먼저 흥성했던 신라 서울 안의 일곱 군데 가람도 모두 서라벌 들녘에 있었다.

그러다 신라시대 후기 '너희 나라 영취서산에 독룡(毒龍)이 사는 연못이 있는데, 거기에 금강계단을 쌓아 이것(가사 1법과 사리 1백과)들을 봉안하라는 문수보살의 수기를 받은 자장율사가 신라 불국토사상을 결치면서 산과 절은 동의어처럼 붙려지기 시작했다. 오대산 월정사, 태백산 정암사, 영취산 통도사, 소백산 부석사, 지리산 단속사 화엄사 실상사 쌍계사, 속리산 법주사, 모악산 금산사, 가야산 해인사, 비슬산 대견사, 금정산 범어사, 팔공산 동화사, 강릉 사굴산 굴산사, 영월 백덕산 흥령사, 문경 희양산 봉암사, 금강산 유점사 등이 그때부터 산중에 터를 잡았다.

불교의 구도열정을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곳이 암자와 토굴이다. 인적의 범접을 꺼려해 심산유곡에 자리를 잡았다. 때론 허름한 너와집, 한칸 공양간과 선실이 전부인, 그래서 더욱 치열한 정신의 높이를 보여준다. 산에 암자와 토굴이 있어 비로소 산은 완결된다.

김현준은 그의 책 〈사찰 그 속에 깃든 의미〉에서 △우리 민족의 뿌리깊은 산악신앙 △외적방어용 가람건축 △불교의 초세속주의(超世俗主義) 경향 △풍수지리학의 산천비보설(山川裨補說)의 영향 △조선시대 배불정책에 따른 산중 은거 등의 이유로 산과 절의 관계맺음을 풀이한다. 이 가운데서도 조선시대 배불정책이 사찰이라고 하면 으레 산사(山寺)를 떠올리게 하는 가장 큰 이유로 지적했다.

산 이름들이 불교의 용어를 채택하고 있음은 그만큼 산과 불교의 합일을 말해주는 것이다. 금강산은 어떤가. 금강같은 굳은 지혜로써 피안에 도달하는 법을 설하는 산이다. 빼어난 절경에 1만2천 봉우리, 8만 9암자라 했으니 가히 '금강산경(經)'이다. 통도사를 감싸안고 있는 영취산(또는 영축산, 취서산)은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화엄경을 설법한 인도의 영취산과 닮았다고 해서 그 이름이 붙었다. 스님들이 자신을 가리켜 '금정산인' '가야산인' 등 산사람이라고 표현하는 것도 산과 불교의 밀접성에서 기인한 것이다.

중국 선불교의 거봉인 백장회해(百丈懷海) 황벽희운(黃檗希運) 운문문언(雲門文偃)스님 등은 선문을 열었던 산의 이름을 법호로 썼다.

세시기에 나타난 산과 불교를 봐도 둘 사이의 뗄 수 없는 관계를 알 수 있다. 〈동국세시기〉의 다음과 같은 기록이 그것을 입증한다. 보은 속리산의 정봉에는 대자재천왕(大自在天王)의 사당이 있었는데 매년 10월의 인일(寅日)이면 법주사로 모셔와서 제사를 올리고, 산중의 사람들이 모두 모여서 음악을 베풀며 며칠 간의 행사를 치렀다는 것이다.

■ 수미산(須彌山)

불교의 우주관에서 나온 상상의 산으로, 세계의 중심에 솟아있다고 한다. 이 산을 중심으로 4대주가 동서남북으로 있고, 하계에는 지옥, 수미산의 가장 낮은 곳이 인간계이다. 수미산 중턱의 사방에 사천왕이 있다. 수미산의 정상에는 33개의 궁전이 있어 33천이라고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사찰을 건립할 때 그 가람배치를 수미산을 중심으로 배치하는 경우가 많다. 사찰에 들어서는 일주문은 천상계를 넘어서 불지(佛地)를 향해 나아가는 자의 일심(一心)을 상징하고, 사천왕문은 수미산 중턱에 올라왔음을, 불이문에 도달하는 것은 수미산 꼭대기에 이르렀음을 상징하였고, 부처님은 그 위에 있다고 하여 법당 안의 불단을 수미단이라고 부른다.

■ 구산선문(九山禪門)

한국선불교의 전통은 신라말~고려초에 이르는 시기 아홉 곳의 산을 터전으로 일어나면서 확립됐다. 아홉 산문은 △가지산문 보림사, 전남 장흥 △실상산문 실상사, 전북 남원 △동리산문 태안사, 전남 곡성 △성주산문 성주사, 충남 공주 △봉림산문 봉림사, 경남 창원 △사자산문 흥령사, 강원 영월 △사굴산문 굴산사, 강원 강릉 △희양산문 봉암사, 경북 문경 △수미산문 광조사, 황해 해주.

한편 고려시대 천태종의 대표적인 사찰 6군데를 천태육산(天台六山)이라 부른다. 개성 국청사, 월생산 약사사, 강진 만덕산 백련사 등이며, 개성 국청사에는 우리나라 천태종의 개창조인 대각국사 의천스님이 머물며 천태교관을 강의했다.

■ 경주 남산

'겨레의 땅, 부처님의 땅'으로 불리는 경주 남산. 옛 신라의 도읍이던 서리벌 남쪽에 솟은 높이 468m, 남북 길이 8km, 동서 너비 4km로 높지도 크지도 않은 산이다. 금오봉과 고위봉의 두 봉우리에서 흘러내리는 40여 계곡과 산줄기 곳곳에는 절터를 포함한 122개소의 건물지, 석불 53구, 석탑 64기, 석등 16기가 남아 있다. 신라 건국설화에 나오는 나정(羅井)과 신라의 종말을 맞았던 포석정 등이 자리해 가히 겨레의 땅, 부처님의 땅이라는 표현에 한치의 과장이 없는, 1천년 전 신라인들이 염원했던 불국토의 숨결을 그대로 전해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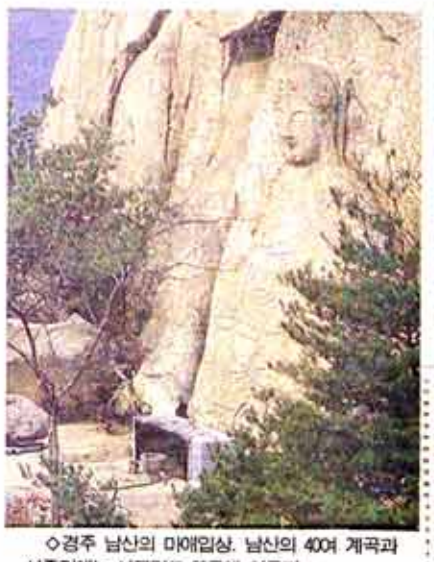
■ 산신각

민간의 산신신앙과 불교가 만나는 지점에 산신각이 있다. 중국에서 들어온 불교의 토착화 과정에서 우리 민족 고유의 산신신앙과 산악숭배사상을 수용, 사찰 안에다 전각을 지었다. 산신은 원래의 불교와는 관계없는 토속신이지만 불교의 진리를 보호하는 호법신중(護法神衆)이 되어 호랑이 혹은 노인의 모습(산신)으로 묘사되어 대개 산신각 안의 탱화에 형상화되었다. 산신은 가람 수호신의 기능과 함께 산속 생활의 평온을 비는 외호신으로 받들어지고 있으며, 신도들은 재앙 소멸의 장소로 산신각을 찾고 있다.

정성운 기자



◇수직으로 솟은 기암 위에 아스라이 자리잡고 있는 관악산 연주대.



◇경주 남산의 마애입상. 남산의 40여 계곡과 산줄기에는 석탑만도 53구에 이른다.



◇통도사 산신각. 우리나라 불교에만 있는 전각으로 불교와 산악숭배 사상의 접목을 보여준다.

◇구산선문 가운데 가장 늦게 성립한 경북 문경 희양산 봉암사.



금강산은 어떤 산

금강산은 부처님 땅이다. 명칭부터가 경전에 유래하고 있으며, 삼국시대 스님들에 의해 금강산으로 불려지기 시작해 오늘에 이르고 있다. 그 이전에는 신선의 산으로 알려져 있었지만 신라가 그곳에 절을 짓고 탑을 세우기 시작하면서 불교와 연관되기 시작했다. 14세기에 이르러 그 이름이 금강산으로 굳어졌다.

금강산의 명칭은 〈화엄경〉 '제보살주처품'에 나온다. "바다 가운데 금강산이란 곳이 있는데 예로부터 여러 보살들이 그곳에 머물고 있다. 지금은 법기(法起)라는 보살이 있어 그 권속과 여러 보살들 1천2백인과 함께 그 가운데 항상 머무르며 설법하고 있다." 금강산의 다른 이름으로 쓰였던 열반산, 중향성(衆香城), 기달산(怛怛山)이란 명칭도 마하반야경과 화엄경에서 유래했다.

보살과 권속들은 누구인가. 금강산의 최고봉인 비로봉(1638m)을 비롯 지장봉 세존봉 상관음봉 문주봉(文珠峰) 중관음봉 수미봉 십왕봉 법기봉 석가봉 미륵봉 천불산 등이 둘러치고 있다.

고려말에는 금강산 순례가 불교의 신앙행위로 유행하기도 했다. 최해의 〈신동국여지승람〉에는 "금강산을 한번 보면 죽어서 악도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믿음이 생겨 고급관리로부터 평민에 이르기까지 아내와 자식을 이끌고 다투어가서 예배한다"는 기록이 있다.

화엄경서 명칭유래
법기등 1200보살 주석
"한번 보면 지옥 안가"

자연을 연출하는 —— 우리옷

연/지/곤/지

개량한복을 50% 할인가격(W80,000)으로 판매합니다.
사업하실 분에게는 위 가격에서 충분한 마진을 드립니다.

★ 단체복(승복,원아복, 사원복, 도복)을 최저가로 주문받고 있습니다.

● 상담문의 ●
본점 02)3461-8552~3 과천점 507-7852
경춘점 (0343)88-7852 분당점 (0342)702-7373



● 연지곤지는 최고의 품질을 최저가로 보급합니다. ●

IMF를 이기는 불자님의 지혜
- 우리옷을 입읍시다.



(농인선원 건너편)

"병아리와 어미닭처럼…"

스승의 길과 동사(同事)

보시·애어·이행·동사 사섭법의 실천은 '스승의 길'이다

김종서박사가 쓰는

불교와 교육 〈19〉

〈잡아함경(雜阿含經)〉에 사섭사(四攝事)라는 부처님의 가르침이 있다. 사섭사(四攝法과 같은 말)라 함은 "다른 사람을 이끌고 끌어들이고 가르침에 있어서 실천해야 할 일로서 보시(布施), 애어(愛語), 이행(利行), 동사(同事)를 하위 개념으로 내포하고 있다.

보시라 함은 물품을 베풀며(財布施), 부처님 가르침을 전함을(法布施) 말하며, 애어는 대화에서 사랑스럽고 부드럽고 정이 넘쳐 흐르는 말을 써야 함을 말하고, 이행은 선행(善行)으로 다른 사람에게 이익을 주는 것을 말하며, 동사는 상대편과 같은 입장에서 생각하고 행동함을 말한다.

이렇게 볼 때 사섭사(四攝事)의 실천이 곧 "스승의 길"임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이 네 가지 부처님 가르침 중에서 여기에서는 동사(同事)의 문제만을 논의하고자 한다. 왜냐하면 오늘날의 교육자의 자질 중 가장 결핍되어 있는 것이 동사의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스승의 길로서의 동사에는 사제동행, 공감적 이해, 줄탁동시(啐啄同時)가 있다.

사제동행은 교사가 학생과 함께 같은 일을 함으로써 지도력을 발휘하는 것을 의미한다. 사제동행의 교육적 효과는 대단히 크다. 나는 서울대학교 총불교학생회 지도교수로서 8년간이나 있었다. 수련대회 때마다 빠짐없이 참여한 바 있다. 빈틈이 거의 없는 빡빡한 일정이었으며 따라서 분위기가 약간만 흐트러지면 질서 유지에 혼란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었다. 이 때 총지휘자는 불교학생회장인 학생이었다. 나는 학생회장의 지시를 한치의 어긋남 없이 그대로 지켰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모범생이었다. 지도 교수가 회장의 지시를 그대로 지키는데 회원인 학생들이 감히 어떻게 이에 따르지 않겠는가? 또한 회장도 초긴장을 하여, 지시 하나 하나를 신중히 검토하며 회장으로서의 직무를 성실히 이행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었다. 왜냐하면 지도교수가 그대로 따르는 지시이기 때문에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었다. 그리하여 수련대회는 계획대로 되는 알찬 수련대회로 끝마칠 수 있었다. 이 때 나는 학생들을 올바르게 지도하는 길은 교수가 학생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학생 속에서 학생과 함께 호흡하며 행동할 때 이루어질 수 있음을 절실히 느꼈다.

다음은 공감적 이해(共感的 理解)의 문제를 생각해 보자.

공감적 이해는 자신을 상대편의 입장으로 바꾸어 놓고 상대편의 입장에서 그를 이해하는 것을 말한다. 상대편이 지닌 감정, 의견, 가치, 이상, 고민, 갈등을 그가 처해 있는 상황에서 보는 것을 말한다.

공감적 이해는 특히 상담활동에서 강조되는 핵심개념이다. 피상담자를 설득하고 충고하고 나갈 길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피상담자의 처지에 함께 서서 고민하고 괴로워 하며 슬퍼함을 말한다. 상담자가 공감적 이해를 하면 피상담자는 자기의 문제를 스스로 분석하고 해결방안을 수립하여 이를 실천한다고 한다. 따라서 공감적 이해 자체가 치료적 효과를 지니고 있다.

공감적 이해에 관한 예를 학습사례에서 들 수 있다.

순자는 초등학교 3학년인데도 한글을 읽지 못한다. 새로 담임을 맡은 K선생은 정성을 다하여 순자가 한글을 자유롭게 읽을 수 있도록 지도하겠다고 마음먹었다. 처음 며칠동안은 방과 후에 남겨 특별지도를 하였으나 별로 효과가 없었다. 그리하여 K교사는 한글을 모르는 원인을 찾아내기 위하여 각종 조사를 실시하였으나 원인을 찾기 힘들었다. 다만 저지능 때문이 아니라는 것만은 확실하였다. 자세히 살펴본 즉, 순자에게는 친구가 한 명도 없었다. 키가 작고 못생겼다는 신체적 이유, 집이 가난하다는 경제적 이유, 한글을 모른다는 지적인 이유 등 때문이었다. 그 이전에 담임하였던 교사에게 물어 보아도 순자는 관심 밖의 아동이었다. K교사는 순자는 인정감(認定感)이 좌절되었다는 잠정적인 결론을 내리고 우선 순자와의 친밀감 형성에 노력하였다. 어느 정도 친밀해진 후 순자를 방과 후에 남기고 다음 날 배울 국어의 읽기 연습을 시켰다. 한글을 읽을 수 없었기 때문에 무조건 암기를 하도록 하였다. 다음 날 교사가 지명하면 암기한 부분만 읽도록 하는 약속이 성립되었다. 다음 날 순자는 이 일을 성공리에 끝마쳤으나 다른 아동들은 그가 외우는 줄 알고 있었으며 그를 무시하는 발언을 하였다. 이 때 K교사는 근엄한 태도로 순자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성의껏 칭찬해 주었다. 이런 일이 있은 지 한 달만에 드디어 순자는 한글을 자유롭게 읽게 되었다. K교사가 순자와 한마음이 되어 순자편에 서서 그를 이해하고 지도한 결과였다.

세번째는 줄탁동시(啐啄同時)의 문제를 생각해 보자.

줄탁동시는 선가(禪家)에서 쓰는 개념이며, 〈벽암록(碧巖錄)〉에 있는 내용을 박선영 교수는 다음과 같이 번역하고 있다.

병아리가 쪼고(줄) 어미닭이 쪼아(啄) 병아리가 눈 떠 껍질이 없어짐에 병아리와 어미닭의 분별을 모두 잊어버리고 기연(機緣)에 응하되 어긋남이 없이 같은 길에서 함께 노력하여 하나가 된다(子 母啄 子覺無殼 子母俱忘 應緣不錯 同道唱和)

〈벽암록〉의 비유는 각성(覺醒)과 관련된 사제관계에 대한 비유이지만 일반적으로는 적기에 스승이 제자와 한 마음이 되어 제자의 배움을 이룩할 수 있도록 도와줌을 말한다. 여기에서 줄(쭐)이라 함은 병아리가 달걀에서 밖으로 나올 때 달걀 속에서 껍질을 쪼는 것을 말하며 탁(啄)은 어미닭이 병아리가 밖으로 나오도록 돕기 위하여 밖에서 달걀 껍질을 쪼는 것을 말한다.

적기에 줄탁(啐啄)이 동시에 이루어져야만 하며, 어느 한쪽이 빠르거나 늦어도 성사(成事)될 수 없다.

교육심리학자들은 인간발달에는 결정적 시기(critical period)가 있다고 한다. 이 시기에 알맞은 지도가 이루어져야만 행복한 삶을 누릴 수가 있다. 예를 들면 고등학교 학생들은 진로선택의 결정적 시기에 처하게 된다. 이 시기에 본인의 잠재적 능력에 따르는 알맞은 지도가 절실히 요청된다.

필자는 오래전에 사범학교에서 교편을 잡은 일이 있었다. 이 때 K라는 학생은 운동에 있어서는 거의 만능이였으며 지적인 능력도 대단히 우수하였다. 그는 진학문제에 있어서 영어영문학과 체육학 사이에서 고민하고 있었다. 본인은 체육학을 전공하고 싶었지만 당시만 하여도 우수한 학력소지자들은 체육학보다는 영어영문학을 선호하고 있었기 때문에 나에게 의논하러 왔다. 나는 강하게 그에게 체육이론을 전공할 것을 권하였으며, 그 학생은 흔쾌히 이를 받아들이고 마음이 후련하다고 하면서 행복한 미소를 지었다. 체육학을 전공한 그는 오늘날 체육이론의 제1인자인 교수가 되었다. 그러면서 나에게 "선생님, 참으로 고맙습니다. 진로선택이라는 결정적 시기에 선생님의 도움이 있었기에 제가 이와 같이 대성할 수 있었습니다"라는 말을 여러 번 되풀이 한 바 있다.

결정적 시기에 자녀를 돕는 일은 가정교육에서 더욱 중요하다. 프로이드(Freud)는 인간발달의 결정적 시기는 3~5세에 있다고 주장하면서 초기경험의 중요성을 역설하였다. 특히 이 시기에 발달에 필요한 문화적 심리적 요소의 결핍은 문화실조(文化失調)현상을 가져온다고 한다. 문화실조는 영양실조의 신체적 현상과 대비시키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스승의 길은 사섭사(四攝事)인 보시(布施), 애어(愛語), 이행(利行), 동사(同事)의 실천이며, 특히 동사인 사제동행, 공감적 이해, 줄탁동시(啐啄同時)는 오늘날의 교사에게서 강조되어야 할 "스승의 길"이다.

〈前 교육개혁위원회 위원장〉

사제동행 학생과 똑같이 행동하는 지도법
공감적이해 학생의 입장에서 해결책 구하자
줄탁동시 배움을 이루도록 제자와 한마음

"부처님가르침 교육개혁추진에 큰 힘"

김종서박사, 국민훈장 무궁화장 받아

"40여년간 교육에 종사해오면서 이번 교육개혁위원장으로서의 임무가 가장 보람이 컸습니다. 특히 부처님의 가르침이 탄탄한 추진력이 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 감개무량합니다."

2월24일로 1년10개월의 제2기 교육개혁위원회 위원장 임기를 마친 김종서박사(서울대 명예교수). 김박사는 이에 앞서 11일 청와대에서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받았다.

교육개혁위원회는 그동안의 활동을 종합해 유아교육체제의 공교육화 등 12개 분야를 주 내용으로 하는 '21세기 한국교육의 발전지표'를 새 정부에 보고했다. 김박사는 앞으로 자문위원으로 위촉돼 있는 서울 성북동 길상사(주지 청학)에 매일 출근(?)해 참선하고 기도수행에 전념하겠다고 밝혔다.

위영란 기자



◇김영삼 前대통령으로부터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받고있는 김종서박사(오른쪽).

생활불교용어



그림 · 박구원

'감로 같은 물' '감로처럼 내린 생명의 샘' 등으로 쓰이는 감로에는 하늘에서 내리는 영약(靈藥)인 달콤한 이슬이란 뜻이 있다. 감로는 한방울만 마셔도 불로불사(不老不死)한다. 그래서 깨끗하고 시원한 물을 극찬해서 감로수라고 한다. 술 가운데에도 감로주가 있다. 소주에 용안육(龍眼肉)이라는 한약재와 대추, 포도, 살구씨, 구기자, 두충, 숙지황을 넣어 달인 술을 감로주라고 불러 건강 장수의 술로 애주가들의 사랑을 받는다.

이렇게 사용되고 있는 감로라는 말은 원래 불교에서 나온 말이다. 도리천에는 달콤한 영액(靈液)이 있는데 이 액체를 마시면 괴로움이 없어지고 장수한다고 전한다. 그래서 감로는 '불사주(不死酒)'로 번역된다. 일명 천신의 음료라고 한다. 서양 신화(神話)에서는 제우스 신을 비롯한 천신들이 '넥타(Nectar)'를 마시는 것으로 되어 있다. 요즘에 사과 넥타, 포도 넥타 등으로 상표를 달아 파는 과일즙은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차용해온 것이다. 서양 신화에서는 오직 신들만이 신주를 마실 수 있다. 그러나 불교는 불법의 가르침을 통해 깨달음을 얻으면 감로의 맛을 본다고 한다. 그래서 오묘한 깨달음의 경지를 '감로미(甘露味)'라 했고 열반에 도달하는 문을 '감로문(甘露門)'이라고 했다.

〈잡아함경 · 雜阿含經〉 24권 608 〈감로경 · 甘露經〉에는 성인의 법과 도를 이뤄 감로법을 얻으면 생로병사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내용이 있다. 〈출요경 · 出曜經〉에는 나라에 불법이 가득차면 감로가 내린다고 했다. 〈출요경〉은 감로를 얻을 수 있는 가장 빠른 길은 계(戒)를 지키는데서 시작된다고 전한다.

따라서 감로는 자신의 마음 속에 맺히는 열반경계(涅槃境界)다. 감로는 하늘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마음도량에서 찾는 것이다. 이것은 같은 영생불멸의 영약이면서 넥타라는 이름의 신주와 다른 점이다.

※참고 : 안길모著 '이판사판 야단법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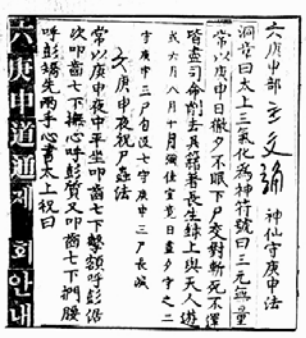
감로(甘露)와 넥타

감로-도리천의 영약 · 깨달음의 맛
넥타-제우스신 등이 마시는 음료

감 · 로 · 심 · 장 · 회
● 형편이 어려운 환자를 돕는 순수봉사단체입니다 ●
심장병 · 안면기형 · 안과 (백내장, 녹내장)
후원문의: ☎ (0591)747-0106

卍 무인년(운달 · 드는해) 卍
육신통(육경신) · 정진대법회

윤달드는 해에는 긴세월이 아니라도 도통하여 직접 성불할 수 있는 법과 영혼이 영생할 수 있는 법과 영가를 직접 천도시키는 법을 득도하려면 육신통기도에 입문하여 천안통, 타심통, 천리통, 신족통, 숙명통, 루진통을 성취하여 1만 2천 도인 · 신선 · 선사경지에 득도하시고 이기도는 외도나 사도나 잡신수행을 물리칠 수 있는 도통법을 도인들께서 비전으로 직송하는 도장경의 주문과 10장생건강 비법의 심기선법기공과 복식호흡과, 잡귀나 좌충까지도 물리칠 수 있는 주문법등을 지도하여 금년 윤달 드는해에 입문하시면 도통은 물론 소원을 성취하며 조상산소, 이장, 사초, 묵은혼례등을 해도 아무 마장이 없으며 경신일 정오와 밤자시에 천문과 천복을 받고 수미산제석


六庚申道通齊回安內
常以庚申日徹夕不眠下尸交對斬兒不得
皆盡司命削去其籍善長生錄上與天人遊
常以庚申夜中平坐叩齒七下嚥額呼彭侯
次叩齒七下攝心呼彭質又叩齒七下捫腰
呼彭矯先兩手心書太上祝曰
六庚申部玄文論 神仙守庚申法
洞當曰太上三氣化爲神符號曰三元玉童

천궁신중과 8만 4천 화엄신중, 법화성중 모든 신중들이 옹호하여 득도대도인이 못되더라도 한가지 소원을 이루는 날이 오니 두루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금년기도 6회가 들었으며 두달에 한번이 듭니다.

● 입제일 : 98년 3월 13일 亥時
● 해제일 : 98년 3월 14일 亥時
● 회 비 : 1박 2일 침식제공, 편한 옷차림, 5만원, 평생회비 33만원(초보자 분납가능함)
● 기도처 : 서울 동작구 신대방동 360-188 (구도자원고개 삼성 A.P.T.앞 하차)
● 전 화 : (주)02-821-6622 (야)02-923-3110
육신통(육경신)도통 회장 태일법사 합장

"영가들이 확실하게 천도되는 비법(秘法)이 수록된 책자"

"영가 천도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

상기책자를 스님과 불자들에게 연락주시는 대로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이책은 영가의 장애로 인하여 인생살이에 크나큰 고통과 타격을 받으며 살고 있는 많은 불자들을 위하여 2년여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어떠한 영가이든 100%천도가 이루어지는 영가천도의 묘법이 수록된 책자입니다.

※ 책 자 내 용

① 영가천도의 의미와 영가천도 의식에서 주의할점은 무엇인가 ?
② 인간의 길흉화복과 건강장수를 좌우하는 영가들의 영향력 !
③ 영가천도는 왜 필히 해주어야만 하는가 ?
④ 영가들의 영향으로 장애를 받게되면 어떠한 현상들이 일어 나는가 ?
⑤ 조상대대, 친족, 연족, 일체지 영가를 모두 확실하게 100%천도시킬수 있는 묘법은 무엇인가 ?
⑥ 특별 천도재에 사용되는 방편은 무엇인가?
⑦ 각 방편들의 내용설명 및 사용방법.
⑧ 집안에서 하는 영가 천도 기도방법.
⑨ 영가들의 특별천도재를 지낸후 신행생활은 계속적으로 어떻게 이어지는 것이 가장 좋은가 ?
⑩ 특별 천도재를 지내면 일어나는 여러가지 현상들의 예(例).

상담문의 및 책자신청 성지관음회
경기도 용인시 모현면 능원리 30-1(능원빌딩 3층)
전화 : (0335)34-9490, 34-9491
야간 : (0342)706-3060

두가지의 크고 불가사의한 작용을 일으키고 있는,……

"팔괘(八卦) 만다라 액자의 신비(神祕)"

우연히 발견된 팔괘 만다라 액자의 신비스러운 힘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

◎ 만다라는 제불보살님과 신(神)들만이 들어갈 수 있는 성역 공간으로서 이는 살아 있는 우주의 삼라만상 그 자체이며, 우주의 축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다라가 있는 곳에는 항상 우주의 충만한 생기(生氣)가 가득 모여 있습니다. 집안에 만다라를 걸게 함은 이러한 우주의 기(氣)가 집안에가득 차게 합니다. 그러나 만다라 자체만 걸어 놓으면 상서로운 우주의 생기가 그 안에서 그대로 머물고 있는 상태로 지속되기 때문에 이 기(氣)를 끌어내어 집안 전체에 기(氣)를 고르게 확산시키는 방법으로 팔괘를 도입하여 합일시킨 결과, 놀랍게도 불가사의하고 신비스러운 작용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팔괘 만다라 액자



◎ 소 재
· 팔괘 : 고급 나무 목관 팔각형
· 만다라 : 알미늄판에 직접 색채 도안 조성
※ 그 위에 유리보다 더 깨끗하고 투명하며 깨지지 않는 영구적인 특수기법처리

규격 : 45㎝×45㎝

◎ 보급가 : ~~₩300,000~~ ⇒ ₩ 150,000
(그동안 30만원에 보급했던것을, 이제 15만원에 보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보급처 : 성지관음회 (회장 혜천)
경기도 용인시 모현면 능원리 30-1(능원빌딩 3층)
전화 : (0335)34-9490, 34-9491
야간 : (0342)706-3060

신비한 작용

첫째 가정, 사무실, 사업체 등에 걸어 놓은 결과 사악한 기운을 추방하고 불길한 운세를 흡수시키면서 약하고 침체된 기(氣)를 활성화시키고 강화시켜 사업이 활발해지고 재물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음식점이나 가게 등에 걸어 놓으니, 외부의 좋은 기를 끌어당기는 영향 때문인지 고객과 돈을 불러들이고 있습니다.

둘째 집안의 현관, 거실, 안방에 걸어 놓으니 집안 전체에 흐르는 수맥(지하수)의 영향이 완전히 차단되는 작용이 일어났습니다. (이 실험을 직접해 본 집에서는 방마다 갈아놓았던 동관을 모두 걷어내고 있습니다.)

◎ 팔괘 만다라의 수맥 차단 실험은 2명의 수맥 전문가를 초빙하여 여러가지 방법으로 실증 테스트를 거친 결과로서 불가사의한 이 현상을 믿지 않을 수 없게 하였습니다.

◎ 팔괘 만다라 액자는 아름답고, 고급스러운 외양을 갖추고 있어 어느 가정이나 사무실에 걸어 놓아도 어울리는 분위기를 자아내도록 조성되었습니다.

· 불자들간의 선물 · 생일선물 · 개업선물 · 집들이 선물
· 연말연시 선물 등으로도 단순한 액자가 아닌 행운과 재운과 건강을 불러오고 보장해주는 액자라는 점에서 좋은 선물이 될 것입니다.

물론 우선적으로 자신의 집에는 필히 걸어 놓으시는 것을 잊지마십시오

물자정보 광고는 불자 여러분이 필요한 모든 정보를 만날 수 있는 생활광고면입니다. 불교관련상품, 강좌안내, 구인 · 구직, 각종 소식, 홍보 등 생활 속의 모든 정보가 살아 있습니다.

※ **누구나가 참여하실 수 있읍니다.**

생활 속에 함께 하는

불·자·정·보

최소규격 및 가격 : 세로 5cm × 가로 2cm (1회 2만원)
(세로는 고정, 가로 1cm 증가시 1만원 추가)
※ 4회이상 게재시 할인혜택을 드립니다.

불자정보 문의 홍보내용을 정하신 다음 전화나 FAX로 담당자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전화 : (02)732-1522(直), (02)737-8881(代) FAX : (02)737-0697
※ 전국 어디든 지사 · 지국 에서도 접수 가능 합니다.

• 건 강 •

한방암정보
02)
700-6366

승가 전통의 손맛…
온돌방 전통메주
(음식조리용 장군죽염)



▶ 재래콩 메주에 음식조리용 죽염으로담근 죽염된장 간장은 영양가득 악성이 풍부한 무공해식품이 될 것입니다.

마을을 나누며 사는 사람들… **보리가족**
02)3141-1011/011-786-0817
· 온돌방 전통메주 소두1말(斗) 5개 값 39,000원
· 음식조리용 죽염 특별포장 5Kg(1) 값 35,000원

밀교 수행자
연락처 015-8487-3674
당뇨 · 간경화 · 비만관리
※ 3~7일간 치료 지도 ※
能仁 看病會
서울 금천구 시흥본동 893-16
011-337-0353
02-809-1831

대보생식
02)
427-9162~3

암 · 간경화 · 완치 보장
성인 백혈병 · AIDS
만성 신장병 · 암 · 神病
정신질환 · 원인모를 病
대체의학
보상금제도도입
치료후 병원 검사결과 현저한 호전이나 완치가 아니면 보상금(치료비+1천만원)을 드립니다.
TEL : 0552-585-8128 · 8118
H.P. : 011-559-8118/8128
경남 함안군 군북면 하림리 우계동
보은암

수맥(水脈)을 바로 알면 건강해지고 집안이 흥해집니다!
● 공부 잘하던 아이가 성적이 떨어지고
● 원인도 없이 시름시름 앓고
● 매사 의욕이 없고 우환이 찾으시며
● 집안에 중풍이나 치매환자가 있다면…
※ 수맥상담 및 출장 탐사
실로암수맥연구회
02)362-8466/392-8621
FAX 02)392-8621
※ 수맥연구원 학간행 무집

病 없는 세계로 가는 길
선 관 단 식
안내책자 무료우송
⊙수련장: 경남 사천시 용현면
와룡산 **용님선원**
✤안내 : 0593)34-1115~6
012)598-1015

◆ 청학사 수양원 ◆
■ 수양 · 요양 · 기도 · 공부
■ 선착순 20명 모집
■ 月 숙식비 ₩300,000
■ 1인 1실-침구 일체 완비
0595)83-2933
011)446-2933
경남 하동군 악양면 노전마을
청 학 사

역학을 기본으로 한
건강비법!
지친 현대인들의 기를 살려주고, 정신을 맑게 해 줍니다.
◆ 상담 대환영! ◆
(고민있으신 분들 언제든지 전화주십시오)

함께 사무실 쓰실 분
▶ 위치 조계사 부근
▶ 평수 약 12평
▶ 주변이 조용하고 쾌적한 환경
▶ 보증금 없음, 월 25만원
☎ 723-4260~1

• 강 좌 •

현정 심성개발 · 상담센터
Tel.(02)583-0041(지하철 사당역앞)
▷ 본 상담센터는 개인상담을 통해 마음이 아파 혼로서기 힘든 시람들과 미음나누기 하는 곳입니다
▷ 오전 전화상담, 오후 면접상담
▷ 적성 인성 등 각종 심리 TEST
▷ 심성개발 및 감수성 훈련ST
소그룹 지도월 4회 실시-매주 수요일 오전10시~12시까
▷ 단전호흡을 통한 심신건강 및 집중력 기르기
▣ 신경성, 집중곤란, 대인불안등 스트레스 적응법 지도

학 생 모 집
■ 모집과정 : 보교교육과 - 동양종교, 종교음악, 역학지도
유아교육과 : 음아놀이, 아동미술, 생활미술
종무행정과 : 상담실무, 상담행정, 생활상담
■ 지원자격 : 1) 친공과정-포교심담의 사명감을 가진자
2) 연구과정-법회상담의 지도자로 사명감을 가진자
■ 수업년한 : 1) 출북지신에서 월 2회~4회 강의
2) 수업기간 2년 스쿨버스 통학가능
(교육청 인가 상호)
만대교학대학원
☎ 0582)535-1987
☎ 02)931-6075~6

지장경 독송모임
매주 토요일 오후 7시
현대불교신문
강릉지사
0391)43-5599

명리학 배우실분
사주 · 신수 · 궁합 · 택일
진로선택 · 작명 · 기타
기초부터 충강후 자신있는 간명에 이르도록 책임지도합니다.
■ 강의기간 3월 3일부터 3개월간
매주 화요일,금요일(주2회)
오후 1 30~4 30(3시간씩)
■ 수강료 교재제 포함(월 10만원)
마포구 대흥동 801-68
T. (02)713-4852~3
한국명리연구원

미국 한의대 입학 설명회
전문성과 국제적 감각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IMF 시대!! 경영 직업과 고소득이 보장되는 **미국 한의사 자격증**에 도전하세요.

● 설 명 회

지역	일자	시간	장 소
강북	98년2월 27일(금)	오후 2시~6시	비즈능 대학로 홍익빌 3층 (재래역 4호선 1.2번 출구)
강남	98년2월 28일(토)		대치은행 선주빌(기업은행 6층 재래역 2호선 선릉역 1번출구)
연사	David J. Park 박시 (사우스 베일로 유니버시티 총장)		
특전	당일 원서 제출시 수속비 전액 면제		

● 한의대 개요

학 교	사우스 베일로 유니버시티(미국 캘리포니아주 어바인시)
입학자격	대학 2년이상 수료자-본과 입학 고졸생 예과 입학 신공불문 98년 4월 입학가능
대 상	IMF시대 맞이 새로운 희망 드넓히는 드드문중 장년층 환영
특기사항	선과정 한국어 수업 가능 한의사 시험 한국에도 가능
비 자	학생비자(F1) 학생가족비자(F2)로 도두 입국 가능
전 망	미국내 한의 최대시장 점주권 최목 참글 유리 경쟁으로도전

E.P.S. Korea 본사에서 사우스 베일로 대학 입학담당 John Kim 교수가 매일 상담 합니다.
미국사우스 베일로 대학 한국 대표 본부 E.P.S. Korea
전화 : 02)964-7030 FAX : 02)3295-3930

氣明綾岾子
선센터 회원
개인적인 아픔이나 정신적인 고통 선으로 맑고 쉽게 풀어드립니다.
그룹환영, 생활속에서의 선,
살아있는 선으로
길을 찾아 드립니다
02)897-7731
016)340-4459
※개인상담 가능

• 장 의 •

불교장례문화를 선도해가는
● **아미타상조회** ●
갑작스런 장례로 인한 어려움을 경소에 대비하여 장례시 최적의 비용으로 최상의 장례를 치러 영가와 그 가족들의 평안을 도모키 위한 비영리 단체입니다.
▶하는 일 - 장례상담, 자가불자들의 불교식장례 대행, 스님장례전문 납골당 · 납골탑 알선 장지 및 이장업무, 천막 파종무 · 음식일선무외딕 노인 및 생활 보호대상자 무료장례장례 봉사 활동 불교의례 의식교육
■문의처 : 대전 등구 을전동
(사)대한불교법사회 녹야원 도서관내
042)625-1080(주 · 야) FAX (042)626-1080
호출 015)410-6586 H.P 011-455-1080
공주 (0416)856-3280

• 구 인 구 직 •

함께 일하실 불자
노력과 성실로 고소득을 원하시는 분
정년퇴임 · 명퇴하신분
◆ 특전 : 교육비 40만원, 초기 1년 활동비 지원,장학 · 경조 · 육아수당
현대해상화재보험
전화 02)959-8966~7
FAX 02)959-8968

대 모 집
■대 상 : 만 25세 이상 남녀
■기 간 : 1998. 2. 27~ 3. 5
■대 우 :
15일 교육후 30만원 교육비 지급
6개월까지 30~50만원 보장
입속에서 참자기를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 명퇴자 적극환영 ※
동아생명보험주식회사
051)818-7601~2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경남 사천시 곤명면 초량리 산 3번지
0593)854-0262~3
보 림 사

• 법 회 안 내 •

● **한 마 음 선 원** ●
혜원스님 초청 강남구 법회
● **주 제** : 시대의 어둠, 마음의 어둠, 한마음으로 밝힙시다.
● **일 시** : 1998년 3월 7일(토) 오후 5:00 ~ 7:00
● **장 소** : 강남구민회관 강당
02)565-4950~2
※ 3호선 대치역 하차 6번출구

• 불 교 용 품 •

◆ 보 리 수 ◆
취급 품목 : 각종 수입향 염주 불교악세사리 | 일체
남대문 자유 수입상가 구84호
전 화 : 778-5345
팩 스 : 777-1917

• 수 련 원 •

도원불교수련원(智庵精舍)
⊙ 개인 및 각 신행단체 수련 대환영 ⊙
본 수련원은 산세수려하고 맑은 물이 흐르는 곳에 위치하고 있는 불교전문 수련원으로서 일반 불자, 각 신행단체 및 가족단위의 불자들이 기도 수련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을 갖춰 놓은 도량입니다.
수련을 원하시는 불자들은 언제라도 전화주시고 오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院長 性潭 合掌
전화: 0374-32-7464 FAX: 0374-33-7464
주소 : 강원도 평창군 용평면 도사리 210-1
※ 명퇴자 대환영 ※

• 불 교 미 술 •

탁자, 닫집, 법상, 문짝, 불교조각
◇ 주 요 불 사 업 적 ◇
● 합천(해인사) : 대적광전 법상 경상
● 의왕시(대원사) : 대웅전 수미단 닫집 문짝
● 서울(백화사) : 법당 수미단 웅각 목전함
● 웅성(삼보사) : 대웅전 문짝
● 화천(법장사) : 대웅전 명부전 문짝
● 충무(삼덕사) : 대웅전 수미단 법상 경탁
● 마산(진관사) : 대웅전 문짝 닫집
● 포천(약천사) : 대웅전 문짝 닫집
● 단양(천진사) : 대웅전 수미단 닫집 경탁 경상
● 서울(학림사) : 회관 불사, 그외 다수 사찰
대진(전승)공예사 趙貴玉 합장
핸드폰 011-282-4609 자 택 02-248-4809
공 장 0346-571-9638 호 출 012-210-1401

무불스님 달마보급



연락처 : 011-841-3591

• 기 타 •

행운결혼상담소
모범허가업소로 **초재혼 회원모집**
만남에서 결혼까지
성심성의껏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02)960-4564~5

분자님을 위한 최문 광고회사
광고다운 광고!
"광고최문가와 만나십시오"
- 기업홍보 브로셔 제품 카다로그 리플릿 상품전단
- 이 미 지 메 일 심볼 로고작업 특수인쇄
- 신문광고 잡지광고 포스터 카렌다 POP
광 고는 대야 하는데 아무곳에나 맡길 수도 없고 아시는 광고회사가 없으십니까 ?
광 고 생고생해서 시작한 사업을광고(하지도 말라한? 잘못으로 낭패을 보시겠습니까 ?
전 화 주십시오 ! 놀이 아닌란마음으로 불자님의 광고을 최선을해 드리겠습니다.
문 제을 해결하라고, 걱정하보다 우위에 설 수 있는 생생한 광고을 제작해드리겠습니다
가 장 큰 광고회사는 아니지만 고객에 어느누구 없이 최선을 다하는 광고회사 **애드 · 윌** 입니다.
WILL
광고문의 :(02) 512-8868 · 8869 元着 합장

• 학 원 •

소운서예학원
강동구 상일동 124-1
(고덕6단지)
02)
427-5369

청우서예학원
하남시 창우동 320
은행APT.종합상가 303호
0347)
794-2818

• 사 찰 안 내 •

전국사찰-사정상 운영이 어려운 분이나 새로운 운영을 시작하실 분 전화주셔요.
성실히 연결하여 드립니다.
상담전화 : 02)723-4082
011)232-4082
전국무료전화직통 :
080)723-4082
광진불사
◇ 위치 : 제천시
◇ 부 지 : 700평(백미 5가마)
◇ 법 당 : 20평 주3포
◇ 요 사 : 50평 주차시설 완비
◇ 가격 : 1억 3천(전세도 가능)
◆ 약수가 풍부하고 신도수 약 70호로 산을 낀 청정도량으로 사정상 급히 양도합니다.
02)723-4082

◆ 사찰부지 : 630평
◇ 대웅전 : 24평(목조) ◇ 요 사 : 2동 × 방 6
◇ 매 가 : 1억 5천 ◇ 위 치 : 강원도 산속
◆ 사찰부지 : 500평
◇ 대웅전 : 27평 ◇ 산신각 : 8평
◇ 요사 : 50평 ◇ 매 가 : 3억 5천
◇ 위 치 : 경기도 서울에서 1시간 거리 산속
⊙ 사찰양도하실 분 연락 바랍니다.
(주)천 운 나 강 민 합장
0371)762-0101/ 011)735-4168/ 012)932-4168

사찰 전세 안내
◆위 치 : 안양시 중심지
◆법 당 : 40평
◆요 사 : 40평
◆가 액 : 전세 6,400만원
◆시 설 : 시설완벽 특A급, 시설일체 무상 기증
◆특 징 : 도심속의 기도 및 포교도량으로 안양시에서 가장 운영이 잘되고 있는 도량으로 시설일체 완벽하게 구비되어 있고 입주즉시 법회할수 있는 도량으로 정법대로 운영하실 스님께 시설일체 무상보시합니다.

※ 전국 사찰 및 포교원 급히 구합니다
사정이 있어 더 이상 운영이 불가능 하신 분은 연락주시면 좋은 인연 신속하게 찾아 드립니다
양도회 **사찰 법률, 세무도 무상상담** 하오니 많은 이용바랍니다.
단, 스님 외 속인, 보살, 무속인 상담은 절대 사양합니다
불교의 밝은 미래를 창조하는 기업
동국불사 불사담당 : 조법사 합장
상담전화 : 012)1648-6334
(24시간 호출중)
상담전화 : 02)512-4447
※ 출장중이 많사오니 호출을 부탁드립니다.

◇ 위 치 : 서울시내 북한산 국립공원 안
◇ 국유지 : 약 3천평
◇ 전통 목조 법당등 건물 6동
◇ 계곡, 기암괴석, 울창한 숲속
◇ 서울 강남까지 조망가능
◇ 가 격 : 협의
02)512-3092

◇ 위 치 : 강원도 영월 (제천에서 더 가까움)
◇ 평 수 : 730평(종교용지)
◇ 법 당 : 40평
- 산신각, 요사채 4동, 석등, 석탑,
- 방10개, 화장실
◆ 기도도량으로 적격임
◇ 가 격 : 1억 3천 5백만원(절충가능)
※ 서울에서 2시간 20분 거리
0373)374-1765

◇ 대 지 : 63평
◇ 대웅전 : 20평(2층 연와 단청)
◇ 요 사 : 35평(1층 주방 및 방사 4개)
◇ 가 격 : 2억 7천만원
※ 관악산밑 경관 수려한 기도 영험도량. 주변 아파트 일집지역으로 교통 편리하고 포교 최적지임.
사찰전문용역 **금강기획**
02)736-3578
02)736-3579
02)359-9492
핸드폰 : 011)789-2255

◇ 대구시내 포교원 20평 주택
◇ 사정상 급구함
◇ 법당 시설 완비.
◇ 가 격 : 보증금 500만, 월 20만원
◆ 여스님 환영.
053)653-4846
053)814-9325

◇ 서울 중랑구 면목4동
◇ 4층건물 2층 30평
◇ 방 2, 주방 1, 법당1
◇ 가 격 : 보증금 (시설비 포함) 2,500만원, 월50만원
※ 가격절충가능
02)438-2973
017)263-6908

◇ 위 치 : 부산시 금정구 서4동 190-20 시장입구 최고요지 - 백담사 포교원
◇ 건 물 : 3층 25평
- 법당, 주방1, 방1, 욕실, 화장실1
◇ 가 격 : 보증금 1,500만원, 월 15만원
◇ 후불평화, 신중평화 무료로 드림
051)524-7224
012)956-7879

◇ 위 치 : 경북 대구 달서구 성당시장 사거리 최고요지
◇ 건 물 : 3층집 3층 60평
- 법당, 큰방2, 요사채, 주방, 화장실,
- 종무소, 옥상사용
◇ 가 격 : 보증금 2천만원, 월 40만원
◇ 입주후 당장 법회할 수 있음
053)656-6609
053)654-7163

◇ 위 치 : 경기 북부지역
◇ 부 지 : 약 3천평
◇ 법 당 : 35평(신축불사)
◇ 요사채 : 2개동 외 수양관 있음
◇ 매 가 : 5억 3천만원
◆ 산세 수려한 유명 사찰임.
※ 사찰 구하시는 분 양도를 희망하시는 분 전화 상담 환영합니다.

◇ 비밀 절대 보장함.
◇ 신속한 상담전문
◇ 상담자 대기중
◇ 전화상담 환영!
좋은인연, 좋은기업
동양투자컨설팅
대표전화
053)755-6498
053)744-1713

◇ 위 치 : 서울 송파구
◇ 평 수 : 30평
◇ 가 격 : 보증금 2천만, 월 60만원
◆ 특 징 : 최고급 시설 완비
전철역 200m 지점
시설비 절충가능.
02)202-0990

◇ 위 치 : 서울 시흥 5동
◇ 법 당 : 25평
◇ 방 3, 부엌 1
◇ 가 격 : 천만원, 월 60만원
◆ 이사비용은 추가
011)746-3132
02)808-0414

◇ 위 치 : 김천(평당 삼만)
◇ 물좋고 산세좋은 사찰 기도원터 (현재 농장)
◇ 평 수 : 전 6천평, 그외 2천평
◇ 가 격 : 분할가능.
◆ 싸게 팝니다.
0547)33-4609

◇위치 : 경북 김천시 (전설이 있는곳) 계곡좋은 기도처
◇대지 : 580평(반듯한 사각형)
◇대웅전 및 요사채 지을 터 정리되어 있음.
◇건물 : 28평(현재 임법당외 방2개부엌1개)
◇기타건물 : 삼성각, 화장실, 차고
◇가격 : 1억 7천만원
◆ 일반인도 환영함(가든이나 별장으로 사용하면 적합하며 무속인의 집으로도 더없이 좋은 위치, 답사하실분만 전화바람)
0547)437-4135~6

◇ 위 치 : 관악구 신림동
◇ 대 지 : 53평
◇ 건 평 : 39평(2층 건물)
◇ 가 격 : 상담후 결정
02)885-4165

길을 묻는 이에게



대행스님

독자님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PC통신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의 대행스님께 여쭈어 응답해 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편집자〉

보낼곳: 우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FAX: (02)737-0697/8
PC통신: 인터넷부디피아
http://www.buddhapia.com/mem/hanmaum

법공양 페이지

바라는 것 없는 '무조건 믿음'은 공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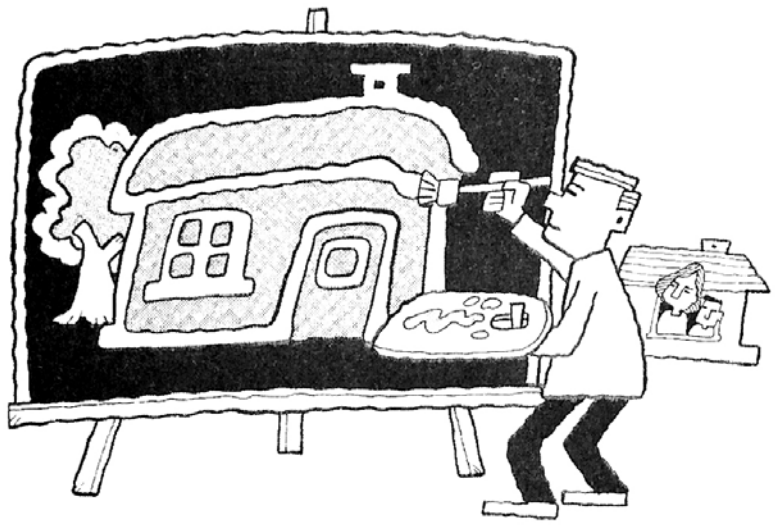


그림 · 최주헌

"놓고 살라고 해서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걸리지 말라는 거죠"

"밖으로 신통 찾다간 내집은 빈집됩니다"

"물흐르듯 자연스럽게 살면 탈이 없어요"

이 세상엔 온갖 생명들이 있습니다. 미생물도 있고 식물, 동물이 천차만별로 벌어져 있습니다. 그런 생명들이 점차로 차원을 바꾸면서 진화해 올라오는 것을 본다면 우리가 언제적의 부모이고 언제적의 자식이고 언제적의 친척이었던가 하는 걸 느끼게 됩니다.

모두가 그렇게 차원대로 모였다가 흩어지고 흩어졌다가 모이고 그랬을 겁니다.

마음의 차원에 따라서…, 마음이 깡통이면 깡통끼리 모이고 넝마같다면 넝마끼리 모이고 금은 금끼리 은은 은끼리 그렇게 흩어졌다 모였다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 모양으로 살다가 흩어지고 흩어졌다 모이고 하는데 뭣이 그렇게 잘못된 게 많고 탓이 많은지요. 정법이다 사법이다 꼬치꼬치 따지고 들어야만 하는가? 어린애적에는 모를 것이고 조금 커서 철이 들면 그만큼 알거고 아주 어른이 되면 이 세상 이치를 죄다 알거고…, 그것뿐인데 말입니다.

그래서 사탑이 좀 늙어서 물정을 안다면 젊은이가 노는데 가서는 젊은이가 되어주고 아이가 노는데 가서는 아이가 되어주면서 모르면 모르는대로 겸손하고 자비롭다면 얼마나 부드럽고 편리하겠습니까?

제가 항상 이 말을 하지요. 법당엘 올라가도 부처님 몸이 내 몸이요, 부처님 마음이 내 마음이니 둘이 아닌지라 거기서 삼배를 올려도 자아상보에 그대로 하는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부처님쪽으로 합쳐도 되고 내 쪽으로 합쳐도 되고, 이리 가든 하나요 저리 가도 하나가 아니냐 이거죠. 그렇게 공부를 해 나간다면 그 하나마저도 내세울게 없다는 걸 알게 됩니다. 부처님 뜻이 그대로 내 뜻이고 세존과 한자리 할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것이 자유인입니다.

이 세상을 가만히 보세요. 똥통의 구더기는 그 안에서 활보를 하는데 사탑들은 구리다고 피하지만 구더기는 보물을 만난 격이거든요. 이 세상살림 살이가 차원대로 그렇게 천차만별로 벌어졌고 거기서 연쇄적으로 잡아먹고 먹히는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다 이 삼천대천세계를 전부 태워버릴 수 있는 불씨 하나, 보이지 않는 불씨 하나로 돌아가지요.

그래서 여러분께 그렇다 아니다 하는 것을 몽땅 참자기 주인공에 맡기고 놓아야 한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참자기가 발현하지 않고는 도대체 만가지 맛을 알 수가 없습니다.

풍문에 스님도 신통력을…

문 IMF사태로 실업자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 여파인지 요즘들어 부쩍 점을 보는 사람들이 느는 것 같고 또 타력에 의지해 보려는 사람도 많은 것 같습니다. 풍문으로는 스님께서도 상당한 신통력을 보이신다는데 그 점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답 시쳇말로 오신통이 어떻다 하는 얘기를 들으신 것 같군요.

그러나 항상 말씀드리지만 오신통도 도가 아닙니다. 절대로 거기에 말려들어서는 안됩니다. 사람들의 과거를 알고 남의 속을 빤히 들여다 본다고 해서 그걸 보고 도력이 높다거나 신통력이 있다고들 하는데 설사 그렇게 안다해도 그건 도가 아닙니다. 누가 뭐라 해도 아닙니다.

아다시피 요즘 세상엔 망원경이다 무선통신기다 무슨 탐지기다 컴퓨터다 해서 인간들이 천리만리를 앉아서 보고 앉아서 듣고 하는데 그걸 도라고 하겠습니까? 그리고 누구나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오신통인들 대수이겠습니까?

사람들이 컴퓨터다 측정기다 무전기다 해서 만들어 쓰듯이 오신통도 내가 부하로 쓰는 것이지 그걸 장땡으로 알고 거기에 매달린다면 그저 노예이지 올바른 사람이겠습니까?

이 한점 마음이 전체를 돌리면서 쓰는데…, 내가 오관을 굴리고 한 나라의 대통령이 국민을 다스리듯이 그렇게 주인인 것인데 오죽이나 못났으면 주인이 거꾸로 부하의 부하 노릇을 해야한단 말입니까?

누구라도 눈 쓰고 귀 쓰고 코 쓰고 입 쓰고 손발 쓰고, 이 열속가락 십대제자를 부리고 하는데…, 그렇게 신통자재한데 말입니다. 그러니 안으로 찾으라는 것입니다. 밖으로 용한데 찾고 신통하다는데 찾다가는 빈 집이 되고 맙니다.

내 집이 빈 집이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온갖 벌레가 들끓을 것이고 잡다한 짐승들이 마구 드나들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다보면 고(苦)를 면하기는 커녕 그 반대가 되고 말겠지요.

놓고 사는게 참된 길인지

문 저는 한 집안의 가장으로서 지금까지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그러다가 얼마전에 명예퇴직을 했습니다. 그렇더라도 세끼 밥먹고 사는데 큰 지장은 없습니다.

그러나 왠지 인생이 허망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도대체 행복이라는 게 뭘까? 좋은 집? 좋은 차? 좀 편하게 사는 것?

물질문명이 발달해서 살기에 편리해졌다고는 하지만 옛날 농사짓고 살던 때보다 사람들이 더 행복해졌다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스님께서는 다 놓고 살라고 하십니다. 다 놓고 사는 게 참 사람의 길인지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답 놓고 살라고해서 돈도 벌지말고 사랑도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거기에 걸리지 말라는 것이지요.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가는 거 잡지 않고 오는 거 막지 않는다, 물이 흘러가다가 구덩이를 만나면 채우고 넘어가고 바위를 만나면 돌아서 가고…, 이게 자연의 법칙이 아니겠습니까? 자연의 법칙이면서 불교죠.

그럼 그렇게 살면서 불교를 참되게 알 수 있고 행복도 느낄 수 있고 참나도 발견할 수 있는가? 그렇습니다.

행복이라는 것도 내가 기준을 정해서야, 이러니 나는 행복하다고 한다면 사람마다 천차만별이겠지요. 그러나 우리가 손 한번 움직이는 것, 생각 한번 하는 것, 먹고 일하고 잠자고 하는 것, 이 모든 것이 나쁘고 좋고를 떠나서 우리한테 주어진대로 지극하게 한다면 그 자체로 이미 공한 것이라 그대로 자연스러운 것이 되죠.

불법이 따로 있고 생활이 따로 있는게 아닙니다.

가령 그림을 그린다고 할 때 우리가 수십가지 물감을 놓고 쓰는데 때에 따라서는 노란 물감을 쓸 때도 있고 파란 것을 쓸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색깔만 써야만 잘 그린 그림이다 할 수도 없는 거고 몇가지 물감만 써야 불법에 맞는다 할 수는 없겠지요.

어느 것을 쓰던 고정되게 쓰는게 아니고 그냥 쓰니까 쓰는 나나 쓰이는 물감이나 그냥 다 공했다고 하는 겁니다.

생활도 그렇습니다. 어떤 것을 할 때만 불법에 맞는다, 참선이다, 또는 행복이다 이러는 게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는 것 잡지 않고 오는 것 막지 않는 것이 자연의 법칙이다 이 말입니다.

거듭 말하지만 사랑을 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돈을 갖지 말라는 것도 아닙니다.

시쳇말로 하면 분수를 지켜라, 욕심을 갖거나 착을 두지 말아라, 그렇지 않으면 거기에 빠지고 노예가 되고 그런다는 것이지요.

억지로 하려니까 고가 생기고 얻어 맞고 죽고 그러는 것이지 가는 것 잡지 않고 오는 것 막지 않고 그렇게 물이 흐르듯이 자연스럽게 사는데야 무슨 탈이 있겠습니까?

그게 자혜로운 일이요 그 자체로서 불법이요 참선이요 보람있는 사탑이고 그렇습니다.

불교는 그래서 오늘 여기에 살아있는 불교인 것입니다.

'관' 하는 방법이 아리송

문 스님의 놓고 관하라는 가르침을 따라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관한다 화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확연치 않을 뿐 아니라 누가 누구를 지켜보는지도 아리송합니다. '관'에 대해 다시금 가르침 바랍니다.

답 내가 주인공 자리에 놓고 맡기라고 하니까 어디 놓을 곳이 있고 맡길 곳이 있어서 그렇게 하는 줄로 아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누차 말했듯이 주인공도 이름입니다. 일체는 공이니까 주인공도 공이지요. 하지만 미생물에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나를 형성시킨 주처, 즉 말하자면 영원한 생명의 불과 과거의식이 오늘의

☞ 18면으로 계속

법공양페이지는 동참을 원하는 종단 · 사찰 스스로 제작의 주최가 되어 각기 재량하에 소재를 선택하고 본 편집진과 함께 지면의 틀을 짜는 방식으로 제작됩니다.
법공양페이지는 약간의 실비부담만으로 종단 또는 전국 어느 사찰이라도 이용 가능하며 개인 불자의 경우는 특정 종단 또는 사찰을 지정하여 제작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생활속의 불교 160

우주의 주인이 될 가능성은 언제나 열려있다.

"내가 세상에 나고서 이 세상은 벌어졌다. 나로부터 이 세상이 생겼고 사회가 생겼고 가정이 생겼으며 나로부터 상대가 생겼으니 내가 나오면서 이 세상 우주 전체가 벌어진 것이다.

나를 빼놓고 무엇을 이 세상이라고 할 것이며 무엇을 진리라 할 것인가.

내가 이 세상에 있음으로써 일체 만법이 나로 인해 들고 나며 상대성으로 돌아가는 것이지 내가 없다면 아무 것도 없다. 만약 내가 없다면 태초가 어디 있으며 우주가 어디 있으며 현상계는 어디에 있다고 하겠는가.

그러므로 나의 참 모습, 진짜 자기의 뿌리와 씨를 알아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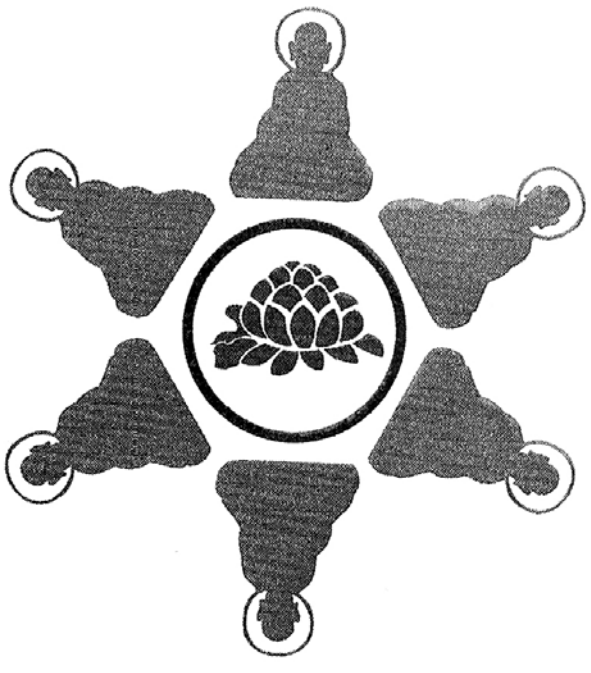
우리들 각자가 이 우주의 주인이라고 한다면 믿지 않을 것이다. 내가 모든 것을 창조해낸 장본인이라는 사실을 믿을 사람이 몇이나 되겠는가. 내가 곧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큰 일 작은 일의 결정권을 쥔 주인공이라고 한다면 그 말이 쉽게 믿어지겠는가.

내 눈 앞에 펼쳐진 저 광대무변한 현상계가 실은 그것을 인식하는 내가 있음으로써 비로서 모습을 드러내는 주관적 세계라고 한다면 다들 웃어버리고 말 것이다. 왜냐? 내가 뭐라고 하든 어떻게 느끼든 간에 현상계는 엄연히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내가 곧 우주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반박할 증거는 많다. 무엇보다도 내 주변에서 나를 둘러싸고 일어나는 일들의 대부분은 내 뜻과 상관없이 일어나고 있질 않은가. 내가 원치 않았던 일이 불시에 찾아오고 내가 바라지 않던 일들이 나를 괴롭히고 있는데 무얼 믿고 내가 우주의 주인이라고 장담할 것인가.

물론 인간이 자연을 지배하고 각종 문명의 이기들을 만들어 내고 심지어는 유전정보까지 조작해서 진화의 시간을 인위적으로 단축하고 종(種)의 변이에까지 개입하는 걸 보면 제한적이나마 인간이 우주의 주인으로 행세하는 것 같이 보인다.

하지만 이 광대한 세계를 좌지우지할 권능의 소유자라니?



그런데 왜 '내가 곧 우주의 주인'이라고 하는가? 눈을 뜨면 세계가 보이고 눈을 감으면 세계가 사라지기 때문인가? 그렇더라도 그것은 어디까지나 주관적인 세계일 뿐 그와 무관하게 이 현상계는 존재하고 있는 데 말이다.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르면 우리는 누구나 영원한 생명의 빛에서 왔고 빛으로 태어났고 빛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한다. 나뿐이 아니라 일체 만물이 역시 빛에서 태어났고 빛으로 돌아간다고 한다. 달리말하면 나를 포함한 일체 만물은 근본이 같고 탄생의 원리가 같고 돌아갈 곳이 같다는 것이다. 따라서 나와 나 이외의 모든 것은 언제나 어디서나 어떤 경우에나 조건에 구애받음이 없이 '같다'는 등식(等式)관계에 있다는 것이다. 마치 수 없는 원(圓)이 있어도 겹쳐 놓으면 동심원이 되는 것과 같다. 그러기에 주관적으로 인식하든 객관적으로 보든 내가 곧 우주의 중심이요 일체 만물과 둘이 아니게 된다는 것이다.

중요한 가르침은, 그 같다는 사실을 넘어 인간만이 그것을 알고 깨달을 수 있다는 사실에 있다. 부처님께서는 인간만이 각자의 마음을 통해 모든 것의 근원인 빛을 깨달을 수 있고 그럼으로써 빛과 하나 될 수 있다고 하셨다. 색과 공이 둘이 아니라고 하신 말씀도, 수행을 통해 열반에 이를 수 있다고 하신 말씀도, 깨달음을 통해 일체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나 대자유인이 될 수 있다고 하신 말씀도 바로 영원한 생명의 빛으로 돌아가 계합할 수 있음을 가르치신 것이다. 바로 이 때에 이르면 나는 곧 우주의 주인임에 손색이 없게 된다.

내가 우주의 주인이 될 가능성은 언제나 열려 있다. 마음이라는 통로엔 벽이 없고 거침이 없다. 다만 내가 나라는 존재에 대해 느끼는 우월감, 자존심, 자애심, 자만심 따위를 포기할 용기만 갖는다면 마음이라는 통로를 통해 빛에 닥아가고 아미타불과 하나되는데 아무런 제약이 없다. 그러나 우리들은 그런 포기를 두려워한다. 그런 포기 뒤에 무엇이 남을까 싶어 아예 시작하기를 거부하거나 주춤거린다. 우주의 주인도 싫고 그저 '나는 나의 주인'으로 남기를 고집한다.

그러나 그런 '나'가 죽지 않고 우주의 주인이 될 수는 없다. 죽어야 우주의 주인이 된다. 대자유인이 된다.

협찬 : 박건영

길을 묻는 이에게



대행스님

독자님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PC통신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의 대행스님께 여쭈어 응답해 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편집자〉

보낼곳: 우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FAX: (02)737-0697/8
PC통신: 인터넷부다피아
http://www.buddhapia.com/mem/hanmaum

한 생각 잘 쉬면 일체 苦 다 소멸

☞ 17면에서 계속

나의 근본이 되었으니 현재 의식은 그걸 믿고 모든걸 맡겨 놓으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면 금방 '과연 그럴까?' 하거나 '과거의식은 뭐고 현재의식은 뭔가? 또 영원한 생명의 불이란 뭔가?' 하고 따지려 들겁니다. 그건 아무리 따져보아도 머리로 알 수도 없고 말로 설명해서 알아지는 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말하면 또 '그럼 어떻게 아느냐?' 하실 겁니다. 그걸 알려면 현재의식이 근본자리와 계합이 되어야 합니다. 왜 부자가 상봉해야 참자기를 알게 된다고 늘 말씀드리지 않았던가요?

그래서 알고 싶거든 놓아라, 무조건 맡겨라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는 맛을 볼 수가 없으니까 말입니다.

그런데 무조건하고 놓고 맡기지는 않고 어디다 놓느냐 어디다 맡기느냐 하고 따진단 말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놓았는데 왜 안 되느냐고 합니다.

"무조건 믿고 놓고 맡기세요 본래 공하여 둘이 아니니까 조건을 달래야 달수 없습니다"

놓고 맡기는데는 아무런 기다림도 없습니다. 바라는 것도 없고 해 달라는 것도 붙질 않습니다. 주인공이 무엇인가 하는 생각도 붙질 않습니다.

또 놓고 맡겼는데 안 되더라 하는 것은 뭔가를 바라는 것이거나 의구심을 가졌다는 얘기입니다.

그건 진정으로 믿고 맡기는게 아닙니다.

어린 아이가 어머니를 무조건 믿듯이 아무 조건도 없고 형식도 없이 진정으로 믿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죽이든지 살리든지 주인공이 나를 이렇게 형성해서 끌고 가는 것이니까 알아서 하라고 맡입니다. 거기서 '나'는 쑥 빠지는데 실은 빠진다도 없이 그냥 하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 저것 따지지 말고 '주인공 당신 밖에 없어!' 하고 푹 엎어지라 이거죠.

건성으로 그렇게 해도 안되고 머리로 헤아려도 안됩니다. 무조건 믿는 것 그것뿐입니다.

굳이 말로 하려니까 그렇습니다만 왜 무조건이냐 하면 대상이 없으니까, 본래는 공하여 둘이 아니니까 조건을 달래야 달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관한다 할때도 지켜 볼 대상과 지켜보는 자가 따로 있어서 관하는게 아닙니다. 믿고 놓고 맡기다보면 그게 절로 관이 되는 것이란 말입니다.

처음에야 잘 안된다 싶겠지만 거울에 비춰보듯 관하다가 어느 때가 되면 거울도, 거울에 비친 내 모습도, 그걸 보는 나도 없는 무심관이 됩니다.

그래서 놓고 맡기고 관하는게 바로 참선이자 화두이기도 합니다. 말하자면 무조건 믿는 마음 가운데 놓고 맡기는 것도 있고 관하는 것도 있습니다.

부와 자가 상봉하자면 무조건, 지극한 마음으로 믿어야 합니다. 진정으로 믿을 때만이, 아주 사무치도록 무겁게 믿을 때만이 놓고 맡기는 것도 제대로 되고 관하는 것도 제대로 됩니다.

거듭 말하지만 머리로 헤아리려 해서도 안되고 말로 알아들으려 해서도 안됩니다.

집을 지을 때 설계할 줄 안다 해서 절로 집이 올라가는 것은 아니질 않습니까? 내가 직접 행을 해서 맛을 보아야 하겠지요.

불사 권선문 돌리는 이유

문 사찰에서 불사를 할 때는 대개 모연문을 짓고 신도들에게 시주공덕을 지으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스님께서는 법당불사를 하고 계시면서도 그 흔한 권선문을 돌리지 않으셨습니다.

돌리고 안 돌리고의 그 차이는 무엇입니까?

답 몇 해전에 법당 기공식을 할 때에 그 자리에 참석했던 법우님들께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래의 집이란 바로 여러분의 집이다. 스님네들의 집이다, 누구의 집이다 할 것 없이 그대로 여러분 각자의 집이다 라고 말입니다.

그러니 어떤 불사라도 각자의 불사요 모두의 불사이니까 스스로 마음을 내서 십시일반으로 많든 적든 성의껏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짓고 자기가 받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좋은 일을 했으면 좋은 일을 한대로, 지혜롭게 처신했으면 또 그대로 공덕이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가령 누가 은행에다 천만원을 예금했다면 그게 누구에게 돌아갑니까? 거기에 이자가 붙어서 자기에게 돌아오겠지요. 많으면 많은 대로 적으면 적은 대로 말입니다. 그래서 달리 걱정을 안합니다. 짓다가 어려우면 형편대로 하는 것이지요. 법우님들의 살림이 쪼들리면 내 마음도 불편하고 여러분들이 편안하면 내 마음도 편안하고 일체 제불의 마음도 편안할 것입니다.

그러니 권선문을 쓰고 안 쓰고가 무슨 대수이겠습니까? 내가 예금했으면 찾아 쓰고 일을 했으면 대가를 받듯이 이건 철칙입니다. 에누리가 없습니다. 이 점을 깊이 깊이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꼭 물질이어야 하는 것도 아니지요. 마음이 제일인데 무슨 일을 해도 조건없이 한다면 내 앞으로 예금이 되지요. 거기에 조건이 붙으면 예금이 제대로 되질 않습니다. 주는 사람도 받는 사람도 주고 받은 사이가 없어야 공덕이 됩니다.

시주하라고 강요하는 일이 있거나 권유받은 사람이 짜증나도록 해서는 안되겠지요. 더구나 불사를 핑계대고서 말입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자유롭게, 정말로 정성을 기울여서 한다면 서로에게 이익이 되고 서로에게 공덕이 되고 그러는 것이지요. 조금밖에 못했다고 걱정하고 많이 했다고 많은 것이 돌아오리라고 기대해서는 안되지요.



그림 · 최주현

"경계 놓았으면 그뿐 되새김질 말아야"
일체만물 한몸 한마음 '혼자공부 한계'

그런 마음이라면 언제 일체만물만생의 근원을 구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들의 공부에 이것도 포함이 됩니다. 내가 내 마음을 속이지 않고 진실하게, 정성스럽게 한다면 그것으로 족한 겁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집을 짓는 것이니까 알아서들 해야지요. 주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이나 심부름꾼이니까요.

언젠가 어떤 분이 그런 말을 합디다. 스님네들이 불사를 한다고 시주금을 끌어 모아서 불사는 성실하게 하지 않고 조금 떼어내서 부질없는 일에 쓴다고 말입니다.

뜬구름같은 행동이지요. 사람이 이 모습을 가지고 살면 얼마나 살 것이라고 그렇게 부질없는 짓, 지혜롭지 못한 일을 하겠습니까?

우리가 한 세상 살다가 죽으면 그뿐이라는 사람도 있겠지만 죽었다 하면 과거지사가 되어도 다시 돌아서 이 자리에 서면 그게 미래이자 바로 현실입니다. 삼세가 그렇게 일심으로 돌아가는데 마음가짐을 어찌 한순간인들 소홀히 할 수가 있겠습니까? 내 한생각에 극락과 지옥을 오가고 한생각 잘 내면 천지를 다 얻고 한생각 잘 쉬면 일체고가 다 소멸하는데 말입니다. 그러니 모든걸 다 공부로 돌려야 합니다.

그 마음이라는 것이 참으로 묘하고도 광대무변합니다. 이 마음이라는게 삼라만상 일체를 빚어낸 것입니다. 누구라도 이것을 알면 한 푼인들 어리석게 쓰겠습니까? 왜 일부러 긁어서 부스럼을 만들겠느냐 이거죠.

마음공부 혼자해도 되는지

문 불법공부라는 것이 결국은 마음 도리를 밝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 마음 밝히는 일을 혼자서 해도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남이 내 마음을 알 까닭도 없으니 말입니다. 가르침 주시기 바랍니다.

답 지금 입고 있는 옷은 누가 만든 것입니까? 나 혼자서도 얼만든지 할 수 있다, 떳떳하다 하는 마음이라면 남이 지은 옷도 입지 말아야 하고 남이 농사지은 것도 먹지 말아야 하고 남의 땅도 밟고 다니지 말아야 하고…, 그래야 할 게 아닙니까?

나 혼자서도 공부할 수 있다는 생각은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누가 대신해 줄 수 없다고 하는 것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생각을 좀 넓혀서 일체만물이 공생공용 · 공식하고 돌아간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세상에 혼자 되는 것은 없습니다. 더불어 먹고 더불어 살리고 더불어 주고 받으며 돌아갑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일체만물이 다 한몸이요 한마음이라고 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그렇게 사방팔방 인연도리로 얽혀 돌아갑니다. 바람이 불어 내가 시원하다고 느끼는 것도 인연입니다. 꽃이 아름답게 핀 것을 보게 되는 것도 인연입니다. 사람의 인연, 물의 인연, 바람의 인연…을 따라서 돌아 갑니다.

그래서 부처님 법이 법당에만 있다고 하질 않는 겁니다. 전체가 인연을 지으면서 돌아가는데 나 혼자 공부가 어디 있겠습니까? 천상천하유아독존이라고 한 것이나 혼자만 떳떳하다는게 아닙니다. 나로부터 벌어지면서, 들고 나면서 인연 도리로 돌아간다는 것을 알라는 뜻입니다.

천부경에 담긴 가르침은

문 개인적으로 관심이 많아서 '천부경'에 대한 해설책자를 여러 권 보았습니다.

읽고 나서의 느낌을 말씀드리면 어떤 신비적 요소가 깃든 가르침이라기 보다 일체유심조의 도리를 일러 놓은 것 같습니다.

제 생각이 바른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 〈반야심경〉 읽으셨죠? 그때 그시절에 사람이 태어나서 살고 죽는 도리를 일러주기 위해 천 · 지 · 인이 하나로 돌아가는 이치를 말해 놓았고 마음쓰는 법, 사람끼리 사는 법, 농사 짓는 법, 이 지구가 돌아가는 이치 등을 가르친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거기에 무시무종(無始無終)이란 말이 나오죠. 바로 무시(無時)입니다.

하나로 돌아가니까 무시요, 한마음이니까 삼천년전이나 지금이나 똑 같더라 이 말입니다. 또 나나 상대나 다 그렇게 돌아가니까 이 시간이다 저 시간이다 할 것도 없다 이 말입니다.

시간 공간이라는게 다 이름일 뿐입니다. 또 우리가 종(種)을 따진다 해도 내 생명의 근본이 있고 네 생명의 근본이 따로 있는게 아니니 무종(無種)이지요. 어떤 것은 근본이고 어떤 것은 근본이 아니다 라고 할 수 없으니까 말입니다.

우리 몸에서 정맥 동맥으로 피가 도는데 이게 따로따로 돌인 것 같지만 본래는 하나로 돌아갑니다. 정맥 따로 동맥 따로 도는게 아니지요. 이름은 다르지만 하나입니다. 그러니 무시무종(無始無終)이지요. 우리가 어느 때는 아버지가 되었다가 어느 때는 아들이 되고 형제가 되고 남편이 되지만 이름이 셋이든 넷이든 그게 '하나'로 돌아가고 자동적으로 그렇듯이 말입니다.

정신계와 물질계가 돌아가는 것도 무시요 무종입니다. 둘이 아니게 돌아가니까요.

보고 들은 것 기억 말라는 뜻

문 어떤 분이 자신의 체험을 적어 놓은 글을 보다 보니까 공부가 무르익어 가는 중에 어떤 느낌의 소리를 들었고 또 지옥구경 극락구경을 하게 되었는데 그 느낌의 소리가 말하기를 본것 들은 것을 절대로 기억하지 말라고 했답니다. 그게 무슨 뜻인지 궁금합니다.

답 먹어 보지 않은 음식은 먹고 싶다는 생각도 나질 않고 그 이름조차도 떠오르질 않지요. 그와같이 남이 맛본 음식을 말로 들어서 느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책에 써 놓은걸 읽어서 의문이 생겼다니 말씀 드리지요.

우리가 길을 가면서 한 발자국 떼어 놓으면 뒷 발자국은 과거가 됩니다. 하지만 내가 한발 떼어놓으면서 먼저 발자국을 붙잡고 늘어지지 않고 그냥 자동적으로 놓은 사이 없이 놓고 가듯이 본 것 들은 것도 그렇게 놓고 가야지 다 붙잡고 늘어져야 할까요? 일상생활을 하면서 그렇게 하질 않지요?

기억하지 말라는 표현이 좀 그렇지만 그 본 것 들은 것을 다 달달 외우고 가락이다 지옥이다 이름을 붙여 놓았지만 말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마음을 구하려 하고 어리석은 사람은 부처를 구하려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 절대로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는 마십시오.

불보살 명호 많은 까닭

문 불보살의 명호가 매우 많아서 한 권의 책이 될 정도라고 알고 있습니다. 어째서 그렇게 많은 불보살이 등장하게 되었는지도 궁금합니다만 이름따라서 역할이 제각각이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납득이 되질 않습니다. 부처님은 무소부재요, 시공을 초월해 계신다고 들었는데 그렇다면 구태여 각기 다른 명호의 불보살이 있어야 할 까닭은 무엇이겠습니까?

답 얘기 한마디 해드리지요.

한 숲속에 거대한 나무 한그루가 있었습니다. 그 밑둥에 난 구멍에는 뱀이 한마리 살고 있었고 나무 위에는 수많은 새떼들이 둥지를 틀고 한 가족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날 뱀이 가지 위로 올라가 새를 한마리 잡아 먹었습니다. 그러자 새떼의 우두머리가 목신에게 울며 하소연하기를 재판을 해서 뱀을 추방해 달라고 했습니다.

"불보살 이름 아무리 많아도 그 이름은 이름일 뿐 다 한 부처님의 나툼입니다"

재판이 열렸는데 새떼들이 주장하기를 우리 할머니를 잡아 먹었다, 조카를 먹었다, 딸을 먹었다, 누이를 먹었다, 동생을 먹었다…, 온통 들고 일어났단 말입니다.

그런데 뱀이 하는 소리가 '나는 한마리를 잡아 먹었지 그렇게 여러 마리를 먹지는 않았다' 하더란 말입니다.

새들은 여러 마리를 먹었다 하고 뱀은 한 마리 밖에 먹지 않았다고 한 것이죠.

그런데 뱀이 한 술 더 떠서 한다는 소리가 '한 마리를 먹었지만 먹은 새가 없다'는 겁니다. 새 이름도 없고 나도 이름이 없고 새 고기도 내 고기도 없고 새 마음도 내 마음도 없더라는 얘기죠. 그래서 재판관이 가만히 듣고 보니까 저도 본래는 없더란 말이에요. 재판하고 말 것도 없이 되어버린 거죠.

그런데 왜 새들은 여러 마리라 했고 뱀은 한 마리라고 했느냐? 실은 한 마리를 먹었을 뿐인데 새의 입장에서 보면 그 한 마리가 어느 놈에겐 할머니가 되고 또 어느 놈에겐 어머니가 되고 이모가 되고 누이가 되고 동생이 되고 아내가 되고 그럴테니 잡혀먹힌 그 한 놈을 부르는 이름이 죄다 달랐던 것이죠.

이렇듯이 불보살의 이름이 수천 수만이라 할지라도 그 이름은 이름일 뿐입니다. 이름!

부처님 한마음에서 이것 할 때는 이것대로 저것 할 때는 저것대로 이름을 붙여 부른 것이지요. 부처님께서 이름을 여러 개 지어 놓은게 아니라 사람들이 이름을 지어 그렇게 부른 것입니다. 가령 몸이 아픈 사람이 호소하니까 약사여래다 했고 곤궁에 처한 사람이 눈물을 흘리니까 지장보살이다 했고 불쌍한 사람이 호소하니까 너무나 가여워서 관세음보살이라고 했던 것이죠.

우리도 살아가면서 그때 그때 여러 이름으로 불리지 않습니까? 아버지도 되고 아들도 되고 형 동생도 되듯이 말입니다.

또 하는 일도 가지가지로 많지요. 출근하고 시장가고 청소하고 빨래하고 밥 짓고…, 그렇게 나투듯이 부처님께서도 그렇게 나투시는 거죠. 거기다가 사람들이 이름을 지은 것이구요. 아마도 나투심의 의미를 더 돋보이게 할려고 그때 그때에 맞춰 이름을 지었던 것 같습니다. '아버지'하기보다 '아빠'하면 더 정감이 느껴지는 것처럼 말입니다.

경계 두려워 자꾸 피해요

문 스님의 법문에 늘 감사하고 있습니다. 스님께서 어떤 경계가 닥치더라도 피하지 말고 주인공을 관하라 하시는데 평소에 그렇게 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젊어진 짐이 무거워서 때로는 두려움이 앞서고 간혹 막막할 때도 있습니다. 가르침 부탁드립니다.

답 항상 말씀드리듯이 믿음입니다. 지극한 믿음은 공덕의 어머니입니다. 내가 '주인공' 한 것은 이름인데, 참자기의 이름을 그렇게 지어 부른 것이지만 자기가 자기를 믿지 않으면 뭘 믿겠느냐 이거죠. 믿는다고 해도 건성으로 믿는게 아니라 진짜로 그리워서, 사무치도록 사모하고 진실로 사랑하라는 것이지요. 그렇게만 한다면 거기서 샘물이 터지듯이 그렇게 발현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참자기를 믿고 거기에다 일체를 맡겨놓고 나는 그저 주인에 의해서 오고 갈 뿐이다, 행할 뿐이다, 그렇게 믿고 가라는 것입니다. 믿고, 놓고, 간다 이거죠. 구태여 말로써 맡겨 놓는다 하지 않더라도 다들 그렇게 가고 있는데 그걸 모르고 '내가 한다'고 하니까 탈인 것이지요. 이 생각 저 생각 다 놓고 한번 맛을 볼 때까지 놓고가 보세요. 맛을 보고 나면 아마 하지 말래도 하시게 될 겁니다.

협찬 관음약국

국난극복 의지 디지털 대장경에 담자

팔만대장경 전산화 후원 전국 확산

작년 3만8천명 참여…12억원 모금
1백억원 목표… 2000년까지 접수

'국난극복과 미래 자손을 위한 회향, 21세기 디지털 팔만대장경을 만듭시다' 캠페인이 범국민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팔만대장경 전산화 작업에 후원인으로 참여하는데는 아무런 제한이 없습니다.

1가족 1경판 후원은 10만원 이상, 1가족 1경전 후원은 1백만원 이상입니다. 단체 및 기업단위의 후원과 함께 산망부모의 이름(영가)으로도 후원할 수 있습니다.

후원인 접수기간은 2000년까지입니다. 이때까지 1백억원의 후원금이 모여야 팔만대장경의 전산화 사업이 원만히 성취될 수 있습니다. 지난해 캠페인에는 3만8천25명이 참여, 11억7천여만원을 보내주셨습니다.

아래의 연락처로 연락해 경전에 올릴 가족의 명단(기업 및 단체의 명단)과 함께 후원금액을 알려주면 입금방법을 상세히 안내합니다. 사찰의 법회시 현장에서도 후원 약정 및 접수를 받습니다.

후원동참 문의전화 02-3785-0632, 팩스 02-793-0581, 통신 하이텔(go k80000) 유니텔(go k80000), 인터넷 http://www.members.iworld.net/~hederein

후원 동참해주신 가족 명단

서울특별시

▶양효원 엄희옥 양성욱(강남구) ▶변영환 문영아 변재상 변성원(강남구) ▶황재웅 원제성 황진우 황성우(강남구) ▶최영대 이경호 김미옥(강남구) ▶신혜선 정현 박찬서 이지선 박경림(성북구) ▶김철진 김명숙 김경미 김향아(성북구) ▶구경옥(송파구) ▶박귀금 조우제 조혜경 조홍래 조홍석(송파구) ▶박종권 최병순 박용우 박주연 박은정 김병학(양천구) ▶이상권 이미영 이재희 이정희(양천구) ▶하징수 이애숙 하상훈 하태원(양천구) ▶오명숙 정기향 정지연 정경민(양천구) ▶유영신 염태익 염충근(용산구) ▶박금용 박병일 박병영 박병묵 박상진(용산구) ▶최영복 엄필례(용산구) ▶윤옥자 김혁동 김국환 김종환 김상환 김기태 김경자 김미리(은평구) ▶이순자(은평구) ▶김무애강서거호 이명순 서정현 서명준(종로구) ▶고병관 성백희 고혜진 고세연(종로구) ▶조광옥(종로구) ▶장보은화(종로구) ▶박노갑 최정희 홍안나 홍소연 박미나(종로구) ▶김광연 박순화 김영달 오명숙 김유정 김광호(종로구) ▶한동휘 윤화선 한수민 한성민(중랑구)

부산광역시

▶서민자 안상룡 안효정(금정구) ▶정순철(금정구) ▶김옥이 장진규 장강수(금정구) ▶민경희 엄윤태 엄해주 엄현진(금정구) ▶이순덕 김만석 김조아 김조은 임미숙(금정구) ▶강완수(금정구) ▶김경수 김현주 김판석(금정구) ▶조수연(남구) ▶신영숙 김남일 김상일 김동하(남구) ▶최종순 박상갑 최종순 박민성 박소영 박수현(남구) ▶이우영 배영숙 이병기 이진숙 이태경(동구) ▶송미영 한청찬 한일한종훈 한민(동구) ▶김상필 임기무 임종칠 임경숙 임경옥(동래구) ▶곽해성 오영자 곽문정 곽문경 곽승환(동래구) ▶강영희 이정웅 이은숙 이은하 이선미 이기남 이영진(동래구) ▶김정영 김윤덕 이준점 임여상 임용수 임용훈(동래구) ▶윤정도(동래구) ▶김수길 박옥순 김동섭 김한섭(동래구) ▶조용주 안순남 이위남 조혜진 조익제 조종규영가(동래구) ▶김인식 전양수 김수현(동래구) ▶백상훈(동래구) ▶손혜영 손반야성(동래구) ▶백무용(동래구) ▶우경연(동래구) ▶오순호 윤주미 오상윤 오민경(동래구) ▶김성식 윤주리 김석진 김자경(동래구) ▶이승철 박봉자 이현동 이인호(동래구) ▶변현순 변충식 김기초 변성환 변영미(동래구) ▶정미경 정희도영가 정동석영가 정순철영가 허차진영가 이경아영가(부산진구) ▶이인철 이병국 양순자 이인수(부산진구) ▶최유녕(부산진구) ▶박행복 박수관 김선자 박현민 박지원(부산진구) ▶염명조 이맹순 염경원(부산진구) ▶김상율 윤갑숙 김은정 김명환(사상구) ▶문경희 이무준 윤말순 이길석 이혜원 이경민 문재현 박순덕(사상구) ▶김광록 안남규 안정환 안계영 최진태 김상호(사하구) ▶김보미 김보혁 이시병 이연우(사하구) ▶허유순 김길녀 허다영 허성현(사하구) ▶김대영 정순복 강희동 김수현(사하구) ▶현호진 허숙영(사하구) ▶유인곤 이차자 이옥영 박봉금 이수조 이수연(사하구) ▶김춘득 정순희 신혜영 김태영 김춘택 김정애 김춘자(사하구) ▶이상철 안경숙 이주연 이창희(사하구) ▶김종식 정춘혜 김두원 김두권(사하구) ▶성배경 한미정 성재원 성재호(사하구) ▶김길종 송정자 김혁(사하구) ▶박평호 송문자 박철 박경민 박미애 이응인 박순애 윤성진 이규성 윤시연(사하구) ▶임화택 문복덕 임대원 임대영 임대현(서구) ▶용영순 손규용 손희진 손남희(서구) ▶이일용(서구) ▶허세영 이미자 허성웅(서구) ▶정주연 정달문 백삼점 정주연 김인숙 정영윤 정영남 정숙경 정숙향(서구) ▶성상호 김춘자 성문찬 성창언(수영구) ▶박남근 김명심 박병선 박병진(연제구) ▶김영숙 박무곤 박용운 박희정 박은경(연제구) ▶김진옥 정규훈 김소득 정경현 정순호 정영현 정왕현(영도구) ▶용의화 김대현 김대용(영도구) ▶김귀향(중구) ▶이정숙 홍경우 홍은조 홍은희 홍봉진(중구) ▶김종웅 도영선 김형빈(해운대구) ▶권해숙 김복출 이면선 이승원 이동건 천필옥(해운대구) ▶김귀순 이정복 이정훈(해운대구) ▶박상훈 박형식 김정희 강경희 박대영 박지영 박동훈(해운대구)

경기도

▶서명환 장경옥 서경진(고양시) ▶이명복 이천용 이승원 이경원 이두원 이은영 윤민재 박미숙 문경희(과천시) ▶장미현(부천시) ▶양정숙(부천시) ▶이영예 박응규 이영예 박종수 박미영 김애란 박성배 박현지(부천시) ▶장재철 김광주 장우영 장영경(성남시) ▶조만수 김창배 김종인 김보미 김대전 최경영 최현석(성남시) ▶백승한 김남희 백동인 백지영(성남시) ▶박명숙 채건묵 박명숙 채지은(성남시) ▶한양순 이종학 이태훈 이나경(성남시) ▶박상욱 정성택 정윤용 정의분 정수정(성남시) ▶한숙도 한광동 박영란 한태호 한여진 한숙전 한명옥 한진원 한주연(성남시) ▶리제재 박숙자 정인숙 리정일 백은숙 리정찬 김미영 리선규 리인규(수원시) ▶정태인 이규주 정태인 이동현 이호윤(수원시) ▶박명옥 한수택 박명옥 한진수 한혜진 한현수(수원시) ▶노윤균 정현경 노진서(수원시) ▶박경제 강봉성 강한성(수원시) ▶권혜련 김학만 김진기 김명기(수원시) ▶조정옥 김재성 김지나 김현우 임해빈(안산시) ▶황수언 백해필 황한응(안양시) ▶김성규 김수민(안양시) ▶서인희 유병헌 유호곤(안양시) ▶한공석 조경이 한경미(안양시) ▶조중근 박봉희 조균호 최은경 조이현 조미혜(용인군) ▶김일수 이성진 김승해 김승인(의왕시) ▶정영복 이은욱 정원석(의왕시) ▶김한영 조희경 김연택(의정부시) ▶정병윤 최태순 정지수 정광섭(평택시) ▶강인선 신영희 강상표 강정표(포천군)

경상남도

▶정외한 정진옥 이화선(김해시) ▶진영애 강권구 강윤지 강지현(마산시) ▶강세희 변순옥 강인혁 강민영(마산시) ▶김용득 김영숙 김남철 김민재(마산시) ▶권재우 이위조(산청군) ▶하영안(양산시) ▶은종균(양산시) ▶김선미 한태원 심상출 한태섭 한영식 한영수(울산시) ▶권선옥 김준섭 김국태 김규성(울산시) ▶김민식 최귀남 김두현 김두경(울산시) ▶김현용(울산시) ▶김연주(울산시) ▶정용수 박귀숙 임종연 박영구 장병순(창원시) ▶이미경 이동열 이동근(창원시) ▶강원기(창원시) ▶최윤희(통영시) ▶서기조 최종준 최재호 백종주 배명세(통영시)

경상북도

▶남욱련 권형우 임남이 권민지 권선출 연기스님(경주시) ▶박윤선 배재랑(구미시) ▶곽태영(김천시) ▶오광웅 성문숙 오동근(성주군) ▶임형대 김영숙 임정규 임경희 김성필 임선복 김예빈 김예운 이희영 임선희 이선호 이선규 서영화 임선애 김성영(영주시) ▶이용칠 김순도 이말희 이진희 이주현 이난희 이주희 이감현(의성군) ▶배재한 김순화 배은설 배은해(포항시)

광주광역시

▶임정락 정순욱 임근석 임선주(남구) ▶한기창(서구) ▶정기호 최귀화 최윤순 정옥희 정현선 정송현 정다운 정지현(서구) ▶정운중 조미숙 정경원(서구)

대구광역시

▶정숙조 박윤나 김범수(남구) ▶예병환 신영순 예건희 예원희(남구) ▶박중식 김언순 박세열 강성희 박희정 박효정 박세진 서현주 박만성 박인희 박은정(남구) ▶김영순 김용달 김영순 김동희 김동성 이은경(남구) ▶김영규 장선녀 김태욱 이은주 김선경 김기훈 이덕규 김미라 이유원 이지원 구본준 김정원 구범모 구혜민(동구) ▶용재운 최공덕 용상순 장덕남 용정훈 용정희 용상열(동구) ▶배용덕 이순자 배수진 배지훈(동구) ▶이중국 손주조 이종우 이순란 이상훈(북구) ▶김상기 곽쌍분 김민경 김원제 김민지(서구) ▶박이부 김순연 박성용 박현주(서구) ▶이종익 이순하 이환수 이현령(수성구) ▶이진수(중구) ▶신상분 박재우 김영애 박소연 박지연 박수자(중구) ▶홍광식 홍승규 최점이 안영숙 홍희철 홍희경(중구)

제주도

▶오은숙 김성용 오은숙 김혜란(제주시) ▶고인아 이연교영가 이창식영가(제주시) ▶현춘심 현원경 김영자 현영곤 현진심 현승철(제주시) ▶고영종 이영자 고봉기 고관표 고경현(제주시) ▶채종량 허갑생 양경춘 체두원 체성민 김애숙 채인원 체성미 채영우(제주시)

※나머지 명단은 추후 게재합니다.

고려대장경연구소 (02)3785-0632~5

PC통신 유니텔 · 하이텔 팔만대장경 포럼(Go K80000)



是言曰諸善男子汝今莫發出家之心所以者何彼心無生不可得發汝莫爲異而保毛胎復次天子危更有人未論我所求出家者我復教彼如是言曰諸善男子汝今若不斷除煩惱如是汝則真實出家

尒時善住意天子復白文殊師利大士以何義故作如斯說文殊師利言天子世尊說法無所斷除善住意復問言何等不斷亦復不除文殊師利言天子實法不斷亦不除愛想行識不斷亦不除天子若復有人作如是念我除煩惱乃乃出家當知彼人則住我相住我相故則不見平等又見我故則見衆生見衆生故則見煩惱見煩惱故生刺除想天子彼若不見有我相者則不見他相無他相故則無我慢无我愛故則無吾我无吾我故則無分別无分別故則無動捶故則無戲論无戲論故則無取捨无取捨故無作不作无斷不斷無離无合無成无增無集无散無思无念無說无言如是則名安住眞

후원인에 이름새긴 각명지 우송

천년이상 보존 특수지…CD롬 발원문 수록

팔만대장경의 디지털화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고려대장경연구소(소장 종립스님)는 후원인들에게 각 가족의 이름이 새겨진 경판을 A4용지 크기로 뽑은 '각명지(刻名紙 · 사진)'를 대장경 연구소의 소식지와 함께 보내고 있다.

각명지는 한솔제지에서 특수제작해 후원한 것으로, 1천년이 지나도 변치 않는 보릿짚 색깔의 닥지이다.

고려대장경연구소는 또 '남북통일을 위하여' '가족의 안녕을 위하여' 등 후원인들의 사연을 팔만대장경 CD롬 타이틀 초기화면에 띄울 계획이다. 후원과 함께 디지털 경전에 담고자 하는 다양한 발원은 고려대장경연구소 담당자(김종훈 02-797-0585)에게 연락하면 된다.

도올 '벽암록 강의'를 듣고



불교의 선은 이른바 전공자가 아니면 이해하거나 다루기가 무척 어렵다. 사상의 오묘함과 난해함이 그 어떤 것보다도 크기 때문이다.

도올 선생이 간화선 최고의 오의서(奧義書)인 〈벽암록(碧巖錄)〉을 강의한다는 소식을 접했다. 동서양의 학문에 박학하다는 선생이 불교의 선사상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고 〈벽암록〉을 어떤 방식으로 풀어낼 것인가가 궁금했다. 한편으로는 선생이 가지고 있는 학문적 세계를 통해 편의적 시각으로 설명하거나 단순히 자구적(字句的) 해석으로 흐르지 않을까 염려가 있기도 했다.

그러나 기우였다. 선생은 불교와 선에 깊은 안목을 가지고 있었고, 그것이 선생의 박학다식한 면모와 어우러져 빛을 발하고 있었다.

선사들의 대화등 선적인 경지가 없다면 설명되기 어려운 내용들이 자연스레 언급됐고, 선사상의 핵심을 전체적으로 조명하여 가닥을 잡아주는 것도 두드러져 보였다. 또 조사들의 선세계와 삶에 대한 평전은 흡사 전법자가 아닌가 하는 착각과 함께 치의(緇衣)의 필자에게 숙연함까지 느끼게 했으며, 겸손한 학자적 태도는 선사상의 깊이를 부각시킴과 동시에 선생의 품격도 돋보이게 했다. 특히 문구 해석에서 낮은 품격의 용어를 내용에 맞게 섞어가며 풀이하는 것이 일상 구어체인 선어(禪語)의 형태를 잘 파악, 그 특색을 되살린 것으로 당시의 현장감이 느껴질 만큼 아주 적격이었다.

다만 아쉬운 점이 있다면 자구 해석이나 논리적 분석을 조금 줄이고 거기에 담겨진 본질적 의미에 대한 설명에 보다 많은 비중을 두었으면 하는 것과 실제 수행과 관련한 언급이 없었다는 점이다. 선의 지식적 이해를 갈망하는 청중들에 대한 배려임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자구나 논리에 치중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선의 본지에서 벗어나게 된다. 이론적 이해에만 그친다면 그것은 사선(死禪)에 불과할 뿐이다. 본인이 직접 실수(實修)하는 것이 선의 가장 중요한 요체이다.

12회(월1회) 중 3회까지 들었기에 강의가 많이 남아 있기는 하지만 처음부터 선실수에 대한 강조를 듣지 못한 것이 다소 아쉬웠다.

선사상 핵심 잘 짚어 실수행도 언급했으면…

종호〈동국대 강사 · 불학연구소 연구원〉

독 자 마 당

독자여러분의 글 · 사진 · 만화를 기다립니다. 채택된 원고에 대해서는 소정의 기념품을 우송해 드립니다. 보내실 때는 거주지 주소, 전화번호를 적어서 보내주십시오.

· 보낼 곳 : 우(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편집국
· 전화 : (02)722-4162
· 팩스 : (02)737-0698
· 천리안 : aeum
· 하이텔 : 34713

불자 종교편향정책 불만 새정부 해소 기대

지난 시절 특히 김영삼 정권하에서 수없이 자행되어온 종교편향책과 군부대내의 종교편향 파문, 일일이 나열하기 조차 부끄러운 사건들이 아닐 수 없다. 또한 해인사 골프장 건설 등의 사찰환경파괴 문제를 비롯 불교계와 정부간에 해결해야 할 문제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다. 물론 산적한 문제들의 해결이 대통령 개인의 노력에만 달린 것은 아니다.

그러나 국가 지도자의 종교관이 어떠한가에 따라서 정권과 종교계의 분쟁은 불가피한 것인지 아니면 실마리를 찾아 해결할 수 있는 것인지가 관가름날 것이라고 여겨진다. 김대중 대통령만큼은 종교를 바라봄에 있어 결코 자기만의 아집이나 편견에 사로잡혀 있지 않다고 믿는다. 그래서 어느 정권보다도 불교계와의 관계가 분쟁 진행형이 아니라 완료형이 될 것이라고 믿는 것이다.

신립〈28 · 강남구 개포동〉

해병 '예수부대' 발언 충격 군장교 종교중립 지켜야

지휘관의 관단과 말 한마디가 중요하게 작용하는 곳이 군(軍)이다. 특히 종교에 있어서 지휘관의 엄격한 중립은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는 가장 기본적인 요건이다. 그런데 해병대 사령관이 "예수님의 부대로 만들겠다"는 말을 해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지휘관의 엄격한 중립과 제도적 규제장치 마련을 위한 대책이 있어야 한다. 이와 더불어 불교계 내에서도 종교편향 감시활동과 군포교에 더욱 힘을 쏟아야 할 것이다.

조현창〈28 · 경기도 안산시 이동〉

시주강요에 불심 발돌려 탁발정신 전통 되살려야

서울의 한 유명사찰에 다니시는 부모님 말씀이 절에 들어가기가 무섭게 각종 불사를 내세워 매주 돈을 내라는 통에 가기 싫다고 하신다. 실제로 요즘엔 가시질 않는다. 절이라 하면 처음 찾는 곳이라 하여도 '공양 하셨습니까' 고 물어봐 주는 따뜻함이 있는 곳이라고 생각한다.

다시금 '탁발'의 정신으로 돌아가 진정한 불심으로 중생들을 이끌어 주기를 바란다.

이용호〈23 · 서초구 잠원동〉

사미(니) 호칭 · 의제개혁에 관하여

제 언



승가의 위계(位階) 확립을 목적으로 사미 사미니의 호칭문제와 의복에 가사색 띠를 둘러 구분키로 한다는 조계종단의 결정에 일본에서 오부 율장을 연구하는 학인으로서 의견을 낸다. 비구와 사미, 비구니와 사미니를 승계(僧階)로서 구분하고자 하는 취지에는 크게 공감하면서 늦게나마 시행하게 된 것을 환영한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할 점이 있다. 승가의 위계나 위의가 문제가 되어 사미 사미니의 호칭과 그 의제를 개선했다는 조문이나 문헌 등은 한역율장의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다. 그렇다면 사미 사미니의 의제 가운데 적삼 · 동방 · 두루마기는 깃과 소매, 장삼은 깃에만 가사색 띠를 두르게 한다는 조치는 부처님의 가르침 속에서 어떻게 설명되어야 하는가? 그리고 사미 사미니의 의제가 승가 내의 위계상의 문제가 되는 것이라면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는 왜 그때 구분해서 제정하시지 않으셨는가! 또한 한국과 같은 대승불교권인 일본 중국 대만 등의 불교국가가 교단에서 사미 사미니의 호칭문제와 의복에 관한 의제에 대한 이야기는 아직 들어본 적이 없다. 다만 본인이 베트남불교 교단과 법제사 연구를 위해 수차례의 현지조사를 통해서 베트남불교만이 오부대중(五部大衆)의 의복이 구분되어 있는 것을 확인했을 뿐이다(그 이유는 지면상의 이유로 생략한다).

율장 규정 없어…승풍확립 우선

승풍의 진작과 승가의 위계확립을 위해 필요한 제도로서 율장에도 없는 사미 사미니의 의복을 만드는 것보다는, 우리 승가의 위의와 가풍이 불분명하고 헤이해진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를 먼저 규명하고, 그 해답을 찾는 것이 순서가 아닐까. 또한 부처님의 기본 가르침인 지계(持戒) 생활에 입각해서 철저한 수행자로 정진할 수 있는 승가를 만드는 것이야말로 진정 승가의 발전과 위상을 높이는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

지관〈日 아이치가쿠잉대학원 박사과정〉

보살 52계위 비판에 대한 반론

본지 162호(2월26일자) '열린마당-52계위 포살참회법'에 대한 지관스님(일본 에이지대 박사과정)과 신성현연구원(동국대 불교문화연)의 비판과 관련해 포교원 포교연구실 사무국장 법성스님이 반론문을 보내왔다.

"재가자도 실천가능한 포살"



▲"대승보살 52계위는 보살지위에 들어간 자만이 가능한 실천행이자 서원(지관스님)"일까?

일타스님이 해석한 〈범망경〉에 의하면, 보살이 수행을 시작하게 되면 낮은 데서 점차 높은 데로 올라가고, 좁은 법에서 넓은 법으로 나아가 마침내 불위(佛位)인 극과위(極果位)에 오른다고 했다. 보살위에 들어가기 위한 점진적 수행과정이 대승보살 42계위 혹은 52계위다. 〈화엄경〉 〈범망경〉에는 모두 일관되게 대승보살의 수행은 반드시 발보리심을 근본으로 하고, 이 보리심을 戒의 로 하고 있음을 말하고 있다.

▲"포살의식은 바라제목차(계본)만을 외워야 하며, 대승보살 52계위는 포살에서 필요한 바라제목차가 아니다(지관스님)"는 견해에 대해.

대승계의 계목은 하나가 아니라 무진(無盡)이다. 계목이 구족계 250조목이나 십종 48경계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8만4천에 이른다. 이유는 심지법(心地法)이기 때문이다. 보살계를 받은 불자의 포살의식에 있어서 10중 48경계를 설계(說戒)하는 목적은 42현성법 혹은 52현성법을 수지함에 목적을 두기 때문이다.

▲"난해하고 모호…재가 실천불가(신성현씨)"라는 견해에 대해.

포살은 보살계를 받은 불자로 하여금 잘못을 참회하고 보살의 현성법을 지녀 점진적으로 범부위에서 현성위로, 나아가 佛位에 오르게 하는 신행의 문이다. 따라서 계를 설하는 것은 수단일 뿐이다. "재가 실천불가"라는 단언에 대해서는 도저히 동의할 수 없다.

이 견해에 따르면 재가불자는 근본적으로 대승보살이 될 수 없다는 결론이 되기 때문이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본 52계위 포살참회법의 행법차제는 〈범망경〉을 비롯 대승 경 · 율 · 론을 근거로 했음을 분명히 밝히는 바이다.

포살의 전통을 잇고, 이미 간헐적으로 이루어지는 재가포살의 방향을 새롭게 정립한다는 의미에서 재가 포살법을 연구한 것이다. 실제 포살을 실시하는 현장의 경험이 보완되어야 이 시대의 바람직한 재가 포살의 전형이 창출될 수 있다고 본다.

법성〈조계종 포교연구실 사무국장〉

불자 세상보기

부도…실직…집떠나 노숙하는 가장들

홈리스족 급증 '사회문제로'

가족의 변함없는 사랑 '묘약'

IMF한파로 '집나온 사람들'(Homeless)이 늘고 있다. 지하철이나 역 대합실에서 부랑자 노숙이 어제 오늘 일은 아니지만 최근에는 충분한 노동력을 지닌 30~40대의 '화이트칼라 홈리스족'이 늘고 있어 충격을 주고 있다.

서울역 지하도생활을 하고 있는 박모씨는 전자대리점을 경영하는 단란한 가장이었으나 사업부도로 빚쟁이에게 쫓겨다니다 떠돌이 신세가 됐다. 대학원을 졸업한 조모씨도 전자통신계통의 공장을 운영하다 부도내고 노숙자로 배회하고 있다. 부모의 가출과 가정의 붕괴로 버려지는 아이들도 늘어나고 있다. 불황과 함께 몰아닥친 개인 및 가정붕괴의 참혹함이 이제 현실로 다가오고 있는 것이다.

"회사 그만둔지 두달되도록 가족에게 얘기를 하지 못했어요." "졸지에 직장 잃은 게 분해서 술만 마셔댔습니다. 그랬더니 아이들이 정신병원에 입원하래요." "회사에서도 가정에서도 버림받았습니다. 더 이상 살 필요가 없어요."

요즘 '아버지의 전화'(대표 정송)에는 이런 전화가 많이 걸려온다. 선량한 아버지들이 어느덧 예비 홈리스족의 대열에 들어서고 있는 것이다. 상담원들은 "가족에게 몇달째 퇴직 사실을 숨기고 거리를 떠도는 이들이 가장 딱하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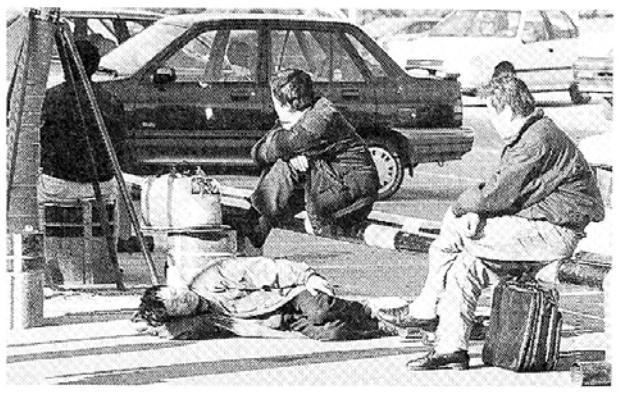
주간신문 '사람과 사회'의 실직자(대상 344명) 여론조사에 따르면 실직자중 64.5%만이 실직사실을 가족들에게 알렸다고 응답, 상당수 실직자가 혼자서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실직후 하루 일과를 보내는 곳은 구직센터가 33.7%로 가장 높고 집(29.4%), 공원(9.9%)순이다. 또 16.0%는 실직으로 자살 또는 방화 충동을 느끼고 있다고 답했다.

예비 홈리스족의 방황을 여실히 보여주는 통계다. 노조활동이 활발하지 못한 화이트칼라를 중심으로 정리해고가 본격화되는 올해 안에 100~120만명의 실직자가 새로 생겨 모두 2백만여 명의 실직자가 양산될 전망이다. 이에따른 홈리스족의 증가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 정부차원의 대책이 요구된다. 이와관련 서울시립갱생원 등은 얼마전부터 홈리스족을 전원 수용하기로 결정했지만 시설이 부족해 큰 도움이 되지는 못할 것으로 보인다. 또 정부는 최근 실업자 109만5천명에게 4조485억원을 투입키로 하는등 올해 실업대책을 확정했지만 역부족임에 분명하다.

아직 우리에게는 낯설게 여겨지는 홈리스. 그러나 국제사회에서는 이미 주요 사회문제로 인식된지 오래다. 미국의 홈리스는 2백만명, 유럽은 수백만명에 달한다. 일본은 90년대초 거품경제의 붕괴로 고학력 실업자들이 급격히 증가, 지하도와 공원마다 (때로는 자유분방한 삶을 위해) 천막생활을 하고 있다. 대체로 정부보다는 시민단체가 중심이 되어 구호활동을 펼치고 있다.

성옥련 중앙대 심리학과교수는 "경제능력을 잃은 가장들은 좌절과 무력감 때문에 방황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아내가 중심이 되어 가장이 가정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변함없는 사랑을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재경 기자



◇경제한파로 남의 일로만 여기던 홈리스문제가 우리사회의 고민거리로 부각되고 있다. 사진은 서울역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는 홈리스족들.
〈사진=고영배 기자〉

홈리스란 홈리스(homeless)는 영어의 의미 그대로 '집없는 사람'을 뜻한다. 역사적으로 홈리스의 원조는 고대 그리스 철학자 디오게네스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디오게네스가 자발적인 홈리스였다면 최근의 홈리스는 자의든 타의이든 치열한 생존경쟁에서 낙오된 경우가 대부분이란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이들은 범죄자처럼 조직적이지 않고 뿔뿔이 흩어진 개인으로 소외된 채 제 한몸 추스르기도 힘든 하루하루를 거리에서 살아가고 있다.

불교의 눈 "곡식창고 열어 이웃 도와라"

몇안되는 교계의 부랑인복지시설의 하나인 강릉시립복지원 강선욱 생활지도과장은 "을해 초부터 일반 부랑인의 10%에 달하는 멀쩡한 차림의 실직자들이 사·나흘씩 머물다 가곤 한다"며 안타까워 했다. 혜남 희망원의 임숙재원장은 "전보다 부랑인들은 많이 늘었으나 운영비가 폭등해 빚을 지면서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교계·정부의 지원을 호소했다. "세상에 재앙이 있고 일이 고르지 못해 흉년이 들어서 사람들이 굶주린 나머지 고향에 안주하지 못하고 등을 돌려 도망치고자 할 때는 마땅히 비심(悲心)을 일으켜 곡식 창고를 열어 가난한 사람들을 일시적으로 도와줌으로써 그 목숨을 건져 본토(本土)에 안정해 살도록 해야 한다."〈아난사사경〉 실직자들에게 몸과 마음을 쉴 수 있는 안식처로 사찰이 더욱 개방되어야 겠다.

이렇게 들었다

초·중·고·대학 대부분이 입학식을 거행하고 새로운 학기를 시작했다. 새로운 학문의 단계로 접어들면서 학생들 모두는 나름대로 목표를 세우고 성취를 위한 발원과 굳은 다짐을 한다. 시작의 다짐은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다짐만으로 자신과의 약속을 지키기란 쉽지 않다. 때로는 나태해지기도 하고 목표가 흐려지기도 한다. 시작의 다짐은 왜 중요하며, 어떤 마음가짐으로 출발의 의미를 새겨야 하는지 경전 말씀을 통해 들어본다. 〈편집자 주〉

시작의 다짐 "과녁 맞추려면 노력하라"

▨부처님께서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 "과거에 매달리지 말라. 미래를 원하지도 말라. 과거는 이미 사라졌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느니라. 꿈은 여기 현재의 일에서 가져야 할 것이니 이루고자 하는 뜻에 확고부동하여 흔들림없이 자신의 능력을 계발하여야 하리. 오로지 오늘 해야 할 일에 최선을 다해 땀흘려 노력하라. 〈중아함경〉

▨온갖 존재는 한량이 없으니, 학문을 쌓아야 비로소 진리를 깨달을 수 있을 것이다. 빗방울이 떨어져 시원스레 흐르는 물이 되는 것은 점점 모였기 때문이니, 무시윤회(無始輪廻)의 바다에서 보리심을 일으켜 금강도량에 앉아 불과(佛果)를 성취하는 것도 이와 마찬가지다. 〈제법집요경〉

▨"선남자야, 보리심을 일으키고 나서 해야 할 다섯 가지 일이 있으니, 첫째는 좋은 벗을 가까이함이요, 둘째는 성내는 마음을 끊음이요, 셋째는 스승의 가르침을 따름이요, 넷째는 연민의 정을 일으킴이요, 다섯째는 부지런히 정진하는 일이니라" 〈우바새계경〉

▨첫 발심할 때 정각을 얻는다. 이 때 사물의 진정한 본성을 알고 지혜의 몸을 갖춰 스스로 깨달음의 눈을 뜨기 때문이다. 〈화엄경〉

▨환을 쏘아 과녁을 잘 맞히는 사람은 그만큼 노력한 것이니 누구라도 잊지 않고 노력하면 과녁을 잘 맞힐 수 있다. 도를 빨리 얻지 못한다고 한탄하거나 물러서지 말고 부지런히 노력하면 반드시 도를 얻을 수 있느니라. 〈불반니홰경〉

▨모든 중생들 저마다 이익을 위해 각각 마음속에 바라는 것은 한가지이나 땀흘려 노력하는 자만이 그것을 얻으리라. 사업을 이룸에는 참아 이기는 것이 제일이니 뜻을 이루고자 하면 먼저 인욕함을 배워야 한다. 〈별역잡아함경〉

▨높은 관직을 탐내는 사람은 고관이 되고자 하는 마음을 일으켜, 그것을 위한 행위를 하게 마련이다. 무릇 욕구의 선악을 막론하고, 그 마음에 먼저 목표를 세운 다음에야 그 뜻을 이루게 되는 것이니, 그러므로 보리를 구하는 사람도 보리심을 일으켜서 보리행을 구하는 것이다. 〈발보리심론〉

▨모든 착한 말들을 기억하여 그것을 외우고 암송하라. 가섭과 아난은 8만의 법전을 모두 갖추어 지녔었고, 서역과 중국의 고승대덕들은 출가하여 어려서부터 익히기 시작하여 배운 모든 것을 외워 지녔다. 〈치문경훈〉

"민족문화 세계화에 노력"

김대중 15대 대통령 취임

김대중 대통령은 2월25일 오전 10시 국회의사당에서 임기 5년의 제15대 대통령 취임식을 갖고 집무를 시작했다.

김 대통령은 이날 '국난극복과 재도약의 새 시대를 엽시다'는 제목의 취임사에서 새 정부를 '국민의 정부'로 명명하고 정치개혁, 개혁을 통한 경제난 극복, 인간존중의 정신혁명, 교육개혁, 냉전적 남북관계 청산 등을 다짐했다.

김 대통령은 문화정책과 관련 "관광산업, 회의체산업, 영상산업, 문화적 특산품 등 문화산업은 무한한 시장이 기다리고 있는 21세기의 기간산업이다"며 "민족문화의 세계화에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이어 김 대통령은 북한과의 교류방안에 대해 "문화와 학술의 교류, 경제교류의 확대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김 대통령은 또 "환경을 보존하고 복지를 증진시키는 데 적극 노력하겠다"며 "청년을 위한 교육과 문화, 복지 향상에 아낌없는 지원 대책을 세우겠다"고 천명했다.

박봉 쪼개 불우이웃돕는다

롯데호텔 방재담당 직원 임영길(53)씨가 14년간 10여명의 소년소녀가장을 돌본 것으로 알려져 화제. 지금도 임씨는 3명의 소년소녀가장들을 위해 한달에 15만원씩을 내놓는 한편 20평 짜리 자택에서 주말마다 조촐한 가족모임을 갖고 있다.

서울 5만 공무원 헌혈운동

서울시는 2월24일 IMF여파로 인해 각 병원에서 혈액이 부족해 수술등 치료에 차질을 빚고 있는 것과 관련, 시 산하 5만여 공무원들이 모두 참여하는 헌혈운동을 벌이기로 했다. 시는 26일부터 3월5일까지를 추진기간으로 설정, 전 직원이 각 실·국별로 헌혈하도록 할 방침.

대구지검등 소년소녀가장 돕기

대구지검과 선도보호위원 대구·경북협의회(회장 김상구)가 벌이는 사랑나눔운동이 불우한 소년·소녀가장들에게 용기를 심어주고 있다. 이들은 2월19일 그간 모인 기금 1천만원을 한국복지재단 대구지부에 전달, 1백71명의 소년·소녀가장들에게 매월 후원금을 지급토록 했다. 사랑나눔운동은 서울에도 알려져 김태정 검찰총장이 최근 1백만원의 격려금을 보내왔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현재 3백3명의 회원이 참여, 5천5백만원의 기금을 더 모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실련-환경연합 10만명 고용창출 '산림가꾸기'

경실련은 환경운동연합과 공동으로 실업자 10만여명을 흡수, 국유림을 포함한 30만ha의 숲에서 풀베기, 어린나무 가꾸기, 덩굴제거, 천연림 보육, 버섯채취등의 산림작업을 결치게 되는 대규모 고용창출 프로그램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경실련 등은 이 프로그램 참여자에게 일당 4만1천원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3월12일 '생명의 숲 가꾸기 국민운동본부'를 발족키로 했다. (02)741-7961

살신성인 대학생에 명예학사

국민대는 2월23일 지난해 8월 강원도 오대산에서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하려다 익사한 이용재씨(李用在·26·경제학 4)에게 명예 학사학위를 수여키로 했다고 밝혔다. 학교측은 숨진 이군이 의협심과 함께 어려운 가정형편속에서도 우수한 성적을 보이는 등 귀감이 돼 이번 졸업식에서 명예학위를 수여하기로 했다.

연금공단 비리 57명 징계

국민연금관리공단은 감사원 감사와 자체감사 결과에 따른 공금횡령 등 2억원의 변태지출 비리와 관련, 부장급 1명을 파면하는 등 모두 57명을 징계했다. 이중 공단 본부 임모 부장은 95~96년 충남서부지부장 재직시 일용직 인건비 예산5백만원을 불법 전용해 야식대 등으로 쓰고 4백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파면됐다. 징계 대상자중 1급등 상위직은 1~3개월 정직등 중징계 했다.

상습 도박사범 52명 구속

수도권일대에서 상습적으로 불법 사설경마를 하거나 거액의 화투판을 벌인 도박사범 86명이 검찰에 적발돼 이 가운데 52명이 구속됐다. 수원지검 강력부(부장검사 강대석)는 24일 불법 사설경마 조직 2개파 17명을 적발, 한승봉(45)씨 등 8명을 한국마사회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빗나간 중학생 '컴도사'

강원도 강릉경찰서는 2월24일 통신망을 통해 자신이 직접 제작한 컴퓨터 바이러스를 침투시켜 가입자들의 프로그램을 파괴시킨 모 중학교 2년 최모(13)군을 컴퓨터등 장애업무 방해혐의로 불구속 입건. 최군은 지난해 6월부터 자신의 집에서 율곡바이러스, 미니바이러스등 12가지 컴퓨터 바이러스를 제작해 7월부터 무료통신망인 스마트라인, 키텔, 에듀넷 등에 접속, 통신 가입자들의 프로그램과 파일을 파괴시킨 혐의다.

새상품
"전자식 눈맛사지기"
컴퓨터, 스트레스, 과중한 업무와 학습 등으로 인해 혹사 당하는 눈의 피로를 시원하게 풀어주는 전자식 넹 눈맛사지기 '아이 119'.
1.5V 건전지를 이용 1분에 약 2500회의 진동 맛사지와 차가운 넹 찜질을 동시에 해주는 이 제품은 눈가의 경혈과 경락을 자극해 피로회복에 도움이 된다. 시력저하 방지와 눈가의 잔주름을 예방효과도 있다. (주)한길산업. 가격은 4만8천원. (02)636-7138



나는 지금 어느 헛됨속에 머물고 있는가.
내가 하는 수행은 과연 올바른 길일까.

중생과 세계의 참모습을 밝히는
능 엄 경 대강좌

유마선원장 이 제열 법사가 강의합니다.

● 일 시 98년 2월 23일부터 매주 월요일 11시
● 장 소 유마선원 법당
● 문 의 (0344)967-9122

※ 3호선 화정전철역 하차 덕양구청 입구

17년 동안 4,000여 명을 지도해온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엮어낸 살아있는 명상 안내



IMF시대에
얼어붙은
가슴을 촉촉히
녹여주는 따스한
지혜의 말씀

용타 스님 명상록
295면/값 7,000원

마음 알기 다루기 나누기

왜 각계각층의 많은 사람들이 '아하' 하는 감탄사를 쏟아내는가?

여러 해 동안 선방에서 수도한 수좌 스님,
세속 잡사에 찌들리던 회사원이며 선생님 및 가정 주부,
기업의 대표, 자신만 아는 자존심 강한 여대생,
대학 교수 등 숱한 사람들이 '모 수련회'만 다녀오면
'아하! 이것이 인생살이의 진정한 멋이구나.
그래 이게 바로 행복이며 해탈이야' 하고 무릎을 치고 만다.
선경, LG, 서광 등의 대그룹에서는 사원 심성 개발 프로그램의
일환으로서 여기에 참여시키고 있을 정도이다.
각 대학 심리학과 교수 및 학생들의 호응도 괄목할 만하다.
왜 그럴까? 마음을 알고 다루고 나누는 일들 하나하나가
구체적으로 감동을 주며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책에는 이 모든 놀라운 사건이
가슴 뭉클하게 메아리치고 있다.

이웃에게 전해주고 싶은 소중한 마음의 선물입니다

불교의 다양한 수행법과 신행체계를 명쾌하게 일러주는 신행지침서!

수행으로 가는 길



이제열 지음
259면/값 6,000원

한국불교가 불교 본래 모습을 회복하기 위한 길은 오직 수행뿐이라는 일념 하나로 수행과 포교에 매진해 온 필자가 불교 신행의 올바른 길잡이를 제시해 준다.

- 무엇을 믿고 어떻게 수행해야 하나?
- 기도의 의미와 올바른 마음자세
- 경전 읽는 법
- 염불의 자세
- 여러 가지 참선법
- 마음 다스리는 법
- 보살도의 실천

·생활 속의 수행법 등이 알기쉽게 담겨져 있을 뿐더러 감동 또한 뛰어나다.
-업·윤회·공(空) 등 불교의 기본 개념도 잘 설명되어 있다.

대원정사 대원정사 출판부 (02)754-1614/도서총판(대원사)(02)757-6717

시 론 IMF 극복의 지혜 ⑦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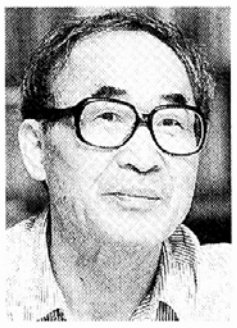
역사를 새로 쓰자

지난 겨울내내 우리는 금융파국으로 인한 총체적 위기에 처해 있다. 새 봄이 왔다고 해서 그 충격은 덜해지지 않는다. 그러기는커녕 이제부터 그 위기의 장기적인 실감은 우리 모두의 뼛속까지 파고들 것이 틀림없다. 이런 위기와 함께 태어난 '국민정부'야말로 우리 모두에게 땀과 눈물 그리고 고통을 요청하는데 서슴지 않고 있다.

IMF 이전에도 우리사회 썩고 과장되어 있었다

과연 우리가 갈 길은 멀고 험난하기 이를 데 없다. 이런 판에 국제통화기금 체제라는 세계경제장치로부터 해방되는 어떤 지혜가 쉽사리 찾아지는 것은 아니다.

지혜라는 것이 일을 미리 내다보고 거기에 대처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일을 당하고 난 뒤의 후회와 같은 것이기 십상이다. 그래서 지혜는 고대이래 패배의 교훈과도 단짝이었다.



고 은

〈시인 · 본지 논설고문〉

먼저 이 나라 사정이 여기에 이르기까지 그간의 정부가 아무런 해결도 시도해 보지 않은 채 무능으로 일관한 노릇 자체가 심판받을 대상인 것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그 정부가 물러났다고 해서 모든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이런 정부도 정부지만 이 나라 전문지식인 특히 경제이론들은 그간 경제학자들의 양산에도 불구하고 누구하나 금융위기의 도래를 예측하지 못한 일도 끔찍하다.

언론은 또 어떠했나. 매일매일 그 잘난 소리를 토해내는 언론이 이런 참변이 있기까지 언론 자체의 타대화에만 여념이 없었을 뿐 아무런 전망이나 예감도 없이 앉아서 당하고 만 것이다. 이만저만한 엉터리가 아니다.

사회는 사회대로 나날이 부황해지고 있다가 하루아침에 파산선고를 감수해야 했다. 이렇게 된 이상 누가 누구에게 손가락질하기에도 민망하게 되었다. 하지만 우리는 이대로 침몰되거나 국내외적 미아가 되어 유리방황할 수 없다. 우리는 살아나야 한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난다고 하는 것이 이렇게 되기 이전의 그 상태로 돌아가자는 것이 아님을 뼛속깊이 통감해야 한다.

IMF 이전의 우리란 누구인가. 이미 그 우리야말로 IMF 아니라도 다른 커다란 위기를 불러 일으킬 징후는 사회 도처를 가득 채우고 있었던 것이다. 요컨대 우리 사회는 아주 많이 썩어 있었고 과장되어 있었고 거짓이 진실을 압도하고 있었고 죽어가고 있었다.

정치 경제가 그랬고 문화도 그랬다. 종교라는 것도 대형화되는 것만 좇아갔고 진정한 종교의 목적은 어디에도 눈에 띠지 않았던 것인지 모른다. 이런 모든 사회 총체의 위중한 증상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짐작할만한 자각도 결여되기 십상이었다.

바로 이런 우리의 자화상을 통해서 어떻게 이 난세를 이겨낼 지혜가 나올 수 있겠는가. 오직 한가지, 우리는 여기에 풀썩 주질러 앉아버릴 수 없다. 어떻게든 필사적으로 일어서서 우리의 길을 가야한다.

가지 않으면 우리의 길도 더 이상 우리의 길이 아니다. 길이란 수행의 길이기도 하고 나 하나하나가 변화하는 삶이기도 하다. 그 길은 환한 지혜로 밝혀져서 가는 것이 아니라 거의 미혹의 길이고 어둠의 길이다. 그런 길을 비추어줄 작은 등불이라는 것도 여기저기 걸려있는 가로등이 아니라 저 스스로 빛을 내어야 하는 자등명(自燈明)의 길이다.

自燈明의 의지로 어둠과 미혹 헤쳐가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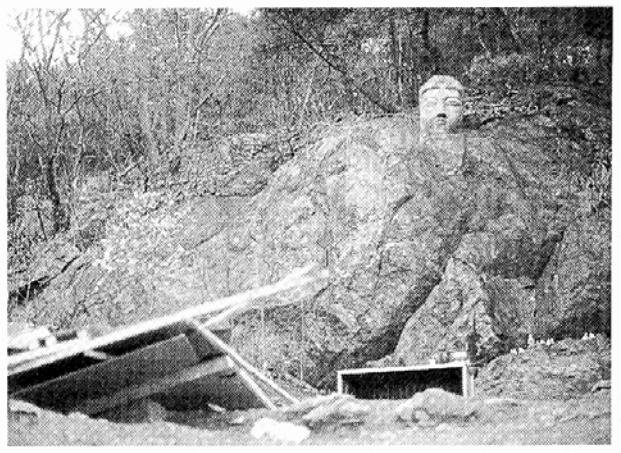
아마도 우리가 현대사 최대 위기국면 중의 하나인 이 사태를 기어이 벗어날 수 있는 한 그것은 이제까지 잘못 살아온 역사의 질(質)을 근본적으로 교체하는데 있을 것이다. 그래서 새로 쓰는 역사에의 민족적 시대적 각성만이 우리의 내일을 낳을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나라와 민족을 구제하는 방안들을 모색하고 있다. 그럼에도 특히 기득권층의 여전한 이기주의와 반역사적 수구현상을 비롯한 사회 각계 각층의 소아적(小我的)인 안보를 그대로 온존한 채 어떤 지혜도 있으나마나이다. 여기서 시작하는 것이다.

열린마당

지방국립박물관 지자체 이관

정부조직개편심의위원회가 18일 발표한 9개 지방국립박물관의 지자체 이관은 현실적으로 가능한일인가. 지방화시대에 걸맞은 미래지향적인 문화정책이라는 찬성하는 쪽이 있는가 하면 새 정부의 문화실종이라는 반대의 의견도 거세다. 특히 한국불교미술사학회 등 13개 학술단체가 일제히 성명서를 내고 정부조직 감량만을 앞세운 졸속행정이라며 재검토를 요구하고 나섰다. 지방국립박물관의 지자체 이관을 둘러싼 정부조직개편위와 지방국립박물관장, 지방문화원장 및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본다. 〈편집자 주〉



◇지방국립박물관의 지자체 이관은 문화재 관리의 혼란을 초래할지 지방문화의 활성화를 가져올지 아무도 모른다. 사진은 지자체의 보호 손길이 미치지 못한 채 방치돼 있는 하남시 금암산 마애불상.

"관리 전문인력 부족 박물관 기능상실 우려"

황수영 〈前 국립중앙박물관장〉

지방국립박물관을 지자체에 이관한다는 것은 경제적 문화적으로 성숙되지 않은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에 비추어 많은 문제점이 있다. 우선 각 박물관은 경제적 측면에서 각종 현안사업에 밀려 그 기능을 다할 수 없다.

문화재의 보존과 관리 측면에서도 모든 매장문화재는 국가소유인 관계로 지방박물관에 보관중인 문화재를 중앙박물관으로 이관해야 하며, 이로인해 중앙박물관은 보관시설의 확충과 전문인력을 확보해야 하는 이중고를 겪게 된다. 또 전시중인 국가소유 문화재를 중앙에 반환해야 하는 지방박물관은 대표적인 유물이 없어 상설전시기능이 약해지고 특별전시도 수준이 형편없이 저하되거나 아예 불가능해질 것이다. 이는 지방박물관을 지자체로 이관하는 원래의 의도와는 상반된 결과를 낳는 것이다. 자칫하면 매장문화재의 지자체 이관이라는 문화재보호법 개정을 둘러싸고 각 기관간의 이해다툼으로 번져 문화재관리의 혼란을 초래할 수도 있다.

지방박물관의 지자체 이관은 전문인력의 결여로 인한 박물관 기능의 상실과 문화재 훼손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없지 않다. 전문인력들은 신분보장이나 업무 고유성을 보장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이직할 가능성이 매우 크고, 연구직에 전문성과 경험이 없는 인사들로 충원하게 돼 박물관 고유기능이 크게 훼손될 것이다.

이와같이 지방국립박물관을 지자체로 이관한다는 것은 지금처럼 모든 조건이 열악한 상황에서는 아직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21세기의 문화대국으로 가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전통문화유산의 보존과 계승이 필수적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다.

"문화재 훼손 제동장치 없어진다"

안승모 〈국립대구박물관장〉

지방국립박물관의 지방자치단체 이관은 장기적으로는 합리적이긴 하나 현실적으로는 시기상조라고 본다. 지자체의 역사가 짧고 경제적 개발논리에만 물든 해당 지자체가 상당한 예산이 드는 지방국립박물관을 이관받으려 할지도 의문스럽다. 지난 95년 국립대구박물관 개관당시 재정자립도가 81.6%로 다른 지역보다 재정상태가 비교적 양호한 대구시의회가 박물관의 직접 운영을 주장하며 타당성조사까지 했다가 포기한 일이 있다. 박물관의 유일한 수익금이라 할 수 있는 입장료가 예산의 1% 수준에 그쳐 박물관 운영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판단이 섰기 때문이다.

문화재에 대한 보존과 전승을 배려하기 보다는 개발을 앞세워 문화재를 훼손하는 경우까지 생길지도 모른다. 그동안 지방박물관은 지자체의 문화정책을 견제하면서 박물관의 기능을 수행해 왔다. 그러나 지자체로 이관되면 박물관장도 단체장이 임명하게 돼 문화재 파괴의 제동장치가 없어지게 될 것이며, 이로인한 문화재 파괴가 가중될 것은 불에 본 듯 뻔하다.

지자체로의 이관이 박물관과 지역주민이 더욱 가까워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주장도 있는 것으로 안다. 물론 지방박물관의 주인은 해당 지역주민들이다. 지난해 국립대구박물관은 국립박물관의 지자체 이양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여론을 조사한 적이 있다. 4백99명의 의견을 들은 결과 반대가 50%로 찬성 27%보다 2배나 많았다.

새 정부는 문화정책에 있어서 좀더 신중한 태도를 보일 필요가 있다. 지금은 우선 이 안에 대한 재검토는 물론 공청회를 개최, 국민의 의견을 수렴해 나가는 노력이 절실히 필요한 때이다.

"문화유산 보존 재정적 뒷받침 필수"

장영석 〈부여문화원장〉

유물이나 국보는 엄격한 관리가 필요한 국가의 재산이다. 어떤 재산이나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소중하게 관리해야 할 선조들의 유산인 것이다. 국가적 가치가 있는 유물을 관리하고 보존하는 국립박물관은 국립이라는 명칭에 걸맞게 국가에서 관리 지원해야 한다. 이건 단순히 지방자치단체들의 재정력이나 문화재에 대한 인지도만의 문제가 아니다. 지자체들은 문화재에 관해서 국가가 전문적으로 다루고 투자하는 것에 비해 성의나 긍지가 아무래도 약할 것이다.

고속철도의 경주통과나 경마장, 골프장 건설 등 우리 문화유산이나 환경에 대한 고려보다는 지역발전이라는 표제로 개발정책에 급급해왔던 지자체의 실정을 보더라도 과연 지자체에서 박물관을 제대로 운영하고 투자할지 의심스럽다. 문화유산은 복구나 재생이 거의 불가능한 경우가 많고 그나마 보존처리과정도 전문적이어서 충분한 재정적 뒷받침도 필수적이다.

지자체가 재정력과 문화재에 대한 관리인력 등을 보강하더라도 각 지역 국립박물관의 지자체 이관은 바람직하지 않다. 법 자체가 사적 문화재 등을 지역 소유나 지자체의 재산이 아닌 국가의 재산으로 규정하고 있는만큼 박물관도 중앙정부 조직으로 있어야 한다.

역사의 흐름을 보면 알 수 있듯이 한 나라의 역사 속에 각 지방의 향토사가 있는 것이다. 문화재는 그 문화재가 출토된 곳의 소유물이 아니다. 유물 역시 지방의 유물이 아닌 우리 국민 전체의 유물인 것이다. 이 점을 생각한다면 이들 문화재를 보존 관리하는 국립박물관은 당연히 중앙정부의 관리하에 예속되어야 하는 것이다.

"중앙-지방 균형적 문화발전 위한 정책"

서필언 〈정부조직개편위 과장〉

국립중앙박물관을 제외한 경주부여 등 지방의 9개 국립박물관을 99년까지 지방자치단체에 이관하려는 정부조직개편심의위원회의 제안은 지방에 위치한 시설은 지자체가 관할한다는 지방화시대의 보편적 추세를 따른 것이다. 더욱이 지자제가 자리잡아 가고 있고 문화의 지방화를 촉진시켜야 할 시점임을 감안하면 당연히 한번쯤 생각해 볼 문제다.

물론 지역주민들이 문화재보존보다 개발을 원하는 경향이 적지 않다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관리를 지자체에 이관하기만 하면 문화재의 훼손이 더 가중될 것이라는 주장은 경계해야 한다. 개발과 보존의 문제는 근본적으로 문화재 관리에 관한 법집행에 달린 것이지 관리주체가 지방이냐 중앙이냐에 관련된 것이 아니다. 각 지역의 향토사학자나 문화재애호가들이 앞장서서 지역주민을 이끌어 나간다면 중앙정부보다 더 사랑하는 마음으로 문화재들을 보존하고 가꿔나갈 수 있을 것이다.

또 현재 각 지방박물관들이 겪고 있는 예산, 시설, 전문인력 등의 어려움을 개선하는 것이 선결과제라는 말도 나오고 있다. 현재 수준의 유물전시나 발굴 유지가 어려울 것이라 걱정하기 보다는 중앙정부가 예산과 전문인력을 보조해 주는 방안을 찾아 나간다면 쉽게 해결될 수도 있다.

현실이 어렵다고 해서 미래지향적인 문화정책을 무작정 유보만 시켜서는 안된다. 지금 당장 무엇을 하자는 것은 아니다. 99년까지 유예기간을 뒀듯이 중앙과 지방의 균형적인 문화발전을 위해 바람직한 문화정책의 방향을 모색하자는 것이다. 신정부가 출범한 만큼 지방박물관의 전문인력 확보, 재정적 뒷받침 등 구체적인 내용이 곧 가시화될 것이다.

"박물관학교 등 설치 관리능력 우선 제고"

정준성 〈문화정책개발원연구원〉

세계 문화정책의 모범이 되고 있는 프랑스의 경우 박물관의 운영은 원칙적으로 국가에서 담당한다. 문화재관리가 지방으로 이원화되면 조정이 어렵고, 프랑스의 중앙박물관이라 할 수 있는 루브르박물관 내에는 최고의 박물관학교가 있어 상당수의 전문인력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프랑스는 역대적으로 왕이나 대통령들이 문화유산에 대한 관심이 높다. 세계 최초로 문화부가 설치됐으며, 문화부 내에 박물관국이 따로 편재돼 전국의 박물관을 총괄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프랑스의 현실과 이상에 맞게 잘 구성, 유지되고 있다는 평이다. 전국의 국·도·시립박물관들은 중앙의 재정 및 인력지원을 받고 있는 등 중앙의 지도하에 일사분란하게 움직이고 있다.

연방국 체제의 영국은 박물관정을 두어 중앙뿐 아니라 지방정부 및 자치정부의 박물관 업무를 지원하고 있으며 미국은 연방정부에 박물관서비스연구소가 있어 박물관 지원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우리와 가까운 일본의 경우는 주요 유적지라 할 수 있는 도쿄·나라·교토·오사카·치바에 5개의 국립박물관을 두어 중앙정부가 관리하고 있다.

문화유산에 대한 국민적 의식과 기술적 수준이 우리보다 월등히 앞선 선진국들의 예를 보더라도 급하게 지방국립박물관을 지자체로 이관하려는 우리 정부의 문화정책은 재고돼야 한다. 우선 박물관학교나 학예관제도를 정립, 우수한 전문인력을 배양하는 일이 선행돼야 한다. 또 재정적으로 자립이 가능한 지자체가 박물관을 시범적으로 운영해 본 뒤에 결과를 보아 가면서 단계적으로 추진해 보는 방안도 고려해 볼만하다.

2천만의 깨달음을
참수행으로 이끄는 신행의 길잡이.

현 대 불 교

부산지사	051-634-5114
광주지사	062-375-9986
대구지사	053-768-8008
목포지국	0631-281-2534
속초지사	0392-636-3923
북인천지국	032-541-8770
청주지사	0415-63-3873
강릉지사	0391-43-5599
인천지사	032-461-3461
춘천지사	0361-241-0633
대전지사	042-625-1080
안산지사	0345-411-4580
진주지사	0591-747-0106
마산·창원지사	0551-84-0735
공주지국	0416-55-0020
고성지국	0556-72-0078
예산지국	0458-33-5097
포항지국	0562-252-7749
고양지국	0344-912-2323
영주지국	0572-34-3429

관음출판사

● 관음新刊!



哲學博士 曺誠佑 지음 / 값 12,000원

입기 쉬운 문답식 사주학 지침서

命理學 萬問萬答

금전 · 배우자 · 건강운
그리고 당신의 운명을 펼쳐드립니다.

지키고, 뜻도 세워 후회 없는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것은 행운(幸運)의 김흥을 짐작해서 화복을 조절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사람에 따라 자신이 모르고 있는 부분이 있을 것임에 이 모르는 부분만 중점적으로 터득하려면 문답식이 훨씬 더 효과적이 아닐까 생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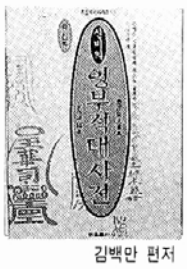


송월스님 著

사주학 핵심비결

운명학 기초에서 완성까지 가장 쉽게 정리하여 교재로 활용할 수 있는 국내 최초의 易書.

신국판/값20,000원



김백만 편저

신비의 영부적 대사전

부적을 집대성하여 최초로 공개하는 비밀스런 책입니다. 당신에게 요긴한 책이 될 것입니다.

A5신/양장본/35,000원



申 坪 지음

古典풍수학 설심부

눈에는, 보고자 하는 뜻이 있고 입에는, 먹고 말하고자 하는 뜻을 가진다. 산천은 풍세(風勢)와 수기(水氣)를 이루어서 대기(大器)를 형성한다. 사람도 여기에서 길러지는 것이니 인걸(人傑)은 지령(地靈)이라 하였다.

값18,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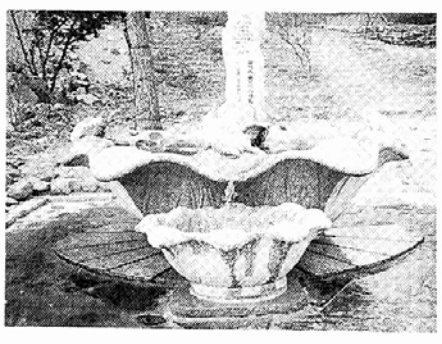
관음출판사 주소: 서울시 동대문구 용두동 751-14 광성빌딩
전화: 921~8434 팩스: 929~3470

석불, 천불전, 만불전; 석탑, 석등, 부도, 연꽃수각, 공덕비, 주춧돌등..

일 · 심 · 석 · 재

다양한 석재물을 만들어온 28년의 경험과 국제기능올림픽 입상경력으로
현재까지 정성으로 조성하고 있사오니 언제 어디서도 문의주시면
바로 찾아뵙고 인사드리겠습니다.







■ 기능올림픽 수상

작품 실적

- 전주시 효자동 일원사 불사 96년 초부터 현재 불사 조성중
- 108벌 오층석탑 완성
- 지장불, 미륵불, 비로자나불, 약사여래불, 아미타불, 대불 오불성전 완성
- 현재 좌불 만불전 조성중

※ 전국 각 사찰에 많은 불사를 하였습니다.

전북 익산시 금마면 동고도리 931-1
공 장 : T)0653-53-7527 F)0653-53-7527 자 택 : T)0653-833-4850
휴대폰 : 011-673-7527 BB : 012-672-7527
대 표 김 옥 수 합장

종단소식

조계종

동화사 4월10일 주지선거

대구 동화사(주지 무공) 선거관리위원회는 2월24일 동별당에서 모임을 갖고 4월10일을 신임주지 선거일로 확정했다. 따라서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 7일전인 4월3일까지 후보등록을 마감하며 선거일 20일전 이같은 내용을 공고할 예정이다.

법주사 소년가장에 장학금

취담 일현대종사 문도회(대표 윤월·철웅)는 9일 오후2시 마곡사 연화당에서 문도회의를 개최한다. 이번 문도회의에서는 정관 및 각종 문도 현안문제에 대한 안건등이 논의될 방침이다.

마곡사 일현대종사 문도회

보은 법주사(주지 혜광)는 2월23일 접견실에서 소년소녀가장 장학금 전달식을 가졌다. 이날 전달식에서는 소년소녀가장 10명에게 총 1백만원을 전달하고 격려했다.

태고종

묘법사 위기극복 방생법회



진해 묘법사(주지 이청은)는 2월17일 고성 문수사 저수지에서 신도 1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청정국토 구현 및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방생법회'를 봉행했다. 〈사진〉

공주 용천사 복원불사 지원

충남종무원(종무원장 장대연)은 2월26일 지난달 눈사태로 건물일부가 파손된 공주 용천사 불사를 돕기 위해 종무원 산하 사찰을 중심으로 기금마련 운동을 전개하고 용천사에 1백만원을 전달했다.

천태종

구인사 강원 졸업·입학식

구인사 강원(강원장 운덕)은 2월26일 인광당 5층에서 졸업식 및 입학식을 가졌다.

이날 행사는 총무원 관계자와 졸업생 8명 입학생 15명만이 참석한 가운데 조촐히 치뤄졌으며, 강원장의 훈시 및 상견례 등으로 진행됐다.

삼운사 차량안전 기원법회

춘천지회 삼운사(주지 월도)는 2월28일 법당에서 차량안전 운행 기원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법회는 2백여명의 사부대중이 동참한 가운데 봉행됐으며, 무사고 운행을 위한 촛불 점등식을 가졌다.

진각종

원정각 대종사 추모불사

밀각심인당(주교 회정정사)은 2월25일 대강당에서 원정각 대종사 추모불사를 가졌다.

추모불사는 무상제송 경전봉독, 추념사, 추모의 노래, 일동합장례 등으로 진행됐다. 또 차생활에 같들인 소품 전시회와 종조 회당 손규상 대종사 사진 전시회도 열렸다.

전국 심인당 열반절 법회

전국의 심인당은 15일 열반절을 맞아 일제히 불사를 연다.

성초 통리원장은 교도들에게 "열반절은 부처님의 자비심을 기리고, 불국토 건설을 위한 용맹정진을 다짐하는 날"이라며 "진정한 열반의 뜻을 새기고 자비의 행을 실천해 즉신성불의 길을 열어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보문종

보문사 국태민안 법회

보문사(주지 황법준)는 2월26일부터 28일까지 국태민안 및 경제위기 극복 3일 신중기도법회를 봉행했다.

법준스님은 "위기극복을 위해 누가 무엇을 해 주기를 바라기 보다 불자 개개인이 이웃과 나라를 위해 앞장서자"고 말했다.

총지종

전국교구 부국강병 불공

통리원(통리원장 총지화)은 2월19일부터 4월8일까지 49일간 전국 교구 단위별 진호국가 불공을 갖는다.

각 교구 교도별로 가정에서 진행되는 이번 불공에서는 수호국계주진언 '옴흠야호사'를 외며 국태민안 및 부국강병을 기원하게 된다.

알림 본란은 각 종단의 주요 공지사항 행사 등을 알리는 '종단소식'란입니다. 각 종단 총무원 및 지방 종무원은 언제든지 연락주시면 게재해 드립니다.
전화: (02)722-4162 팩스: (02)737-0698

신행포교 종합도량 충북 禪불교회관 '첫 삽'

10여개 단체 후원 내년 6월 완공
어린이집·교양대·법당 등 갖춰
불자전법·문화생활 중심지 기대



◇충북 선불교회관 건립추진위원회는 2월24일 선불교회관 기공식을 갖고 본격적인 불사에 착수했다.

충북지역 포교와 신행생활의 구심적 역할을 담당하게 될 선불교회관이 건립된다. 충북 선불교회관건립추진위원회(위원장 이만호)는 2월 24일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에서 정일스님(선학원 이사장), 혜광스님(법주사 주지), 주병덕지사(충청북도)등 사부대중 5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공식을 갖고 본격적인 불사에 착수했다.

충북 선불교회관은 연건평 1천1백79평에 지상5층 지하2층 규모로 내년 6월 완공예정이다. 1층 보시관에는 불교용품점 및 각종 편의시설이, 2층 인욕관에는 어린이집 등 청소년관련단체가, 3층 지계관에는 신행단체 사무실, 교양대학등이, 4층 문화관에는 공연장과 회의실이, 5층 지혜관에는 법당 선방 상담실 등이 입주하게 될 계획이다.

충북 선불교회관건립추진위원장 이만호씨는 "선불교회관이 청주불교 방송국과 더불어 충북 불교계의 흩어진 불심을 수습하여 포교환동의 중심축이 되도록 하는데 건립 목적이 있다"며 "승속을 망라해 모든 불자들이 신심을 다지며 각종 신행·문화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이다"고 강조했다.

충북 선불교회관은 92년 정일스님(선학원 이사장)이 건립을 발원, 청주청원불교연합회, 청주불교단체협의회, 충북예비역불자회, 청주운전기사불자연합회 등 10여개 충북지역 신행단체의 후원으로 6년여의 산고끝에 기공됐다.

한편 충북 선불교회관불사는 경제적 난국으로 불사가 총체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신행단체들이 직접 나서 불사를 추진했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충북 선불교회관은 지역 신행단체와 각종 문화생활을 위한 불교종합회관으로 자리매김할 예정이어서 향후 충북 불교계 신행포교의 새 지평을 열것으로 기대된다.

청주=김중근 기자

대구 신행단체련 정기총회
환경보호등 운영계획 확정

대구광역시 신행단체연합회(회장 유상종)는 2월 19일 거송가든에서 98년도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연합회는 이날 지난해 11월 열린 창립법회 결산내역을 공개하고 △조국평화통일불교협회 후원회 동참 △환경보호캠페인 전개 △훈할머니 돕기 △불우이웃돕기 탁발모금 등 13개항의 98년도 운영계획을 확정했다.

외국인 다도교실 열어
통도사 부산포교원

통도사 부산포교원(원장 심산) 국제포교부는 2월22일 외국인을 위한 다도교실을 개최했다.

외국인들의 한국문화 체험을 위해 마련된 다도교실은 부산 경남일원의 외국인 1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다도교실은 여란다회(회장 송옥자)의 다도시연을 시작으로 외국인들이 직접 다식과 다례를 배우는 순서로 진행됐다.

통도사 부산포교원 국제포교부는 다도교실에 이어 봉축연등만들기, 사찰답사 등의 프로그램도 준비하고 있다.

해병대 '예수부대 발언' 은폐 의혹

문제발언 테잎 소각
불교대책위 조사촉구

전도봉 해병대사령관의 "해병대를 예수의 부대로 만들겠다"는 종교편향 발언문제가 확대되자 당시 발언내용이 담긴 녹음테잎 등이 폐기됐다는 주장이 제기되 은폐의혹이 일고 있다.

군불교진흥회 사무국장 이하전법사는 26일 조계종포교원 기자간담회에서 "19일 밤10시 해병대에 근무하는 한 장교로부터 '전사령관 발언이 담긴 자료를 소각했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법사는 "이 장교의 요청에 따라 이름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해병대사령부 정훈참모실은 26일 "소각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소각 여부는 확인한 바 없다"고 밝혔다.

한편 전국불교운동연합 실천승가회 평불협 자비의전화 등 교계 7개 단체로 구성된 종교편향대책위 준비위는 2월23일 전사령관 종교편향 발언과 관련해 진상조사 및 해명을 요청하는 공문을 국방장관과 해군참모총장 해병대사령관에게 각각 발송했다.

준비위는 공문에서 △군종업무에 관한 훈령 제정 이후 일어난 일임을 지적하고 △엄중한 조사와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를 촉구했다.

광덕사·안양암서 이교도 난동

목사등 1백여명 "예수믿으라" 구호

천안시 광덕면 광덕사(주지 서광)와 안양암(주지 성탁)에 현직 목사와 전도사들이 신도 1백여명과 함께 침입해 훼불행위를 한 사건이 발생해 지역 불교계가 강력 대응하고 나섰다.

광덕사와 안양암측에 따르면 2월22일 오후 2시경 갈릴리 교회 소속 목사, 전도사등 1백여명이 경내를 무단 침입, 플래카드와 피켓을 들고 팽과리를 치며 '주예수를 믿으라' '회개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는 것. 특히 저지하는 비구니스님들을 향해 더 큰 소리로 대항하는 등 훼불행위는 30여분간 계속됐다. 이에대해 안양암 주지 성탁스님은 22일 갈릴리교회측에 전화로 정식 사과할 것을 요구했으나 현재(2월27일)까지 사과하지 않고 있는 상태다.

천안시불교사암연합회(회장 묵조·보광사 주지)는 2월27일 비상대책회의를 갖고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했다. 이날 진상조사위는 진상조사와 함께 갈릴리 교회측에 정식사과 및 지역 언론에 사과성명서를 게재할 것 등을 강력히 요구하기로 결의했다.

"현상태로" "전면해체"
익산미륵사탑 복원논란

우리나라 최고의 석탑으로 알려진 익산 미륵사지 석탑(국보 제11호)의 복원을 둘러싸고 논란이 빚어지고 있다.

일제시대때 덧씌운 콘크리트를 보충하는 선에서 현상태로 보존하느냐 아니면 전면 해체한 뒤 석탑의 원형을 보존하는냐가 주요 관건.

문화재 전문위원들은 "탑이 무너지면 심하게 산화된 옥개석 등 탑재가 산산조각나 복원이 불가능해질 것"이라며 "해체복원을 하되 모든 과정을 사진과 동영상에 담아 역사적 자료로 남길 것"을 제안하고 있다. 그러나 학계 일부에서는 "해체복원은 석탑이 지닌 참맛을 훼손할 위험이 높다"며 "붕괴 위험을 막는 선에서 지금처럼 허물어진 그대로 보존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히고 있다.

이에 따라 전북도는 최근 5천7백여만원을 들여 한국건설안전기술원에 현재 6층(본래 9층으로 추정)까지만 남아있는 석탑에 대한 정밀구조 안전진단을 의뢰, 결과에 따라 공청회 등 여론수렴을 거쳐 해체복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전남 사찰문화재 훼손 심각

운주사·쌍봉사등 위치·형상 마구 변경

광주 전남지역의 각 사찰들이 중창불사를 하면서 문화유적을 파괴하는 등 문화재 훼손 사례가 공공연하게 자행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2월18일 전남대 국제회의동에서 열린 제11회 전남 고문화 심포지엄에서 천득염교수(전남대 건축학과)는 '전남지방 전통건축의 특성과 원형보존 및 활용방안'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최근 장흥 보림사를 비롯 화순 운주사, 쌍봉사, 연동사지 등의 중창불사 추진과정에서 엄청난 문화유적의 훼손이 있었으나 이에 대한 법적 조치는 소홀했다"며 "사찰문화재는 국민 전체가 향유해야 할 문화유산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개인재산인 양 임의대로 위치·형상·구조 등을 변경하는 문화재 파괴행위까지 자행되고 있다"고 개탄했다.

천교수는 "사찰문화재의 훼손을 방지하고 보존을 위해서는 정확한 지표조사나 발굴조사를 통해 정확한 유적의 실태를 확인해야 하며, 문화유적권역 지정 등 장기적인 보존 및 개발의 마스터플랜을 세워 무분별한 개발을 방지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군승단, 군승복식 새로 제정한다

삭발염의 스님과 구별

군승단(단장 이희용)은 삭발염의를 하지 않은 군승이 가사와 장삼을 수하고 의례를 집전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종단과의 협의를 거쳐 새 군승복식을 제정키로 했다. 군승단은 빠르면 25일 열리는 군승단총회 이전에 새로운 복식을 확정, 시행할 방침이다.

이에따라 이희용 군승단장은 2월24일 월주 조계종총무원장을 방문, △가사와 장삼의 색깔을 바꾸는 방안 △새로운 형태의 법복 제작 △사미·사미니 복식제도에 착안 소매와 옷깃에 진청색 띠를 두르는 방안 등 3가지 안을 제출했다.

동서화합 천도재
25일 망월동 묘지서

영호남 화합을 위한 범패의식이 광주 망월동묘지에서 열린다.

동서화합을 위한 5·18 희생영령 위령천도대재 봉행위원회(위원장 삼중스님)는 25일 망월동 묘지에서 범패의식으로 천도재를 봉행한다.

이날 천도재에는 부산 대구를 비롯 경상남북도 불자 1천여명이 참가해 희생영령들의 넋을 추모한다.

돌부처 찾기 제보 받습니다 (02)722-4162

부처님조성·석탑·석등·석비·부도·불사건축·제작시공
효성석재공예사
귀의 삼보하옵고.
석물상 조각을 비롯하여 석탑 석등 등 사찰 경내의 모든 설치물과 조각품 뿐 아니라 어려운 현장 직업도 가능하오니 언제든지 불러주시기 바라옵니다
김 인 호 합장


◆ 주요불사실적 ◆
● 남한산성 성불사 - 아미타석불 석탑 석등 공덕비 제작설치
● 안 양 삼성사 - 석가탑 석등 사자상 제작설치
● 인 천 송도선원 - 원형천지탑 및 십이지신상 조성
● 경기연천 육군5사단 205부대(옛 심원사) - 아미타불 조성설치
● 日本京都 영산법화사 - 석물제작 수출 (그외 다수)
주소: 경기도 포천군 소흘면 송우리 227번지
전화 : 전시장 (0357)542-1527 야 간 (0351)874-4685
공 장 (0357)542-1528

염불 禪 철야정진
올곧은 자세로 심신을 이완시키고 특히 허와 턱을 완벽하게 이완시키고 불성의 운률에 맞춰 행주좌와 동정간에 불성으로 염불하고 자성이 귀로 듣는 일념의 수행으로 염불삼매 환희심에 찬란한 자성의 부처를 체험하십시요.
1. 염불수행시 허가 입천장을 탁탁쳐야 대뇌가 각성되어, 정신이 또렷또렷해지며 번뇌망상이 사라짐을 체험
2. 들숨시 염불이어짐과 자동으로 침이 넘어가고 몸이 흔들리지 않고 집중력이 좋아짐을 체험
3. 호레합장 염불은 자동단전호흡되며, 올곧은 자세가 계속 유지되는 완벽한 자세로 몸병 마음병, 전생병이 치유됨과 단전형이 뚫려 완벽한 호흡이 됨을 체험
4. 수행중 자금빛 부처님, 황금연꽃, 백색광명, 수행자의 몸에서 황금빛 오로라를 보게되며 업장소멸 체험
5. 목탁치지 않고 자성의 박자에 맞춘 염불삼매로 한두시간 정도는 손끝하나 까딱하지 않는 자세로 몸뚱이 집착 극복을 체험
6. 목탁소리나 타인의 염송소리는 잘 들리나 자신의 염불소리가 잘 들리지 않을때 자신의 귀를 스테레오로 들리게 하여 번뇌망상이 일어나지 않은 올곧은 염불삼매체험.
7. 염불수행시 무의식 자동단전호흡되고 수승화강되어 손, 발, 배는 따뜻해지고 이마와 정수리는 시원하며 머리는 맑고 또렷또렷해짐을 체험
8. 상근기가 아니면 화두참선하지 말고 염불소리 들으며 호흡을 세고 단전복부를 관하며 앉으나 서나, 가나 오나, 자나 깨나, 좋으나 싫으나, 식가모니불 명호를 끊임없이 칭명하면 자동으로 염불됨과 신비한 신통력을 체험 및 비전의 수행통해 일생 잘기, 몸살, 위장병 안걸리고 화병, 상기병, 불면증, 우울증, 디스크, 스트레스 쉽게 극복됨을 체험 특히 당뇨병, 고혈압, 지방간, 단시일에 극복한 수행자 많음
⊙수행내용 : 호흡에 맞춰 절하는법, 한글금강경 봉독, 참선기초수행, 와선호흡법, 행선염불, 신비의 도인 건강법
⊙공양미, 넉넉한 복장, 수련회비(2만원:한가족 동일)
⊙매주 토요일 저녁 9시~일요일 아침 8시 철야 용맹정진
⊙월요일~금요일 오전 11시~오후 1시:불자의 기본수행법 수련
출가희망자 수행체험(3일,7일,15일,30일,50일,100일)
「비전의 수행테크닉 전수로 올곧은 수행체험과 신심증대」
아름다운 소리산 물빛고운 소금강 법왕정사 수행원
경기도 양평군 단월면 석산리(인이피 마을) 소리산 참선캠프
☎ (0338) 71-7745 (수행상담시간 오후 5시~8시)

홍화마을
홍화씨로서는 우리나라 최초로
미국식품 의약품안전국(F.D.A)
품질공인!!
홍화씨의 효능은
이제 국민 모두가 잘 알고 있습니다.

민속 홍 화 씨
작목반 박 래 환
TEL 053)943-9371
02)3431-0743/0522)61-4424
FAX 053)943-9371

현수막
불기2542년 부처님 오신날 대한불교 조계종 조계사
공 봉

⊙ 부처님 오신날 현수막에 부처님 사진을 칼라로 넣어서 제작해 드립니다.
⊙ 공정이 복잡하여 미리 주문을 받고 있으니 미리 신청하여 주십시오.
⊙ 가격: 5m × 90cm에 ₩35,000(배달비 포함)
한울기획
(02) 474-2040
474-2041
FAX : (02) 477-2316

출소자 갱생생활관 건립

한사연, 경주 원효사에 '불광원' 4월 기공
불교용품 제작 등 재활프로그램 마련

불우한 출소자들의 재활복지시설인 제2생활관 불광원이 교계 최초로 건립된다.

경주 한국불교사회연구원(원장 돈관)은 2월 12일 불광원건립추진위원회(위원장 성타스님·조계종 포교원장) 회의를 갖고 불광원을 천북면 원효사에 건립키로 하는등 세부사업을 확정했다.

이에따라 불광원건립추진위원회는 4월 13일 원효사에서 '불광원건립기원법회 및 기공식'을 갖고 본격적인 불사에 착수한다. 불광원은 6월까지 5백여평의 대지에 건물 1동을 신축하고 10여명의 출소자를 영입해 6개월간 시범운영한다. 재소자들을 위한 재활사업도 병행된다. 재활프로그램은 염주, 목탁, 지화등 불교용품제작사업과 직업알선, 심성교육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특히 불광원건립위원회는 '범죄자'라는 특성을 감안해 청송감호소 측과 유기적인 관계를 맺고 재활을 위한 정보도 공유할 계획이다.

한편 불광원건립추진위원회는 6개월동안 불광원이 안정적으로 운영되면 시설확대는 물론 재활을 위한 직업교육도 추진한다는 복안도 갖고 있다.

이와관련 성타스님은 "교도소 재소자들에 대한 교화활동은 꾸준히 펼쳤으나 막상 출소자들이 사회에 나와서 바르게 생활하고, 불자로 다시 태어나도록 이끌어주는 복지시설이 전무해 안타까웠다"며 "불광원 건립은 포교역사에 한 획을 긋는 대작 불사다"고 강조했다.

한편 타종교의 경우 전국적으로 많은 갱생보호복지시설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인가를 받은 시설만도 기독교는 서울 남안 선교회등 6곳, 천주교는 대구 출소자의 집등 2곳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밖에도 사설적으로 운영하는 시설이 상당수 있다는 것이 교정인들의 얘기다.

〈김중근 기자〉

장례식장 사설납골당 설치자금 70억 지원

복지부 5월 한달동안 융자신청 받아

장례식장과 사설납골당 설치를 위한 자금 70억원이 지원된다.

보건복지부는 장례식장 현대화와 사설납골시설 건립을 지원하기위해 특별회계자금 70억원을 확보, 오는 5월 한달동안 융자신청을 받는다고 최근 밝혔다.

이중 장례식장 설치자금은 총 50억원으로 건축비의 70%범위내에서 지원되는데 전문 장례식장 신축은 연건평 3백평 이상일 경우 1개소당 7억원이하, 병원 장례식장신축 및 증·개축은 1개소당 4억원이 지원된다.

20억원이 지원되는 사설납골당은 신축비 또는 설치비의 50%범위에서 지원하되 2백30평 이상을 신축할 경우 1개소당 5억원이하, 50기 이상의 납골묘 설치는 1억5천만원까지 재정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융자금의 이자는 연리 8.7%로 5년 거치 7년 분할상환하면 된다.

신청자격은 장례식장, 납골당, 납골묘를 설립하기위해 건축허가나 설치허가를 받았거나 융자신청일 현재 건축허가를 신청한 사람은 누구나 가능하며 지방자치단체, 법인, 종중·문중 등도 신청할 수 있다. 대상지역은 전국이지만 수도권과 6대 광역시 등 인구밀집지역에 설치하는 경우 우선 지원된다.

신청은 융자신청서와 구비서류, 담보능력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 관할시·군·구청에 접수하면 되며 6월중 보건복지부가 각 시·도별로 신청서를 모아 검토한후 최종 사업자를 선정한다.

문화·환경운동 추진

청교련 올 사업 확정

대한불교청소년교화연합회(회장 현성스님)는 26일 총회를 갖고 98년 사업계획 및 2억7천여만원의 예산을 확정했다.

청교련 중앙본부는 △문화기행 △청소년 큰잔치 △눈밭축제 △종합예술 경연대회(5월17일) △건전 소비문화 다짐 캠페인 등의 행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 각 지부 지회와 공동으로 환경운동, 자원봉사를 주축으로한 활동도 벌인다.

한마음선원 IMF 극복모임

7일 강남구민회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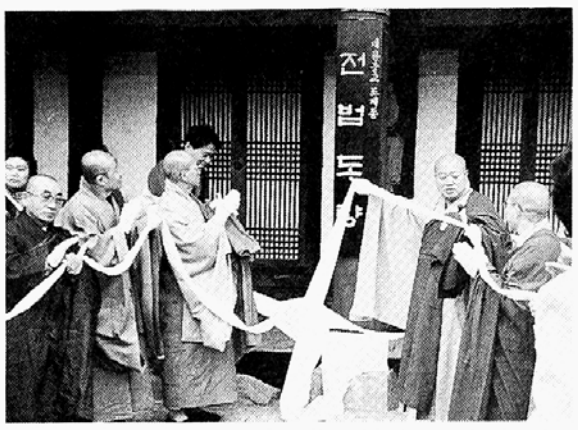
조계종 한마음선원(원장 대행)은 7일 오후 5시 강남구민회관에서 'IMF를 이기는 우리들의 모임'을 개최한다.

'위기를 극복하는 지혜란 주제'로 마련되는 이날 모임에서는 한마음선원 주지 혜원스님의 법문과 나라사랑 금 모으기 운동 동참 및 한민족 돕기 모금행사에 대한 강남지역의 동참결과를 분석,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참여운동에 대한 토론등이 진행된다. 한마음선원 어머니및 청년합창단의 음성공양도 마련된다.

'고통나누고 내가 먼저 베풀 것' 등
직지사, IMF 실천지침 마련

김천 직지사(주지 녹원)는 2월 22일 파크호텔에서 본말사 신년교례회 및 신도회 정기총회를 갖고 고통을 나누고 내가 먼저 베풀 것등 3개항의 IMF실천지침을 마련했다.

이날 법회에서 직지사 주지 녹원스님은 "불교는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마다 위대한 업적을 창출했다"며 IMF 시대 극복을 위한 실천지침을 제안했다. 이날 제안된 실천지침은 △부처님을 공경하고 정법을 배울 것 △꾸준히 기도하고 정진할 것 △고통을 나누고 내가 먼저 베풀 것 등 3개항이다. 직지사는 중앙승가대 묘우스님(3학년) 등 11명에게 장학금도 지급했다.



"여기는 전법도량" 조계종 전법도량지정 첫 순회법회가 27일 서울 봉은사에서 현판식과 함께 열렸다.

전통사찰 주변 개발 '불가능'

환경보전법 시행…자연경관 훼손 방지

앞으로 전통사찰주변과 해수욕장 인근 숲, 도로변의 거목 등 자연경관이 뛰어나고 생태계가 잘 보전돼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개발제한을 할 수 있게 된다.

환경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개정·공포돼 2월 26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르면 생태적·경관적 가치가 높은 전통사찰 주변과 해수욕장 인근 숲, 도로변의 거목, 암석·암벽·폭포·해안선 등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입목의 벌채나 토지형질 변경시 제한을 가해 자연경관의 훼손을 방지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따라 전통사찰 주변환경의 무분별한 개발에 제동을 걸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지금까지 이들 지역에 대해서는 아무런 제한 조치가 없었다.

환경부는 이와 함께 생태계 보전지역에 사는 주민들에 대해 지금까지 해 온 영농행위와 어로행위, 채취행위를 계속 할 수 있도록 하고 건축물의 증·개축도 기존보다 2배까지 허용하도록 완화했다.

'희망의 쉼터' 개설

동화사, 대구 이천동에

동화사 부설 불교사회복지회(회장 무공)는 3월3일부터 대구 남구 이천1동사무소 3층에 '남구 희망의 쉼터'를 개설한다.

대구시 남구청의 주최로 불교사회복지회가 주관하는 이 쉼터에는 복지사 2명과 자원봉사자 1명을 근무토록 해 정보교류, 취업상담, 심리상담, 무료급식 제공, 문화영화 상영, 여가선용 장비(바둑 음악시설) 비치, 사찰무료관람권 제공 등의 사업을 펼칠 예정. 처음 이용시에 '쉼터 회원증'을 발급하고 이용료는 무료다. (053)427-1907

뉴스 & 뉴스

조계종 개혁종단 '적법'

94년 승려대회 이후 출범한 개혁회의와 개혁회의법에 따라 실시된 총무원장 선거는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2월24일 황진경외 6인이 상고한 조계종 총무원장 직무정지가처분과 김윤성외 2인이 항고한 총무원장 선출 무효확인 소송에 대해 이의가 없다고 확정 판결했다. 이로써 조계종 개혁종단에 대한 적법성이 사회법상으로도 문제가 없음이 공인됐다.

실천승가회 임원 개편

실천불교전국승가회(공동의장 청화 지선)는 25일 봉은사 교육관에서 50여명의 회원스님이 참석한 가운데 제 5차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신년사업 및 예산안을 승인했다. 또 청화스님을 단일 의장으로 한 신임의장단과 집행위원을 선출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실천불교포럼 운영, 한국현대불교운동사 Ⅲ 발간, 민족 통일 기원 방생법회 봉행 등을 신년사업으로 추진키로 했다. 실직자들을 위한 쉼터 개설 및 프로그램 개발, 봉축기간 타종교 성직자 초빙공개토론회 등 특별사업도 승인했다.

대승사회硏 설립키로

전국불교운동연합은 24일 조계종 복지재단 강의실에서 제6차 대의원총회를 열고, 불교운동 정책연구 및 인재양성을 위한 대승사회연구원(가칭)을 설립키로 합의했다.

또 상임의장에 지원스님<인터뷰 4면>을 만장일치로 추대했다.

전불련은 대승사회연구원을 1월경 가시화하기로 하고, 불교개혁의 내용을 구체화하고 연구내용을 공론화하기 위한 불교계 여론조사사업, 잡지발간 사업 등을 추진키로 했다.

진흥원 IMF극복 수련회

대한불교진흥원(이사장 서돈각)은 3월 28~29일 괴산 다보수련원에서 IMF 위기를 맞아 부도 실직 등 불안에 떠는 불자들에게 용기를 심어주기 위해 '다시 일어서자'란 주제로 IMF 극복 용맹정진 수련회를 연다. (02)719-1855



◇조계종 스님들과 선암사 대중스님들이 팽팽히 대치하자 순천시가 양측의 물리적 충돌을 대비해 5개 중대를 투입했다.

선암사 싸고 조계-태고 마찰

목탁소리

도 필 선 〈취재1부 기자〉

순천 선암사를 둘러싼 조계·태고종 간의 분규가 또다시 재연됐다.

세민스님(수안사주지)을 비롯한 조계종 스님과 신도 80여명이 2월 23일 오전 5시20분 선암사 대웅전과 설선당을 점거 태고종측 스님 20여명과 대치하다 12시간만인 이날 오후 5시30분쯤 자진 철수했다.

이와관련 태고종은 오전 12시30분 서울 총무원청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조계종 세민스님은 승려와 불량배를 동원해 종권침탈행위와 훼불행위를 자행하고 있다"며 "전 종도의 의지를 한데 모아 선암사를 끝까지 사수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오후 3시20분에는 세민스님측이 선암사 노전실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선암사 접수는 산내 대중 다수의 동조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라고 밝혔다. 순천경찰서는 양측의 물리적 충돌을 우려, 5개중대 7백50명의 전경을 배치했다.

이날 태고종 총무원은 선암사 산중총회, 선암사 수호비상대책위원회를 잇따라 열고, 주지 지암스님을 비롯 7직 스님을 해임키로 했다. 이 자리에서 선원장 향산스님, 법인스님, 법상스님은 산문출송됐다. 태고종은 24일 시·도교구 종무원장 회의를 선암사에 긴급 소집 선암사를 태고종 직영사찰로 운영키로 했다.

한편, 25일 전불련은 성명서 통해 "폭력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불가(佛家)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다"고 지적하고, 양종단이 책임있는 모습으로 사태해결에 나서주기를 촉구했다.

선암사는 40여년간 분규가 계속돼 온 사찰로, 그동안 법적사찰 소유권은 조계종측이, 점유권은 태고종측이 또 재산관리권은 지역 자치단체장인 순천시장이 행사해 왔다.

조·태분규는 1954년 5월 21일 이승만 대통령의 유시로부터 시작됐다. 현재 분규는 순천 선암사 향림사 서울 봉원사 백련사 안정사 인천 용궁사등 규모가 큰 사찰들을 중심으로 잊을만 하면 재연되고 있다. 분규의 핵심은 사찰의 운영권을 둘러싼 재산차지로 모아지고 있지만 조계종은 '정화'로 태고종은 '법난' '분규'로 다르게 부르고 있어 법통과 자존심의 문제도 적지 않음을 내비치고 있다.

보다 중요한 것은 두 종단의 갈등은 불교의 위상을 실추시키는 것이라는데 있다. 사찰과 승가는 성불과 중생교화를 위해 존재하는 만치 분규라는 현안이 40년이 넘도록 지속되는 모습은 결코 아름다울 수 없다. 두 종단의 분규역시 일제의 잔재다. 대승적 차원에서 양보와 협동의 지혜를 보여 분규를 종식시킬때 두 종단의 발전과 한국불교의 전체적 화합분위기가 형성될 수 있다. 3·1절을 앞두고 발생된 이번 선암사 사건은 바로 이 점을 재확인시켜주었다.

불교인들의 만남, 불법 속의 생활 그리고

사랑을 추구하는 결혼 연구원

날마다 좋은 날이 되소서..

안녕하십니까.



戊寅年 3월 현대정보결혼연구원 5주년이 됩니다.
사랑과 애정으로 이끌어주신 불자님들께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5주년 기념행사를 축하하며
우리 불자님들에게 다소라도 도움이 되어 드리고자
98년 3월부터 4월까지
두달간 회비를 50% 감면
10만원으로 모시겠사오니
많은 성혼 이루어주시기 바랍니다.

-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원장 이 영숙(본명)

大卒, 초·재혼 신원확실하고 직업 확실한 미혼남녀 환영,
지방에 계신 불자님은 서신과 전화로 연락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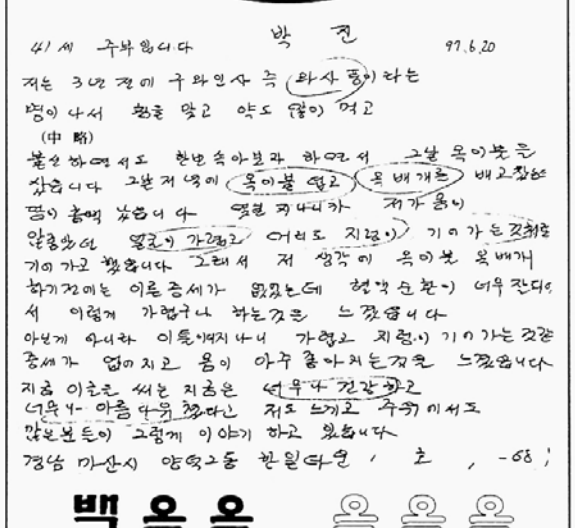
※ 인생문제 특별상담합니다!!

현대정보 결혼연구원
원장 이 영숙 합장(법명:無生子)
서울시 영등포구 영등포동 5가 18번지 영신상가 3층 317호
대표전화 : (02)634-4910~2
(011)288-4910

춘천 옥산가옥의 신비!

아래와 같은 사연 수백통씩의 건강체험 사례집이 4권에 이릅니다. 성인병 난치병에는 玉을 적극적으로 사용해 보십시요.

옥침구



백옥염주 옥옥옥 벨너이 트윅블

※ 춘천옥이라는 제품은 수입 유사품옥입니다. 진옥은 玉山家매장에서만 판매합니다

서울시 중구 을지로2가 50번지 쁘렝땅백화점 지하상가 을지로쪽입구
玉山家® 是空 合掌
777-0105 (우편판매가)

여성질병의 원인과 향요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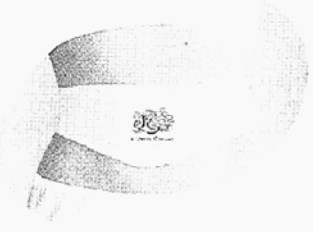
향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생리통, 생리불순, 기미, 스트레스가 말끔히 없어지며 피가 맑아지고 모든 통증이 사라집니다.

나에겐 어떤 증세가 있을까?

■ 해당되는 증상에 (○)하십시오.
1. 피부가 거칠고 탄력이 없다. ( )
2. 두통이 있거나 빈혈이 있다. ( )
3. 불면증이 자주 있다. ( )
4. 허리 통증이 있는 편이다. ( )
5. 기미가 있다. ( )
6. 신경이 예민하거나 신경성이 있다. ( )
7. 우울증이 있거나 의욕이 없다. ( )
8. 생리 주기가 정상적이 아니다. ( )
9. 생리통이 심한 편이다. ( )
10. 생리 때 빛깔이 검고 탁하다. ( )
11. 배나 목부 근처에 살이 찐 편이다. ( )
12. 피로를 자주 느끼는 편이다. ( )
13. 가슴이 답답하고 열기가 위로 올라간 것 같다. ( )
14. 발바닥이 갈라지거나 트고 굳은 살이 있다. ( )
15. 전반적으로 혈액순환이 안되는 것 같다. ( )
16. 목이 뻐근하거나 눈이 침침하다. ( )
17. 변비가있다. ( )
18. 당뇨와감상선으로통받는다. ( )
3가지 이상 관련되시는 분은 필히 상담을 받으십시요.

태아가 엄마의 탯줄을 통해 모태에서 영양을 공급받는 것처럼 신궐혈(배꼽)에 향비를 착용하면 인체의 음과 양, 기력, 장부 조절을 비롯해 자율신경 내분비 개선 등의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향비는 프리호르몬의 생성을 촉진하는 데 이 프리호르몬은 우리 몸의 균형을 조절해 주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 인체의 자연치유력을 증강시킵니다. 그렇습니다. 이 향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생리통이나 생리불순, 두통이나 불면증, 기미, 피부 및 혈액순환에 좋으며 자신도 모르게 좋은 향기를 발산하게 됩니다 이제 향기로 질병을 치료하는 향요법 향비를 꼭 기억하십시오

향비 등 사용해 보세요!



향비를 사용한 체험담

저는 1남 1녀를 둔 가정주부입니다. 몸이 약하고 힘든 탓인지 2-3년 전부터 불면증과 방광염이 생기면서 얼굴에 기미가 끼기 시작하더군요. 백방으로 노력하였지만 아무런 효과가 없었어요.

그래서 무방비 상태로 두고 있었는데 언니가 한약재 성분으로 만든 "향비"라는 배꼽에다 착용하는 제품이 있는데 먹고 바르는 약이 아니라서 부작용이 없을것 같다고 사용해 보자고 하더군요. 그래서 반신 반의 하는 마음으로 착용해 보았더니 얼마 되지 않아서 저도 모르는 사이에 불면증이 없어지면서 사람들로부터 피부가 고와졌다 예뻐졌다는 말을 자주 듣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제가 보아도 화장도 잘 받고 기미도 옅아지고 혈색이 잘도는것 같아서 생활에 자신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지금 약 6개월이 되었는데 거의 하루도 빠짐없이 근기 있게 사용해 왔고 앞으로도 계속 착용할 예정입니다. 다시한번 향비에 고마움을 전하면서 저처럼 기미, 불면증, 방광염, 생리통으로 고민하는 분들에게 꼭 권해보고 싶은 제품입니다.

서울시 도봉구 방학동 272 신동아 APT 박 지 희

제품문의 : (株) 고려물산, 한국 방향연구소 / 수신자 부담 02) 755-9821, 080) 200-4545

힘을 모아야 할 때…
PCS 016과 원샷 018이
먼저 힘을 모았습니다.

PCS 016 + 원샷 018
최다 디지털 기지국 3,400개

한국통신프리텔과 한솔 PCS의 통합망 공동 구축으로 4월에는 3,400개의 기지국을 확보합니다.
이제, 99.9%의 완벽한 전국통화시대를 열겠습니다.

최다기지국 기지국이 가장 많은 PCS이기에 전국 어디서나 끊김없이 통화됩니다.

기지국이 3,000개가 넘는다는 어떤 이동전화회사도 알고보면 잘 통하지 않는 아날로그 따로, 디지털 따로! 순수 디지털 기지국은 PCS기지국 보다 적습니다. 원샷 018과 PCS 016은 통합망 공동 구축으로 농어촌, 산간벽지, 낙도 어디서나 시원하게 통하고, 소리가 보이는 완벽한 전국통화 서비스를 실현합니다.

구분	016+018디지털 기지국	
기지국 수	2월말 현재 / 3,255개	4월말 현재 / 3,404개

통합망구축 IMF시대, 난국을 극복하고 나라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힘을 모았습니다.

원샷 018과 PCS 016은 통합망 공동구축으로 어려운 IMF 시대에 4억 달러의 외화를 절감하고, 1조2백억원에 달하는 시설투자비의 거품을 과감하게 뺐습니다.
이제, 한국통신프리텔과 한솔 PCS는 눈앞의 이윤보다는 국익을 생각하는 기업으로 경쟁보다는 힘을 합쳐 국가경쟁력을 높이고 국민 여러분께 보답하는 국민통신기업이 되겠습니다.

지하철통화 첨단의 광중계 기지국 설치로 달리는 지하철 속에서도 PCS는 결코 끊어지지 않습니다.

지하에서 통화된다고 말하는 이동전화도 달리는 지하철 속에서는 증증 끊어집니다. 100% 광케이블망과 광중계기지국으로 연결된 PCS- 빠르게 달리는 지하철 속에서도 속삭이는 소리까지 끊김없이 잘 통합니다.

일시	구간	비고
2월 현재	서울5,7,8호선, 대구 / 부산 1호선	시험전파 발사중
3월중	서울1,2,3,4호선	개통예정



PCS 016을 쓰시면 1년에 20만원이상 절약됩니다.

(월400분 사용기준)

오래 쓰시면 추가로 최대 20%까지 할인됩니다

이용기간	1년 이상	2년 이상	3년 이상	5년 이상
할인율	5%	10%	15%	20%

* 통화료 할인은 무세통화료에 한합니다

번호를 지정하시면 20%가 더 할인됩니다

3개 번호까지 자주 쓰는 번호를 지정하시면 그 번호의 통화요금은 20%이상 할인됩니다.(월사용료 2,000원 별도)

PCS 016의 표준요금

구분	요금		
기본료(월)	16,500원		
통화료(10초당)	평상(19원)	할인(15원)	심야(10원)

작은 선택만으로 불국토를 만들어 가는

PCS 016 「부다피아 포교기금」

통화료의 5%는 통일포교와 소외된 이웃을 위해 사용됩니다.

「부다피아 포교기금」 조성을 위해 스님들과 종무원을 대상으로 특별할인판매합니다.

부다피아 포교기금이란?

PCS 016 가입시, 「부다피아 포교기금」으로 신청만 하시면 최고의 이동통신서비스를 받으시면서 불국토를 만드는 데 힘을 보태실 수 있습니다. 고객에겐 조금의 부담도 없이 사용 통화료의 5%가 「부다피아 포교기금」으로 적립되기 때문입니다. 이 기금은 전문 단체를 통하여 통일 포교와 불우 이웃 돕기로 쓰입니다.

「부다피아 포교기금」이 꿈꾸는 세상,
모두가 하나되는 부처님 나라

주관:현대불교신문사
후원:한국통신프리텔, 우리민족돕기불교운동본부, 소쩍새마을, (사)감로심장회

신청서 접수처

우편번호: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부다피아 포교기금」
☎:(02)732-1522, 737-8881,
FAX:(02)737-0697 (02)737-0698, 0696

은행	계좌번호	예 금 주
국민은행	006-01-0783-279	현대불교신문사
농 협	053-01-236053	현대불교신문사
우 체 국	010041-0289770	현대불교신문사

그동안 불자여러분의
성원으로 마련한
부다피아 포교기금
1차분 ₩3,000,000을
2월 23일 소쩍새마을로
전달했습니다.
계속 성원 바랍니다.

현대불교신문사내
부다피아 포교기금
사업부 합장

소리가 보인다
PCS 016